

# 벨기에

---

---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 목 차 ▶

##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1
2. 정치사회동향 /2
3. 한국과의 주요이슈 /5

##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6
2. 주요 산업 동향 /9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16

## III. 무역

-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17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19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20  
대한수입규제동향 /24  
관세제도 /24  
주요인증제도 /26  
지적재산권 /29  
통관운송 /31

## IV. 투자

###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35
- 외국기업 투자동향 /37
- 우리기업 투자동향 /39

###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39
- 진출형태별 절차 /44
- 투자입지여건 / 49

###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54
- 조세제도 /56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59

##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특성 /60
2. 물가정보 /64
3. 바이어발굴 /66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 68
5. 무역, 투자 진출시 애로사항 /69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70
7. 이주정착 가이드 / 71
8. 출장가이드 /72



1992 MAGELLAN Geographic Systems Santa Barbara, CA (800) 929-4627

## 1. 국가일반

### 1. 국가개요

#### 가. 일반사항

국명	벨기에(Belgium)
위치	북유럽, 프랑스, 화란, 독일, 룩셈부르크와 접경
면적	32,547 km <sup>2</sup> (유럽의 1/330, 경상남북도 크기)
기후	해양성, 연평균 기온 : 여름 12-25℃, 겨울 0-10℃
수도	브뤼셀 / BRUXELLES(불어), BRUSSEL(화란어), BRUSSELS(영어)
인구	10.5 백만 명
주요도시	브뤼셀(99만 명), 안트워프(94만 명), 리에주(58만 명), 샤를르루와 (42만 명), 겐트(50만 명)
언어	플란더스 지방 : 화란어 왈로니아 지방 : 불어 브뤼셀 : 불어, 화란어 공용 독일어 공동체 : 독일어
종교	로만 카톨릭 (75%), 그 외 프로테스탄트, 이슬람, 유대교
독립일	1830년 7월 21일
정부형태	○ 입헌군주국으로서 내각책임제 ○ 연방국가 - 연방정부 - 지방정부(왈로니아, 플란더스, 브뤼셀 등 3개 지방정부), - 언어공동체(왈로니아- 브뤼셀의 불어공동체, 화란어 공동체, 독일어 공동체)로 구성
국가원수 (실권자)	국가원수 : 알베르 2세 (제6대 국왕) 취임일 1993.8.9 연방정부 총리 : 기 베르호프스타트(Guy Verhofstadt) (07.6 총선이후 신정부가 구성되면 퇴임해야 하나 선거후 아직까지 연방정부가 구성되지 못한 상태)

#### 나. 경제지표 (2006년)

GDP	3110억 유로/ 1인당 GDP: 28,584 유로
실질경제성장률	2.9%
실업률	8.2%
물가상승률	1.8%
화폐단위	EURO (2002년 1월 1일부터)
환율	1 EURO = 1.26미불 (2006년 평균 환율)
외채	37.2억 유로
산업구조	서비스업(67.4%: 상품서비스 54.1%, 비상품 서비스 13.3%) 제조업(17.5%, 전기, 가스, 물 제외), 농업(1.2%), 기타 13.9%
교역규모	수출: 2940 억 유로 / 수입: 2817 억 유로
교역품	수출: 화학, 의약품, 기계, 전기전자기기, 운송기기 플라스틱, 철강제품,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수입: 기계, 전기, 전자기기, 화학 및 의약품, 자동차,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철강제품

## 다. 한-벨 관계

<b>체결협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증면제협정('70), 투자보장협정('74), 항공협정('75)</li> <li>○ 이종과세방지 협정('77), 경제협력 협정('78)</li> <li>○ 문화협정('78) 해운협정('87)</li> <li>○ 운전면허 상호승인 교환각서('90)</li> <li>○ 이종과세 방지협정 보조협약 개정 서명('94)</li> <li>○ 항공 협정 개정('95), 사회보장협정서명('05.7),한/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 동맹 투자보장 협정서명('06.12), 형사사법공조조약서명('07.1)</li> </ul>
<b>교역규모</b>	○ 우리나라의 수출 21.9억불, 수입 9.4억불(2006)
<b>교역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의 수출: 자동차, 건설중장비, 선박, 자동차부품, 아연도강판, 평판 디스플레이, 냉연강판, 합성수지, 내연강판, 기타 정밀 화학 연료, 기타 석유 화학 제품 등</li> <li>○ 우리나라의 수입: 기타 정밀 화학 원료, 의약품, 가축 육류, 석유 화학 합성 원료, 합성 수지, 중후판, 펌프, 기타석유화학제품, 냉연강판, 승용차 등</li> </ul>
<b>투자교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벨기에의 대한 투자: 141건, 31억 2천 2백만불(62-2006)</li> <li>○ 우리나라의 대 벨기에 투자: 16건, 1억 5천 6백만불(62-2006)</li> </ul>
<b>교민</b>	○ 약 450명 (주 벨기에 한국대사관 겸 EU 대표부 집계, 체류자 포함)

자료원: 벨기에 중앙 은행 2007년 12월, Kotis

## 2. 정치 사회 동향

### 가. 국가제도

#### 1) 행정부

입헌군주국으로서 국가체제는 연방국가이며 연방정부(중앙정부)와 3개의 지방정부 및 3개의 언어별 공동체로 구성되고 정부(연방과 지방) 형태는 다수 내각 책임제이다.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은 국가간 외교, 국방, 사회보장, 통화, 세제, 안보 및 치안, 사법분야에 국한되고 나머지 분야는 지방정부와 언어 공동체 권한에 속한다.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외국의 지방당국과의 경제, 과학, 문화적 외교 관계, 지역고용 정책, 토지관리 정책, 과학기술 개발 정책, 도로, 항구 등 공공사업 등을 관할하고 언어공동체는 교육, 문화, 복리후생(장애자, 탁아소, 청소년 보호 등)을 관리한다. 지방정부로는 플라미쉬, 왈로니아, 브뤼셀의 3개 지방정부가 있고 언어공동체로는 네덜란드어, 불어, 독일어 의 3개 공동체가 있다. 또한 각 지방정부와 공동체는 고유의 행정부와 의회를 가지고 있다.

#### 2) 사법부

사법권의 독립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법관은 국왕에 의해 종신직으로 임명되며 형법상 소추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최고재판소로는 브뤼셀에 파기법원(Cour de Cassation)이 있으며 상급법원은 각 주에 있는 중재재판소(Cour d'Assise)와 5개 지방에 상고법원(Cour d'Appel)이 있다. 또한 24개의 사법 구에 1심 재판소(Tribunal de Premiere Instance)가 있고 각 읍에는 1개의 치안재판소(Justice de Paix)가 있다. 특별법원으로는 노동법원, 상사 법원, 청소년법원, 전쟁법원, 군법회의가 있으며 최고 행정 재판 기관으로는 국가 평의회 (Conseil d'Etat)가 있다.

### 3) 의회

벨기에의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이다. 하원은 직접 및 보통선거에 의한 선거구역별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에 의해 선출된 150명의 직선의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4년이며 입법권이 있다. 반면 상원은 입법권이 없이 자문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총 7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40명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10명은 직선 상원의원에 의해 간접적으로 선출되며 나머지 21명은 언어공동체 의회에 의해 파견된 의원들이다. 상원 임기도 4년이다.

한편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및 보통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브뤼셀 지방의회는 7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환경, 도시계획, 공공사업, 청결문제, 운송 등 도시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불어와 화란어 의원들이 따로 모여 각각 불어권 의회, 화란어권 의회를 구성하고 이들 각 언어권 의회는 해당 언어권의 교육과 문화 등 개인과 관련된 문제를 취급한다. 왈로니아 지방의회도 7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경제, 환경, R&D, 도시계획, 공공사업, 청결문제, 운송 등 도시와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한편 불어 공동체 의회는 왈로니아 지방의회의 의원 75명과 19명의 브뤼셀지방 의회의 의원 (불어의원)으로 구성되며 문화, 교육, 시청각 등 개인에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플라미쉬 지방의회는 12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118명은 직접 및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6명은 브뤼셀 지방의회 의원(화란어의원)들인데 이는 왈로니아 지방과는 달리 플라미쉬 지방은 지방의회와 언어공동체 의회를 합병한 대신 브뤼셀지방의회의 화란어 의원을 통해 브뤼셀지역의 화란어권 문제를 별도로 취급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독일어 공동체 의회의 25명의 의원 모두는 직접 및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문화, 교육, 시청각 등 언어공동체 의회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문제 이외에도 유물 및 유적지관리 권한이 있다.

## 나. 정치제도

### 1) 선거제도

하원 의원(총 150석) 선거는 4년마다 실시된다. 만 18세 이상의 벨기에 국적의 국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의무 투표제이다(합당한 이유 없이 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선거 주기는 4년이나 내각과 국회가 해산되면 만기 이전이라도 총 선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정치의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내각 해산 때에 국회가 임시수상을 임명하고 국회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만 내각과 국회가 해산된다. 정당활동과 선거유세에 따른 사회 부정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국가가 선출된 국회의원수를 기초로 정당에 보조금을 부여하는 대신 국가의 재정감사를 받는다.

### 2) 정당제도 및 현황

벨기에에는 총 22개의 정당이 있으며 그 중 주요정당은 VLD-MR, CD&V-CDH, SPA-PS, ECOLO-GROEN(전통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화란어-불어계의 4개 정당)이다. 2007년 6월10일 총선거 결과 플라미쉬지방에서는 CD&V-NV.A(금번 선거에 2개의 플라미쉬정당이 결합함)가 브뤼셀과 왈로니아지방에서는 MR당이 승리하였다. 6.10 선거 결과 각 정당의 하원의원 의석 수는 다음과 같다.

- CD&V-NV.A(화란어계) : 30
- MR (불어계): 23
- PS (불어계): 20
- Open VLD (화란어계): 18
- Vlaams Belang (화란어계): 17
- SP.A-SPIRIT (화란어계) 14
- CDH(불어계): 10
- ECOLO(불어계) : 8
- Lijst Dedecker(화란어계) : 5
- Groen(화란어계) : 4
- FN(불어계) : 1
- 참고: 2007년 6월 10일 총선거 결과를 기초로 연정구성을 시도하고 있으나 언어권 (화란어계와 불어계)간의 이해 상반으로 선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신연정을 구성 못하고 실패에 돌아감. 현재 국왕이 Verhofstadt 구 정부 수상에게 임시정부 구성 임무를 주어 임시정부 구성작업에 들어감.

### 3) 각 정당의 정치적 성격

- 기독교사회당 (CD&V)
  - 1939년 창당, 플라미쉬 카톨릭계, 전통 고수주의 경향이 짙은 우익계, 국가의 경제사회 문제 개입주의. 플라미쉬 이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의미로 최근 정당의 이름을 CVP에서 CD&V로 대체
- 인류민주당 (CDH)
  - 1939년 창당, 과거 불어계 기독교사회당이며 기독교만에 국한하지 않고 인류주의로 확대 한다는 의미로 기독교라는 단어를 인류로 대체하는 동시에 과거 우익적인 성격에 강했던 것에서 중립으로 전환
- 사회당 (SPA)
  - 1885년 창당, 근로자의 이익보호, 사회보장 등 사회주의 이념이 강한 플라미쉬 좌익당
- 사회당 (PS)
  - 1885년 창당, 불어계 사회당으로 SP와 동일한 정당이념을 가지고 있는 좌익 성격의 정당
- 자유민주당 (Open VLD)
  - 1992년 창당, 정부의 경제,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을 반대하고 자유경제 원칙을 강조하는 플라미쉬 우익당
- 개혁당 (MR)
  - 1965년 창당, VLD와 유사한 정당이념을 가지고 있는 불어계 우익당. 최근 '개혁운동'으로 정당 명을 바꿈. 1993년 브뤼셀의 불어계 주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브뤼셀지역에 국한된 FDF당과 연합
- 환경당 (Groen)
  - 1980년 창당, 자연, 환경주의, 인권주의 및 민주주의 강화를 주장하는 정당으로 사회당 보다 좌익성이 더 강한 플라미쉬 정당
- 환경당 (ECOLO)
  - 1980년 창당, AGALEF와 정당이념이 동일한 불어계 환경당

- SPIRIT(플라미쉬연합)
  - 1961년 플라미쉬 지방의 자치권 확대를 주창하고 국수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며 플라미쉬 지방의 독립을 주장하는 극우파 정당
- FN, VLAAMS BELANG, Lijst Dedeckers
  - FN, 불어계 극우파 정당. VALAAMS BELANG과 Lijst Dedeckers는 화란어계 극우파 정당(플라미쉬 지역의 독립 주장)
- MCC
  - 1998년 창당, 브뤼셀, 왈로니아의 불어계가 단결, 경제부흥을 주 목표로 삼고 MR-FDF와의 연합

### 3. 한국과의 주요 이슈

2005년 11월 초 Verhofstadt 총리가 한국 기업의 대 벨기에 투자 유치를 증진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혜택 조치를 설명하고자 방한, 노무현 대통령과 1995년 이후 10년 만에 정상 회담을 갖고 한-벨기에 양국간 실질협력강화 방안, 한.EU 관계 및 한반도 안보와 북핵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베르호프스타트 총리는 벨기에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에 대해 소개하면서 양국의 경제규모, 개방적 경제 정책을 감안 할 때 상호 교역 및 투자 확대의 여지가 다대함을 확인하고 각각 동아시아 경제권과 EU 경제권의 중심으로서 상대방 경제권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음과 아울러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우리기업들의 벨기에에 대한 투자확대를 적극 희망 하였다. 양국 정상은 2005년 7월 한.벨기에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이어 베르호프스타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투자보장협정개정에 합의했다.

한편, 북핵문제와 관련, 벨기에는 EU 당국과 입장을 같이하여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법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 □ 사회보장협정서명

2005년 7월 5일 한-벨기에는 사회보장 협정을 서명하였으며 현재 국회비준 동의 절차 진행 중 이다.

#### □ 한-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투자보장 협정 서명(2006년 12월 12일)

벨기에 외무장관(Karel de Gucht)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 동맹 투자 보장 협정을 계기로 한국기업들이 벨기에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였으며 우리 측도 동 협정이 양측 교역투자 협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양측 투자자들이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한-벨기에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작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난 2005년 7월 서명된 한-벨기에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희망했다

#### □ 한-벨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 서명

2007년 1월 17일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최초로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서명한데 이어(1995년) 벨기에와 동일한 조약을 서명함으로써 벨기에는 한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2번째 EU국가가 되었다.

## II. 경제

###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 가. 연도별 거시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03	2004	2005	2006
GDP(십억 유로)	275	288	297	311
1인당 GDP(유로)	26,412	27,579	28,285	28,584
실질 성장률(%)	0.9	2.4	1.5	2.9
물가 상승률(%)	1.6	2.1	2.8	1.8
실업률(%)	8.2	8.4	8.4	8.2
수출(십억 유로)	180.9	197.0	212.9	294.0
수입(십억 유로)	171.0	188.9	212.2	281.7
외채(억 유로)	47	45	42	37.2
연평균환율(유로/미불)	1.1312	1.2439	1.2441	1.2556

자료원: 벨기에 중앙은행(2007.12)

#### 나. 주요 경제정책

##### 1) 경제기조

2003년 5월 18일 선거 이후 Verhofstadt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의 안정과 성장, 과세경감, 고용 창출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전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긴축조치를 다소 완화했으며, 2008년 총 재정적자 수준을 GDP의 84.2%로 내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재정적자를 줄이는 한편 벨기에 국민이 해외 은행에 저축한 자본을 국내로 송환할 경우 탈세 위법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벌과금을 완화(추가 이자 소득세 6% 적용)하며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부과 세율(3%)을 더 감소하는 정책을 수행한 바 동 조치에서 거두어 들인 세액 중 일부를 향후 국민연금 기금 예비금에 할당하였다.

##### 2) 대외경쟁력 정책

벨기에 정부는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봉급 인상 억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나 봉급 인상은 정책과는 별도로 고용 시장 추세의 영향을 받고 또한 고용주와 노조, 피고용인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책 가이드라인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벨기에의 국가 체제가 연방 체제로 바뀌면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재정이 개입되는 실제 경제 정책은 지방정부의 소관이 되었다.

각 지방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수행하기 보다는 지방 이익에 초점을 둔 경제정책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의 이미지에 혼선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와 벨기에 연방정부는 이를 수정하기 위해 지방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해외전시회와 주요 국가에 경제 사절단을 공동 파견하는 등 국가 차원의 경제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3) 새로운 정책

벨기에 정부는 EU의 리스본 전략, 즉 고용 강화, 경제 개혁, 사회 결속을 목표로 지식에 기초한 경제 전략에 준하여 경쟁과 고용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와 환경 측면에서 균형적인 경제 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2005-2008년 경제 개혁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예산 균형: 2014년에 정부 재정 적자율 GDP의 60%로 감축, 2010년에 최소 예산 잉여액 0.1% 실현
- 노동시장 개혁과 활성화: 2010년까지 노령근로자 수 EU평균(2005년 기준)보다 1.5배 증가, 고용 율 70% 목표
- 경제 발달을 위해 투자 장려: 2010년 까지 R&D 투자율 3%(GDP대비) 목표, 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개혁, 공기업의 경쟁력 제고
- 사회보장 강화: 연금과 기타 복지 증가(연간 GDP의 0.057% 할당), 사회보장의 균형 유지와 빈곤 타파를 위한 조치 도입
- 환경과 경제 발전 사이의 시너지 강화: 교토 의정서 준수(2008-2012년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량 1990년 수준에 비해 -7.5%, 연간 에너지 효율성 1% 증가

한편, 벨기에 정부는 특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교육수준이 낮은 젊은이들의 실업률을 줄이는 동시에 50대 이상의 노동율을 높이기 위해 30세 미만의 실업자를 채용할 경우 고용주에게 일정 금액의 사회 보장비를 면제하고 있고 50세 이상의 노령 근로자들이 조기 퇴직하지 않고 계속 일하도록 고령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고용비용을 줄이는 한편 조기 퇴직의 혜택을 줄이는 등 새로운 조치를 채택했다.

또한 현대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학계와 산업간 밀접한 교류를 장려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 부흥과 고용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기업과 함께 외국인 투자 유치국으로서의 위치를 향상하기 위해 세계를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벨기에 총리는 2005년 11월 초 아시아 기업의 벨기에 투자를 고무시키기 위해 한국, 일본, 싱가포르, 중국, 홍콩을 순방한 바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 장려 조치 가운데 중요한 조치는 행정 절차 간소화와 법적 안정성 제고, “notional interests(가상적 이자)” 도입이다. “가상적 이자”라는 것은 기업이 자기자본을 투자할 때 주는 일종의 세제 혜택으로 자기자본 투자액을 은행에서 대출 받았을 경우에 은행에 지불해야 할 대출 이자에 해당하는 가상적 이자액을 법인세에서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Notional interests” 제도는 유럽국가 중에서 벨기에만 있는 제도로서 조세 전문가들은 동 조세혜택 제도가 앞으로 수십 년간 벨기에의 가장 중요한 투자 장려 조세제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 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2003년부터 법인세율을 EU 평균 수준(35%)보다 낮은 33%로 인하한 동시에 벨기에의 주요 경쟁국(프랑스, 독일, 화란) 대비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봉급 인상률을, 이들 경쟁국의 봉급 인상률 보다 높지 않도록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와 함께 가계 소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세금 인하 조치, 최저생계비 및 실업 수당의 인상을 통해 민간 소비를 고무하고 25세 이하의 젊은이와 고령자(50-65세)의 노동율을 높이는 정책을 통해 장기적 복지, 경제, 사회 안정을 기하고 있다.

이 외에도 근로 시간 하향 조정 및 파트 타임제 장려, 인력의 공급과 수요 조정, 취업알선 제도의 효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 다.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 1) 2006년 벨기에 경제성장률 2.9%, 2007년에는 2.6% 추정, 2008년 1.9% 전망

벨기에 중앙은행이 발표한 경제 전망에 따르면 벨기에 실질 경제 성장률이 2006년도에 2000년 이래 가장 높은 2.9%에 이어 2007년에는 2.6%로 추정되고 2008년에는 현재 벨기에가 겪고 있는 정치적 혼란(선거 반년이 넘도록 연정 구성에 실패)과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은 1.9%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DP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별 전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2) 민간 소비: 2006년 성장률 2.1%, 2007년 2.2% 추정, 2008년 1.8% 전망

2006년도 민간 소비는 2.1%의 증가율로 작년(1.1%)보다 훨씬 활발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고용 전선의 먹구름이 조금씩 가시기 시작하여 미래 경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져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계속하려는 경향에 기인한다. 금년 경제성장이 작년보다 느슨해지긴 했지만 고용 향상에 따른 민간 소비자들의 심리적 신뢰감으로 민간 소비 성장률은 작년보다 오히려 높을 것으로(2.2%)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2008년에는 경제성장 둔화 영향으로 인해 1.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3) 기업 투자: 2006년 성장률 5.8% , 2007년 4.8% 전망

벨기에 기업 투자는 2004년에 6.7%, 2005년에 4.8% 성장한데 이어 2006년에도 활발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기업 수익 마진의 증가로 5.8% 증가했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다소 낮은 4.8%의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다.

##### 4) 주택투자: 2006년 성장률 4.6%, 2007년 5.0% 전망

2003년과 2004년에 벨기에 가정의 구매력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투자는 각각 3.8%, 9%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 이유는 주택융자금리가 전례 없이 낮았고(4%), 신뢰도 회복과 동시에 2000~2002년에 저조했던 투자의 만회 현상과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해외 도피 자본 회수 정책으로 들어온 자본이 주택에 많이 투자되었기 때문이다.

2005년에는 가정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주택융자금리도 낮았지만 주택 투자 증가율은 예년보다 낮은 3.5%에 머물렀다. 그러나 2006년에는 4.6%로 다시 상향으로 전향, 2007년도에도 계속 상향 추세(5%의 성장률)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다. 수출입(상품+서비스)

##### 1) 수출: 2006년 증가율 2.6%, 2007년 5.2% 추정, 2008년 4.3% 전망

국제 시장의 흐름 세와 환율이 벨기에 수출을 좌우하고 있다.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유로 환율이 달러에 비해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 특히 가격 면에서 국제 경쟁률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 벨기에 수출의 70% 이상이 유로 지역이므로 환율의 영향

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2006년, 2007년에 국제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발했던 덕분에 벨기에 수출도 각각 2.6%, 5.2%의 비율로 성장했으나 2008년에는 4.3%로 2007년의 성장 폭보다는 낮은 폭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2) 수입: 2006년 증가율 2.5%, 2007년 5.8% 추정, 2008년 4.2% 전망

벨기에는 전통적으로 수출이 수입보다 활발했었는데 최근 수년 동안에는 수입증가율이 수출 증가율보다 높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2007년 수입 증가율은 5.8%로 2006년에 비해 크게 성장했는데 2008년에는 전반적인 경제 둔화로 성장율이 4.2%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3) 물가: 2006년 인상률 1.8%, 2007년 1.7% 추정 2008년 2.6% 전망

2006년에 물가 상승률(주류, 담배, 유가 제외한 물가상승율)은 1.8%였는데 2007년에도 거의 유사한 수준(1.7%)이나 2008년에는 2.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료원: 벨기에 중앙은행: 2007.12)

## 2. 주요 산업 동향

### 가. 전체산업동향

GDP 대비 벨기에 산업의 비중을 보면 공업이 19.6%인데 이 중에서 전기, 가스, 상수도 2.1% 와 광업 0.1%를 제외한 제조업은 17.5%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67.4%는 서비스업이다. 농업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현재 1.2%에 그치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는 건축업(4.4%)을 제외하면 화학(4.2%)과 기계제조(3.6%)가 가장 발달한 산업이고 그 다음 식품(2.5%), 철·비철 금속(2.7%)산업이며 그 외 제지, 출판산업(1.4%), 비금속 (0.9%), 섬유·신발(0.8%)순 이다. 섬유와 신발산업은 해마다 위축되고 있다.

벨기에는 비 상품 서비스업이 상당히 발달한 국가로서 비 상품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13.3%이며 제조업보다 높은 수준이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임대와 그 외 서비스업이 21.3%로 가장 높고 그 다음 도. 소매업이 11.1%, 운송 및 통신 서비스는 6.6%를 차지한다.

의료 및 사회 분야의 서비스는 6.3%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금융 서비스는 5.1%를 차지하여 건축업과 화학산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나. 벨기에 자동차 시장

#### 1) 자동차 시장 개관

2006년 서구(EU 23개 기존 회원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의 신차 시장은 총 15,364,997대로 2005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는데(0.7%증가) 벨기에에서는 526,141대가 신규 등록 되어 9.6%로 크게 증가했다.

## 2) 벨기에 시장에서 한국 차의 위상

한국 자동차의 경우 EU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볼 경우 1990년에 18,274대가 판매되기 시작하여 2002년에 392,138대, 2003년에 469,265대, 2004년에 590,851대, 2005년에 562,833대, 2006년에 560,649대가 판매되었다. 한편 한국 자동차의 벨기에 시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현대

2006년 현대 차는 벨기에 시장에서 12,561를 판매, 전년의 10,941대보다 14.8% 증가하여 판매 순위 11위의 브랜드로 부상하고 시장 점유율 2.4%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의 성공 요인은 디젤을 비롯하여 유럽인이 선호하는 여러 가지 모델을 시장에 내놓은데 있다.

### □ 기아

기아는 최근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다. 2006년 벨기에 시장의 판매 상황을 보면 약 6,177대로 Chevrolet(대우)를 앞서고 시장 점유율 1.2%에 달한다.

### □ 쌍용

벨기에 시장에서 주력 메이커로 부상하지 못하여 기업 이미지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최근 신형 4X4 Rexton을 시장에 출시하면서 동일 급인 BMW X5, 메르세데스 ML, Jeep Grand Cherokee, 볼보 XC90 등과 비교할 때 매우 경쟁적인 가격을 제시하면서 떠오르는 별이 되고 있다. 2006년 738대가 판매되어 작년 동기 83대에 비해 9배 가까이 증가했다.

## 3) 벨기에의 자동차 제조업체 현황

자동차산업은 고용원 5만 명, 연간 매출액 152억 유로 규모로 만일 유통 및 수선서비스 활동까지 감안할 경우 연간 매출액은 329억 유로로 추정된다. 유틸리티 자동차까지 포함할 경우 벨기에에서의 제조물량은 2006년에 881,929 대에 달했으며 이중 95% 이상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수출대상국은 TOP 국가 순으로 독일, 영국, 스페인, 미국, 네덜란드, 이태리, 스웨덴, 오스트리아, 그리스 등이다. 현재 벨기에에는 4개의 자동차 제조업체의 생산공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동 공장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FORD (Genk)

- 생산량 : 234,290 대
- 생산모델 : Mondeo, Transit
- 고용원 : 6,205 명
- [www.ford.be](http://www.ford.be)

### □ VOLVO (Gent)

- 생산량 : 244,001 대
- 생산모델 : S60, V70
- 고용원 : 4,800 명
- [www.volvocars.be](http://www.volvocars.be)

#### □ AUDI (Brussels)

- 기존 VOLKSWAGEN 공장이 2006년 말 생산 중단 결정을 하고 2007년 5월부터 VW가 AUDI로 바뀜. 2008년부터 AUDI A 1 모델이 생산에 들어갈 예정임.

#### □ OPEL BELGIUM (GM)

- 생산량 : 224,278 대
- 생산모델 : Astra
- 고용원 : 5,100명
- www.opel.be

#### 4) 벨기에 자동차 시장 전망

지난 20년 동안 자동차 산업은 큰 변화를 겪었다. 1980년대만 해도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완성차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80%를 자체 생산했다. 그러나 2006년을 기준할 때, 약 20%만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 자동차 부품 아웃소싱 기업들은 약 250개사로 연간매출액이 120억 유로에 달하고 있으며 고용원도 약 25,000 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금속, 전자, 플라스틱 및 고무 부품, 산업용 유리 및 페인트 제조에 종사하고 있다.

시장 분석가들은 향후 벨기에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 인근지로부터 부품 조달상의 어려움 발생 가능성

이미 언급한 대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자체 생산 부품비율은 지난 20년간 80%에서 20%로 급감하였다. 이에 따라 아웃소싱 비율 확대세가 벨기에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신규차 수요 감소

벨기에 자동차 제조업자 협회(FEBIAC)에 따르면 벨기에 자동차 제조공장 규모는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2020년에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대도시(브뤼셀 지역) 오염 감소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시설 육성
- 2020년경 자동차 운전자의 1/3 이 60세 이상으로, 신차 구입 의사 감소

##### □ 세계화

인건비가 저렴한 동구의 부상과 시장 글로벌화로 서구 자동차 생산이 동구를 비롯하여 중국, 인도, 터키 등 세계 지역으로 이전되고 있는 경향이다. 80여년 전에 벨기에 브뤼셀에 진출 하여 자동차를 생산해 오고 있는 VW(폭스바겐)이 현지 공장 생산을 중단하여(2007년 초) 벨기에 전체에 지진과 같은 진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애초 발표와는 달리 브뤼셀 생산 공장을 완전히 닫지 않고 2008년부터 AUDI A1(소형 모델)을 생산할 계획이 결정되어 현재 고용인 5400여명이 전면 실직되지 않고 반 정도(약 2500명)가 남아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

## 나. 벨기에 철강산업 동향

2006년 말 벨기에 철강산업 종사자 수는 17,162 명이며 매출 규모는 92억 유로, 부가가치 창출액은 24.1억 유로에 달했고 수출은 73억 유로를 기록했다. 수출의 89%가 EU 역내로 수출되고 미국 2%를 비롯하여 역외 시장 수출은 사실상 11%에 불과하다.

2006년 벨기에에서 생산된 Crude steel(선철)은 총 11,631 kt으로 2005년 대비 12% 증가했고 품목별로 세분하면 oxygen converter 8,172 kt, electric furnace 는 3,458 kt이다.

### 벨기에 철강제품 생산 추이

(단위: kt, %)

	2004	2005	2006	2006/05
Crude steel	11,697	10,420	11,631	12%
- Oxygen converter	88,11	7,776	8,172	5%
- Electric furnace	2,886	2,644	3,458	31%
. stainless/기타합금	1,045	1,032	1,522	47%
Hot rolled strip	11,366	9,442	10,721	14%
Plate	797	799	780	-2%
Cold rolled	5,631	4,056	5,786	17%
Coated flat products	4,587	4,095	4,829	18%
Wire rod	893	794	983	24%

자료원: 벨기에 철강협회, Belgian Steel Federation

### 벨기에 철강산업 경제 규모

	2004	2005	2006	2006/05
고용(명)	17,357	17,360	17,162	-1%
매출(백만 유로)	8,200	8,375	9,200	10%
부가가치창출액(백만유로)	2,100	2,184	2,410	10%
수출(백만유로)	6,600	6,700	7,300	9%

자료원: 벨기에 철강협회

한편 벨기에 리에주(Liege)에 주재하고 있는 Arcelor그룹 계열사 Cokerill Sambre에서는 열간압연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Arcelor사가 당초 약속한 용광로 개조 투자를 철회기로 결정하여 벨기에 철강산업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Arcelor 그룹은 선철이나 열간압연과 같은 1차 단계의 제품은 임금 수준이 높은 벨기에에서 보다는 임금이 싼 동구지역에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아울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1차 단계의 제품은 앞으로 철광 채석 장소(일명 Off shore 생산)에서 직접 생산하는 전략을 시사 하고 있어 앞으로 공장 이전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 그룹은 Charleroi에 있는 스테인레스 스틸 생산 공장 규모 확대에 계속 투자한 덕분에 2004년에 벨기에의 스테인레스 스틸 생산량이 처음으로 백만 톤에 달했고 2006년 말 신규 공장의 완공으로 벨기에의 스테인레스 스틸 생산은 1,522 Kt을 초과, 2005년 대비 47% 증가했다.

## 다. 벨기에 정보·통신 산업

2006년 벨기에 정보·통신 산업에 종사하는 총 인구 수는 약 102,000 명, 매출액은 332 억 유로(2005년 대비 4% 증가), 부가 가치 창출은 123억 유로(2005년 대비 약 9% 증가)에 달하고 있다.

정보, 통신 분야는 정보, 통신 기기 개발 및 생산, IT-Solution 및 사무용 기기 판매, 텔레콤 오퍼레이터로 구성되는데 각 분야별 비중은 다음과 같다.

활동 분야	고용(2006)	매출액(십억 유로)	매출 증감율(06/05)
정보, 통신기기 개발 및 생산	13,000	4	+5%
IT-Solution & 사무실기기 판매	57,500	18.7	+5%
텔레콤오퍼레이터	31,000	10.5	+3%
총계	102,000	33.2	+6%

자료원: Agoria

벨기에에는 핸드폰 등 소비자용 통신기구나 컴퓨터, PDA 등 정보기기의 대량 생산이 없고 대부분 공업용 특수기기들이 생산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용 정보, 통신 기기들은 수입품으로 충당되고 있다.

## 라. 벨기에 휴대폰 시장

벨기에의 휴대폰(GSM) 판매는 NOKIA가 1994년 판매를 개시하면서 시작된 이후 NOKIA, ERICSSON 과 MOTOROLA 가 시장의 선두 주자로 두각을 나타내었다.

현재 벨기에의 총 휴대폰 등록 번호 수는 9.6백만개를 초과, 인구 100명 중 91명 이상이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총 인구가 10.5백만명인데 휴대폰 수는 9.6백만대를 넘는다는 것은 사실상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나이의 인구는 거의 모두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벨기에의 휴대폰 보유 현황

(단위: 대)

	2003	2004	2005	2006
총 가구에서의 휴대폰 소유가구 비율	82.8%	87.6%	91.4%	96.2%
사용 휴대폰 수	8,605,834	9,131,705	9,604,695	10,750,494

자료원: 벨기에 통계국

주요 브랜드 별로 보면, 노키아를 선두로 소니-에릭슨, 지멘스, 삼성으로 삼성이 판매량 기준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소니-에릭슨과 지멘스를 물리치고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 휴대폰의 벨기에 시장 점유율은 2002년에 2.4%였는데 2007년에는 25%를 초과하여 성장률이 가장 높은 브랜드가 되고 있다.

벨기에 시장의 휴대폰 및 장비 시장 규모는 연간 \$2.5 billions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휴대폰 장비란 단말기, 배터리, 이어폰, 핸드프리, bags 등을 모두 포함)

## 마. 벨기에 기계산업 현황

### 1) 개관

벨기에 기계산업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화학 산업 또는 철강 산업 등의 대형 플랜트에 필요한 설비를 제조하는 업체 또는 부품을 위주로 생산하는 업체로 구분되며 노동 집약 기계산업보다는 하이텍 기계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 경제 비중

- 고용: 40,854명
- 매출액 85억 유로
- 수출: 생산의 76%

## □ 기업 구조: 중소기업이 주류(84%)

벨기에 기계산업 기업 가운데에는 Caterpillar, Atlas Copco, Case New Holland 등 다국적 기업들이 있지만 84%가 종업원 100명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자 이크와 같이 극히 분열되어 있는데, 이는 동 분야가 광범위한 제품과 서비스에 사용 되는 기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벨기에 기계산업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 기계 종류는 약 2만 종류다. 그러나 중소기업들 가운데 일정 특수 분야에 있어서 우수한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틈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 있다.

## □ 산업 구조 및 주요 업체

기계산업은 기계(Machine) 및 장비(Equipment), 기기(Apparatus) 및 부품 (Compo nets), 하청 및 서비스의 3개 산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이들 산업별 상황은 다음과 같다.

- 기계 장비
  - 기계-기구: LVD
  - 섬유기계: Picanol, Van de Wiele
  - 농기구(농산물 재, 원예 및 사육): Case New Holland Belgium, Packo, Inox, Roxell
  - 중장비: Caterpillar, Komatsu, Euro Daewoo
  - 철도 및 전철 시설: Alstom, Bombardier
  - 특수 공업용 시설: FMC, Bekaert
- 기기 및 부품
  - 역학적, 공기압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Atlas Copco, Ensival,
  - 냉각기기: Daikin, ABB, Baltimore
  - 소방기술(Fire Technologies): Ansul, Sicli, Siemens, Cerberus, Somati,
  -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Schindler, Kone, Otis, Thyssen
  - 트랜스미션: Spicer, New Holland Tractor, Hanssen Transmission, Twin disc, Watteeuw
  - 특수 기기 및 부품: ABC, CMI, Femont
- 하청(OEM) 및 서비스
  - 하청: Asco
  - 기술 감독 및 인증: AIB Vincotte, SGS)
  - 엔지니어링
  - 수리 및 보수: Antwerp Shiprepair

## 2) 현황 및 전망

2006년 벨기에 기계산업 전반의 매출은 8,599백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하고 고용도 2.5% 증가했다. 또한 동 산업 분야의 투자는 399 백만 유로로 2005년 대비 무려 61.5% 증가했다. 2007년에도 기계산업의 매출은 5%의 견실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2006년 매출 및 고용 증감 현황

구분	매출 증감	고용 증감
기계-공구	17.3%	2.9%
섬유기계	5.4%	-4.5%
농기구	17.4%	8.8%
제약, 식품 기기	10%	2%
건설중장비	4.7%	2.5%
특수 기기	3.9%	0.1%
에너지, 환경 장비	4%	-1.9%
주문기기	-0.3%	-0.5%
펌프	4.1%	-5.7%
트랜스미션	16.8%	6.7%
특수기기부품	17.1%	10.2%
철도, 전차용 장비	-26.4%	0.1%
조선	-11.3%	-3.2%
인증서비스	-	-
기계산업전반	7.2%	2.5%

자료원: AGORIA / 주: - 자료 부재

## 3) 서비스의 중요성 확대

종전과 같이 기계 수요 기업들이 기계제조업체로부터 제품만을 구입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Total solution, 보충 서비스 등을 요구하는 경향에 응하기 위해 제조업체들도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의 종류를 다양화할 뿐 아니라 제품과 관련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경향이다. 벨기에 Agoria 협회가 조사한 앙케트에 따르면 기계산업분야기업의 90% 이상이 제품 이외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70%이상은 보수서비스를 포함하고 있고 리징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는 기업도 이미 20%를 초과하고 있다.

- 기계산업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외 서비스 비율
- 엔지니어링 90%
- 보수 및 수리 70%
- 가동 서비스 65%
- up-dating서비스 50%
- 수요기업의 필요 분석 45%
- 기술연수 35%
- 장거리 감독 및 치료 35%
- 리징 서비스 20%

수요업체들이 제품 이외 다양하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향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이에 응하기 위해 제조업체들은 업체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체결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1998년 LVD 그룹과 합병하여 공급 제품뿐 아니라 서비스를 다양화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시장을 확대한 Striprit Inc. 사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는 종전과 같이 제품만 가지고 현지시장에 진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같은 현상은 벨기에 시장뿐 아니라 유럽 전체의 경향이다.

## 4) 기업간 공동 R &amp; D 강화

점점 혁신적, 첨단적 기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벨기에 기계산업협회(AGORIA)의 제안으로 2003년 10월 'Flanders' MECHATRONICS Technology Center를 신설했으며, 2006년 에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동 R & D 센터에 Atlas Copco, Barco, Bekaert, CNH, Daikin, EADS S&DE, Gilbos, Hanssen Transmission, LVD, Miche van de Wiele, Packo Inox, Pattyn,

Picanol, Specer Off-Highway 등 1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동 R & D 센터는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R & D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Intelligent sensors, Intelligent Control, Industrial Communication, Modular digital factory 등 4개 분야에 연구 활동을 집중하고 있다. 동 R & D 센터는 루뱅대학의 'Production engineering, Machine design and Automation division(PMA)와 Agoria 협회 내 R&D 기관(WTCM-CRIF), 플라미쉬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한편, Agoria 측은 기계분야에 있어서 한국 R&D 센터나 기업 내 R&D부서와 상호 유리한 win-win 형태의 R & D 협력을 고려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

(자료원: AGORIA)

###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 가. EU FTA 추진현황

벨기에는 EU회원국으로서 단독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EU집행위가 회원국으로부터 협상권을 위임 받아 제 3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모든 EU 회원국은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내용을 적용한다.

##### 1) EU의 FTA 정책

EU의 기본적 통상정책 방향은 새로운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시장을 개방하고 유럽산 상품 서비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해외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EU의 통상부문 중점 추진 과제는 자유무역 및 시장개방, 해외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DDA협상에서의 균형된 결과 도출, MERCOSUR, GCC(걸프협력회의), ASEAN 등 지역협력체와의 FTA 추진, 지재권, 투자, 정부조달 시장접근개선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FTA 추진과 관련, EU는 MERCOSUR, GCC와 같은 지역협력체와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ASEAN, Andean, 중미국가들과의 FTA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WTO에 가입할 경우 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예정이며 조달시장 개방관련 EU 기업에 조달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EU 시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 2) EU의 FTA의 주요 특징

###### □ 지중해지역과의 경제통합 가속화

EU는 현재 9개 지중해국가(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튀니지,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시리아)와 양자 FTA를 체결한 상태이며 2010년까지 지중해 지역국가들과 양자 FTA를 지역간 FTA(Euro-Med Agreement)로 확대하여 서비스 및 투자부문까지 자유화를 추진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EU 집행위는 2006년 이라크와 무역협력협정(TCA)을 위한 회담 개시를 2005년 말 제안한 바 있다.

###### □ MERCOSUR와의 협력 강화

2000년 4월 지역간 협력을 위한 첫 회담 개최 이래 지금까지 16차례 회담을 가졌으며 이후 잠시 교착상태를 보였다가 2005년 9월2일 장관급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MERCOSUR와의

정치적 경제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이래 기술적인 차원에서 토론이 계속되고 있다. MERCOSUR에 있어 EU는 세계 최대의 무역지대로 무역비중이 22.9%에 이른다.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인구 7억 명의 세계최대의 공동시장이 탄생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은 기술적 협의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인 협상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 □ 한-EU 기본협력협정, 신 가입국에 확대 적용 의정서 체결

한-EU 기본협력협정의 신규 10개국에 대한 확대 적용 의정서가 2005년 11월 16일 브뤼셀에서 체결되었다. 한-EU 기본 협력 협정은 1996년 10월 28일 우리나라와 EU간 체결된 것으로 2001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2004년 5월 1일 EU 회원국으로 중동구 등 신규 10개국이 확대 되면서 동 기본 협력 협정의 확대 적용을 위해 동 의정서가 체결되게 된 것이다. 한편, 2007년 5월부터 한국과 EU는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 EU의 FTA 추진현황

	기체결	협상 중	검토 중
국가	EU, EFTA, 유로-지중해 협정, 멕시코, 터키, 칠레, 남아공	MERCOSUR, GCC, 한국	ASEAN, 러시아, 인도, 우크라이나, 중남미 6국, 안데안 4국

### III. 무역

#### 1. 수출입동향

##### 가. 수출

- 한-벨기에 교역 규모는 2005년 2,784백만 불에 이어 2006년에 3,126백만 불로 12.3% 증가했고 이 중 수출이 2,186백만 불(2005년 대비 20.3% 증가), 수입이 939백만 불(2005년 대비 2.8% 감소)로 1,247백만 불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 한국의 대 벨기에 수출은 2001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이며 주종 수출 품목은 선박, 자동차, 건설 중장비 기기, 자동차 부품, 철강, 화학 제품으로 총 수출의 60%를 차지한다. 한편, 금년 10월까지 수출 현황을 보면 총 2,081 백만 불로 작년 동기 대비 14.6% 증가했다.
- 벨기에는 한국의 32위 수출국이다(200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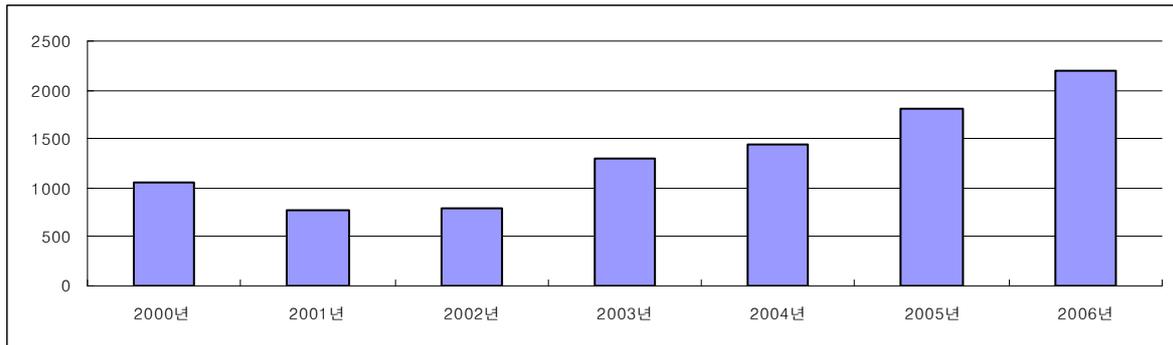
#### 대 벨기에 연도별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불)

연도	금액	증감률(전년대비%)
2000	1,049	24.2
2001	765	-27.0
2002	800	4.5
2003	1,295	61.9
2004	1,436	10.9
2005	1,817	26.5
2006	2,186	20.3

자료원: KITA

### 대 벨기에 수출 추이



#### 나. 수입

- 한국의 대 벨기에 수입은 수출보다 굴곡이 있는 편으로 2001년-2005년까지 상향 곡선을 그리다가 2006년에 2.8% 감소했다. 주종 수입 품목은 정밀화학원료, 의약품, 돼지고기 등 육류, 펌프, 석유화학합성원료, 합성수지, 용접기, 중후판, 합성고무, 기타 화학 공업제품으로 총 수입의 약 60%를 차지한다. 벨기에는 한국의 33위 수입국이다 (2006년 기준).
- 한국 수출은 벨기에 총 수출의 0.3%를 차지하고 수입의 0.6% 차지하여 벨기에의 32위 교역국이다.
- 한편, 금년 10월까지 수입 현황을 보면 총 984 백만 불로 작년 동기 대비 29.1%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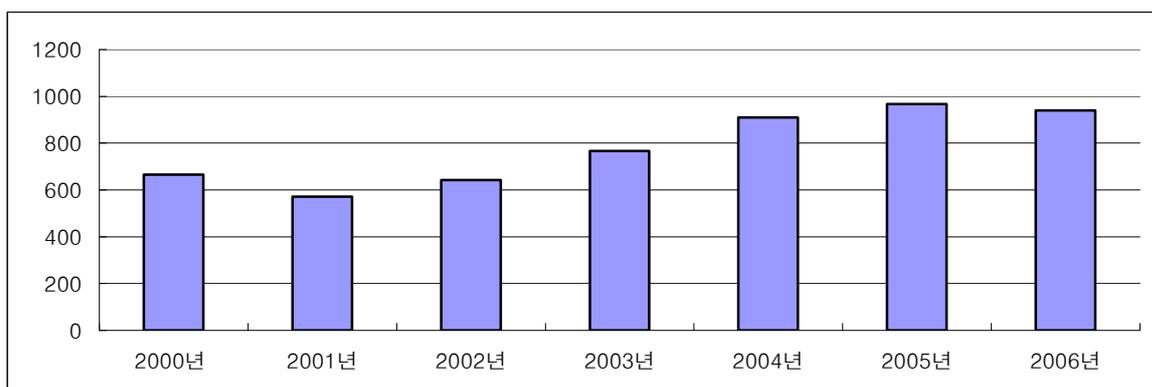
### 대 벨기에 연도별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불)

연도	금액	증감률(전년대비%)
2000	666	33.7
2001	571	-14.3
2002	642	12.4
2003	767	19.4
2004	910	18.7
2005	967	6.2
2006	939	-2.8

자료원: KITA

### 대 벨기에 수입 추이



##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한국이 벨기에에 수출하고 있는 주종 수출 품목은 승용차, 건설 중장비, 자동차부품 및 화학제품과 철강제품이다. 건설 중장비와 자동차 부품 및 철강 제품은 순수하게 벨기에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수출이라기 보다는 물론 일부 벨기에 수요를 공급하지만 특히 유럽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두산 인프라코아와 현대 모비스, 대경은 벨기에에 유럽 시장을 공급하기 위한 유통 센터를 벨기에에 두고 있다.

그 외 VCR, 핸드폰, 라디오카세트, 냉동 냉장고, 마이크로웨이브오븐, 진공청소기, 세탁기 등 소비재 전자제품이 벨기에 시장에 많이 진출하고 있으나 네덜란드를 통해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벨기에 수출로 집계되고 있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 한국의 대 벨기에 주요 수출 상품

(단위: 천불, kg, 누계)

순위	품목코드 (MTI4단위)	품목명	2006		2007.1-10	
			금액	중량	금액	중량
		총수출	2,186,494	713,471,580	2,081,144	787,924,006
1	7251	건설중장비	336,517	75,286,354	383,028	77,683,587
2	7411	승용차	400,305	42,735,724	314,326	30,004,036
3	7420	자동차부품	192,053	14,586,312	217,923	13,943,218
4	6134	아연도강판	90,355	115,142,328	142,184	162,888,541
5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60,399	33,798,035	120,211	54,826,134
6	2140	합성수지	80,605	51,444,392	99,111	62,914,989
7	6133	내연강판	83,395	102,158,338	72,463,731	84,339,254
8	6137	도금강판	32,651	50,721,520	52,672,903	64,838,946
9	6122	봉강	5,284	5,581,178	48,968	45,523,118
10	7111	원동기	19,109	2,676,068	34,807	3,974,032

자료원: KOTIS

### 한국의 대 벨기에 주요 수입 상품

(단위: 천불, kg, 누계)

순위	품목코드 (MTI4단위)	품목명	2006		2007.1-10	
			금액	중량	금액	중량
		총수입	939,312	201,920,449	984,038	170,525,243
1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134,908	14,275,009	176,462	12,716,877
2	2262	의약품	72,608	616,543	68,729	742,764
3	7112	펌프	34,637	1,997,590	57,108	2,457,416
4	0221	가축육류	63,300	20,381,505	50,820	15,079,588
5	6131	중후판	38,574	15,963,289	49,784	14,315,053
6	2130	석유화학합성원료	60,875	30,182,000	45,910	20,427,500
7	2140	합성수지	42,759	17,269,563	36,614	14,258,740
8	6132	열연강판	15,183	6,026,046	25,837	5,996,031
9	0243	낙농품	22,636	9,641,451	21,220	8,737,715
10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26,170	8,745,372	21,031	8,973,282

자료원: KOTIS

### 3. 수입규제제도

#### 가. 수입 규제 제도

독일은 EU회원국으로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적으로 제 3국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따라서 수입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 1) 반덤핑

수출국의 기업이 덤핑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EU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규제조치이다.

EU집행위는 EU기업으로부터 한 일정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어 EU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받으면 반덤핑 규정(384/96/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다.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덤핑 존재: 해당 수출국(제 3 역 외국) 기업의 EU 수출가가 자국 내수 가격보다 낮을 때 덤핑으로 간주한다.
- EU 산업에 피해 존재: 덤핑 수입으로 EU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 EU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EU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의 전반적 이익: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반덤핑 조치가 EU의 전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EU집행위는 석탄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또는 확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나 석탄과 철강제품 이외 상품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해 확정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된다.
- EU집행위는 덤핑제소 접수일로부터 45일 내에 사전조사, 공식 조사를 개시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업체(들)의 생산이 EU 총 생산의 25% 미만일 경우에 공식 조사가 거절된다.

##### 2) 반 보조금(Anti-subsidy) 및 상계관세

보조금에 대한 국제적 규율은 보조금과 상계 조치에 대한 WTO의 협정에 의해 상당히 강화되었다. EU는 WTO의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에 통합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받고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반 보조금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EU 규정은 EU 역 외국 정부의 수출보조금을 받고 EU에 수출되는 상품에만 적용되고 해당 제품에 상계 관세가 부과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 수출보조금 또는 한 일정 산업, 일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

- EU산업에 물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초래: 수출보조금을 받고 싼 가격으로 들어온 수입 제품으로 인해 EU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연합의 전반적 이익: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 반덤핑 액션과 마찬가지로 집행위가 조사하고 잠정 조치를 취하나 최종 조치는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제소와 조사 절차는 반덤핑 액션과 유사하다.

### 3) 세이프가드

EU 수입제도는 자유 수입을 일반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세이프 가드 조치를 취하는데 예외적 경우란 급작스러운 대폭의 수입 증가의 경우로 EU역내 산업과 기업, EU 공익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때를 의미한다. EU집행위는 회원국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하고 case-by-case 형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처럼 기업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을 요청할 수 없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의 세이프 가드조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세이프 가드 조치로는 수입쿼터로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조치가 있는데 감시(surveillance) 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입 제한 조치가 아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수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 라이선스가 요구된다. 현재 중국산 신발, 주방용품, 세라믹제품에 수입쿼터 조치가 적용되고 감시제도는 일부 국가의 철강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 나. 수입 쿼터 제도

EU는 원칙적으로 수입 쿼터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WTO 협정 내에서 2004년까지 일부 섬유제품에 대해 쿼터 제도가 적용되었으나 2005년 1.1일부터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되었다. 그러나 섬유쿼터제도 폐지 이후 중국산 섬유제품과 신발이 대량 수입되어 EU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업계 및 EU 회원국 정부의 압력으로 EU당국은 중국산 일부 섬유 제품과 신발류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 조치(세이프 가드)를 취하여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물량을 제한하고 있는 한편 신발류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다.

#### □ 관세제도

독일은 EU회원국으로서 EU 관세제도를 따른다. 벨기에는 EU 공동 관세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8년부터 여타 EU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가입국 뿐 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쌍무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또한 EU연합의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민감성에 따라 제품의 관세율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EU산업을 완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하나 EU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자재 또는 반제품 등에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를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면제한다.

- 관세율: 관세는 EU가 정하여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 (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 (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 (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을 설정 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증가세를 부과하는 선택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속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고 수입부과금 (Import Levy)을 부여한다.

- EU 관세율은 EU 집행위 관세(CUSTOM) 사이트(TARIC)에서 참조할 수 있음
- 해당 인터넷 사이트 주소: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en/tarhom.htm](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en/tarhom.htm)

#### EU 대한수입규제 내역

품목	CN 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PET 칩	3907.6020 Ex 3907.6080	반덤핑	'05.12.1	'07.2.27 L59 p.1	부분중간재심 결과 관세 148.3Euro/t SK케미컬 그룹, KP케미컬 그룹은 무혐의
철강제 관연결구류	Ex 7307.9311/ 9319/9930/9990	반덤핑	'01.6.1	'02.8.24 L228 p.1 '03.5.8 L114 p.1	관세율 : 44% 2007.8월 재심 개시
폴리에스테르 단성유(PSF)	5503.20	반덤핑	'99.10.7	'00.12.28 L332 p.17 '05.3.17 L71 p.1 '07.4.11 L96 p.1	중간재심 결과 휴비스 5.7%, 새한 10.6%, 동우, 이스트영, 에스탈, 금풍, 건백, 삼흥 6%, 기타 10.6% 2010.3월 종료예정
양문형 냉장고	8418.1091	반덤핑	'05.6.2	'06.8.31 L236 p.11	삼성 0%, 대우 3.4%, LG 12.2%, 기타 12.2%
D-RAM	8542.2111/2113/2 117/2101/2105, 8548.9010	상계관세	'02.7.25	'03.8.22 L212 p.1 '06.4.12 L103 p.1	관세율 : 34.8%(하이닉스) '06.4.12일 32.9%로 하향조정
중국산 실리콘메탈 우회덤핑수출	2804.6900	우회덤핑	'06.3.6	'04.3.4 L66 p.15 '07.1.19 L13 p.1	관세율 : 49%

## □ 교역관련 주요법규

독일은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 EU의 통상법규를 따른다. EU통상정책의 실제 수단은 공동관세, 산업피해구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더불어 제 3국의 무역장벽 및 시장 접근 정도에 관한 조사, 분석을 기초로 대외통상교섭과 협정체결 등인데 다자 또는 양자간 협의를 통해 통상 조치의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일방적인 조치를 통해 이행하기도 한다.

### 1)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칙은 기타 통상조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원산지 표기 요건 및 여타 차별적인 수량 제한 또는 관세쿼터 등과 같은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된다.

- EU 원산지 규정의 기초법
  - 1992년 10월 12일 자 이사회 규정 2913/92

### 2) EU 공동관세

매년 EU 집행위는 EU 공동 관세율을 관보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EU 관세율은 EU 집행위 관세부서 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

- 관련 사이트(TARIC)
  - [http://ec.europa.eu/comm/taxation\\_customs/dds/en/tarhome.htm](http://ec.europa.eu/comm/taxation_customs/dds/en/tarhome.htm)

### 3) 수출입 관련 규정

EU 수입규정(Regulation 3285/94)은 EU로 수입되는 물품에 공동 적용되는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수량제한을 금지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제한적인 시장 접근을 보장한다. 단, 수입상품이 EU산업에 심각한 손실을 끼치는 것을 예방 또는 치유하는 조치로 절차 규정에 의거,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을 취한다.

수출도 마찬가지로 수출규정(Regulation 2063/69)에 의거, 개인과 기업은 특별한 제한 없이 석유와 가스를 제외한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을 수량제한 없이 제 3국에 수출할 수 있다. 단, 수출로 인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이 결여될 위험성이 있거나 회원국의 공익상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상황에서 집행위는 회원국의 요청이나 독자적인 결정으로 수출 허가제도를 취할 수 있다.

### 4) 통상장벽 규정

통상장벽 해소를 위해 별도의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주로 WTO제소 또는 WTO 협정에 따른 보복조치(양허 철회, 중지, 관세인상, 수량규제 도입 등)를 취한다.

자료원: EU집행위

## 4. 대한수입규제 동향

2007년 12월 10일 기준 EU로부터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제품은 5개 품목이며, 그외 상계 관세 규제 품목은 1건으로 총 6건이 수입 규제 조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철강제 관련결구류는 반덤핑 재심 조사 중이다.

### 가. 반덤핑 규제품목

- 폴리에스터 합성단섬유
  - 반덤핑 관세율: 휴비스 5.7%, 새한 10.6%, 동우, 이스트영, 에스탈, 금풍, 건백, 삼흥 6%. 기타 10.6%(2010.3월 종료 예정)
- PET칩(점착성 173mg/10이상의 PET)
  - 반덤핑 관세율: 호남석유화학 101.4 유로/t, 동국무역 및 기타 148.3 유로/t (대한 화섬, KP케미컬, SK케미컬 무형의)
- 양문형 냉장고
  - 반덤핑 관세율: 삼성 0%, 대우 3.4%, LG 12.2%, 기타 12.2%
- 철강제 관 연결구류
  - 반덤핑 관세율: 44%(2007.8월 재심 개시)
- 실리콘 메탈(중국산의 우회 수출에 적용되는 조치로 우회덤핑이 아닌 경우 적정 서류를 EU측에 제출키로함 포함)
  - 반덤핑 관세율: 49%

### 나. 상계관세 규제

- D-RAM: 2006년 4.13일부터 상계 관세율이 34.8%에서 32.9% 하향 조정(삼성전자는 상계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

(자료원: European Commission, 2007년 12월)

## 5. 관세제도

### 가. 개황

벨기에는 EU회원국으로서 EU 관세제도를 따른다. 벨기에는 EU 공동 관세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8년부터 여타 EU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가입국 뿐 만 아니라 비 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쌍무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또한 EU연합의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민감성에 따라 제품의 관세율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EU산업이 완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하나 EU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자재 또는 반제품 등에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를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면제한다.

- 관세율: 관세는 EU가 정하여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 EU 관세율 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6단위까지는 HS code와 동일)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부담 금등 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 (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 (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페트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을 설정 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고 수입부과금 (Import Levy)을 부여한다.

EU 관세율은 EU집행위관세(CUSTOM)사이트(TARIC)에서 참조할 수 있다([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en/tarhom.htm](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en/tarhom.htm))

## 나. 통관 시 적용되는 규정

### 1) 상품분류 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 시, 통관서류에 상품분류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분류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벨기에에서는 모든 EU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상품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한 상품분류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 2)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벨기에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 3) 관세부과가액

상품의 실질 거래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송장금액과는 별도로 관세부과 가액 산정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한 것 들이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을 회원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 벨기에 경우에는 21%가 적용됨)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 6. 주요인증제도

### 가. CE마킹 제도

27개 EU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국가에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 한다.

#### CE 마킹 대상품목 및 규정 지침

품목	규정 지침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90/396/EEC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tion to Carry Persons)	2000/9/EC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73/23/EEC
건설자재(Construction Products)	89/106/EEC
폭발용 기기 및 보호제품(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 for used in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94/9/EC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93/15/EEC
온수보일러(Hot Water Boiler)	92/42/EEC
가전 냉장냉동고(Household Refrigerators & Freezers)	96/57/EC(에너지효율지침)
승강기(Lift)	95/16/EC
기계(Machinery)	98/37/EC
선박(Marine Equipment)	96/98/EC
의료기기(Medical Devices)	93/42/EEC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90/385/EEC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90/384/EEC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9/5/EC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89/686/EEC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87/404/EEC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97/23/EC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94/25/EC
장난감(Toys)	88/378/EEC
Trans-European Conventional Rail System	96/48/EC, 2001/16/EC

-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
  -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 해야함.
-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 85/374/eec(1999/34/EEC 수정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일반제품 안전
  -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 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환경규격
  - 2000/14/EC 지침에 의거,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발생기준을 준수함.

## 나.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는 라벨로 현재까지 24개 품목 군에 대하여 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4개 품목군에 대하여 기준 제정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32개 품목 군에 대하여 EU 집행위와 관련 업계 단체들이 에코라벨 기준 제정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 기준 기 제정 품목
  - 세제: 일반 청소세제, 식기세척기 세제, 설거지세제, 세탁용 세제
  - 기기: 식기세척기, 전구, 휴대용 컴퓨터, PC, TV, 냉동고, 진공청소기, 세탁기
  - 종이제품: 복사용지, 화장지
  - 가정, 정원 용품: 침대메트레스, hard floor coverings, 실내용 페인트 및 안료, 토양 개선제, 가정용 섬유제품
  - 의류: 신발, 섬유제품
  - 관광: 캠프장 및 서비스, 관광객 편의 시설 서비스
  - 윤활유: 윤활유
- 기준 제정 추진 품목: heat pump, 비누와 샴푸, 프린트용지, 가구
- 제정 가능성 검토 품목: 문구류, 벽지, 쓰레기봉투, 쇼핑백, 필기도구, 전화, 복사기, 소형 가정용 전기기기, 패션 액세서리, 장갑, 가죽제품, 스포츠 장비, 완구 및 게임, 포장지, DIY 제품, 에어컨디셔너, 난방기기, 물 끓이는 시스템, 절연기, 건축부분품, 건축서비스, 소매서비스, 건조기, 금융서비스, 배달서비스, 자동차수리서비스, 자동차, 부속용품, 위생용품 등

## 다. 에너지라벨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라벨 대상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세척기, 램프, 전기 오븐, 에어컨 등이다.

- GEEA(Group for Energy Efficient Appliances)
  -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국들이 운영하는 에너지 절약제품 보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포럼이며 GEEA 규격에 적합하는 제품은 GEEA의 에너지라벨을 사용할 수 있음.
  - 대상품목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19품목)
  - 정회원:
    - [Switzerland: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SFOE\)](#)
    - [Denmark: The Danish Energy Authority \(DEA\)](#)
    - Netherlands: The Netherlands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SenterNOVEM) [Germany: The German Energy Agency \(dena\)](#) / [Gemeinschaft Energielabel Deutschland \(GED\)](#)
  - 준회원:
    - [Sweden: The Swedish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STEM\)](#)
    - [Austria: The Austrian Energy Agency \(E.V.A.\)](#)
    - [France: The French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Ademe\)](#)

##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



**Energie**  
Hersteller  
Modell  
Niedriger Energieverbrauch  
A B C D E F G  
Hoher Energieverbrauch  
Energieverbrauch kWh/Waschprogramm  
Waschwirkung  
Schleudwirkung  
Füllmenge (Baumwolle) kg  
Wasserverbrauch  
Geräusch

■ 개요  
에너지 소비효율에 따라 A~G까지 Energy 효율 등급 라벨 표시 및 최저 효율 기준, 적용 에너지 효율 등급, 연간 에너지 소비량 등 표시

■ 대상품목  
○ 라벨 표시: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10품목)  
○ 최저효율: 냉장고, 냉동고, 냉동냉장고, 보일러, 안정기 등(5품목)

■ 시행기관 EU위원회(EU Commission)

■ 근거법령  
에너지라벨링 지침(Council directive/92/75/EEC, 1992)

## ▶GEEA



■ 개요  
스위스, 독일 등 유럽 9개국이 운영하는 대기전력 감소를 위한 에너지 절약 제품 보급 프로그램이며 Energy라벨 사용

■ 대상품목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충전기 등(19품목)

## ▶Energy 2000



■ 개요  
대기전력 절감형 제품을 보급하는 유럽의 대표적 프로그램 GEEA와 동일 기준 적용하며 같은 Energy라벨 사용

■ 대상 품목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등 (15품목)  
- 시행 기관: 스위스 에너지부

(SFOE: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 7. 지적재산권

벨기에의 지적재산권은 EU의 지적재산권 규정 테두리 안에서 실행되고 있다.

### 가. 상표권

벨기에의 상표제도는 벨기에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포함한 베네룩스 3국에서 베네룩스 상표법(2.3.19일 법)에 의거하여 공동으로 적용되고 있다.

상표법은 개인 상표와 단체 상표를 구분하고 있는데 개인상표(INDIVIDUAL MARKS)란 호칭, 도형, 인영(印影), 인인(認印), 문자, 숫자, 제품의 모양 또는 포장과 한 생산업체의 생산 제품(들)을 여타제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포장을 개인상표로 간주한다. 단, 상품성격상, 가치상 꼭 필요한 모양은 상표로 간주하지 않는다.

파리조약(Paris Convention)에 의거 보호되고 있는 산업재산권이나 마드리드협정(Madrid Agreement)에 의거, 국제특허청(International Bureau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에 등록된 제조 및 상업상표와 베네룩스 3국 영토 내에 등록된 상표만이 베네룩스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표권획득 소요기간은 약 7개월이며 베네룩스 상표권 등록 유효 기간은 등록 일부터 10년간 유효하다. 베네룩스 상표 등록은 3국의 각 해당 국가기관이나 또는 베네룩스 특허청(Benelux Office)에서 수행되고 있다.

### 1) 등록기관명과 주소

#### Office Benelux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 Bordewijklaan 15
- NL-2591 XR LA HAYE, (NETHERLANDS)
- Tel : (31)-(0)70/349 11 11
- Fax : (31)-(0)70/347 57 08
- 인터넷주소 : [www.boip.int](http://www.boip.int)
- 이메일 : [info@boip.int](mailto:info@boip.int)

#### L'OFFICE DE LA PROPRIETE INDUSTRIELLE (OPRI)

- NORTH GATE III
- Boulevard du Roi ALBERT II, no.16
- B-1000 Bruxelles, BELGIQUE (BELGIUM)
- Tel : (32)-(0)2/277 76 95
- Fax : (32)-(0)2/277 52 62
- 인터넷주소 : [www.mineco.fgov.be/opri-die.htm](http://www.mineco.fgov.be/opri-die.htm)

### 2) 등록구비서류

선 등록주 조사 신청서, 또는 3개월 전에 Benelux Office에 선 등록주 조사를 신청했거나 조사완료료를 입증하는 Benelux Office의 증명서

### 3) 선 등록주 채택 시 구비서류

파리조약(Paris Convention)에 규정되어 있는 선 등록권을 동시에 요청할 경우, 선 등록주 등록국과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자명을 기재해야 하며, 기존 등록주 등록자와 베네룩스의 선 등록주 신청자가 동일 인이 아닐 경우, 후자는 선 등록주 신청 권리를 소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출원인이 선 등록주권을 주장하려면 권리 소유를 입증하는 사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권은 피해당사자의 소송으로 검찰이 상표권 무효화를 재판소에 청원할 경우, 브뤼셀, 룩셈부르크, 헤이그(화란)소재 재판소만이 동 문제를 취급할 권한이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의해 상표권이 소멸될 수 있다.

상표권은 관련상표 업체의 이전과는 상관없이 관련상표 출원 시 등록된 지정 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또한 사용 라이선스권(licence)을 행사할수도 있다.

- 선 등록권: 기술 평가를 받기 전에 임시로 기술 내용을 인정하는 일종의 임시 등록 제도로 1년 동안 출원인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임. 기술 발달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한편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흔히 초기 도안 단계에서부터 지적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기업으로서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모든 기술적 서류를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준비 기간 동안에 기업의 지적 재산권이 임시 보호되도록 하는 제도임.

#### 나. 의장권

의장권도 베네룩스 공동으로 적용되고 있다. 베네룩스 의장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의장(도안 또는 모형)은 실용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품의 새로운 모습으로 간주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실용성이 없는 순수한 장식품의 도안이나 모형은 제외된다. 의장권도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조건으로 보호되고 있다.

#### 다. 특허권

1984.3.28일자 법령에 의거, 모든 창의적 활동을 내포하고 공업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새로 이 발명된 기술을 독점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이라 하는데 동 특허법은 1987.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과학적 이론, 수학적 방법, 예술적 창조, 도표, 지적 활동이나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원칙론이나 방법론, 놀이(games), 소프트웨어, 정보제시 방법은 특허권에서 제외된다. 한편, 유럽 특허권 획득에 드는 비용은 특허세, 번역, 대리인 비용 등을 포함하여 총 약 25,000불의 비용이 든다.

#### 라. 저작권

1886년에 입법 된 저작권 관련법은 사상의 문학적, 예술적 표현에 대해서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한 것으로 문학, 예술작품 자체에서 발생하는 권리보호를 위해서 특별한 등록 절차가 불필요하나 SABAM으로서의 부가적인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하다. 저작권은 작가가 보유하는 재산권과 윤리권(ethical right)을 의미한다.

재산권은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배타적으로 화폐적인 이득을 얻을 권리를 말하는데 이런 권리는 작가의 생존기간 동안, 작가 사후 50년간 상속인이 동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윤리권은 문학이나 예술적인 작품의 비 재정적인 이익을 모두 포함되고 생존기간 동안 양도할 수 없으며 영속적으로 작가와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

한편 벨기에는 지적소유권에 있어서도 EU의 지적재산권 규정을 따르고 있어 문화방면에 있어서 음반 50년, 서적, 영화 등은 70년간 저작권을 보호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유선 T.V 신청 시 시청료에 저작권 사용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음반, 공 카세트 테이프, 공 CD 판매 가격에도 저작권 사용비가 포함된다. 또한 복사기 등 복제용품에 대해 8%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92.5.21일 통과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 8. 통관/운송

### 가. 통관

수입 물품의 통관 절차란 수입 신고를 받은 세관 당국은 신고 사항을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이 부합한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된 제반법 규정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여 외국물품을 내국 물품화 하는 절차다. 벨기에 수입 절차를 완료하여 수입된 외국물품(EU 역 외국 물품을 의미)은 벨기에에서 출시 및 소비될 수 있는 동시에 여타 EU 시장으로 자유이동 될 수 있다.

수입신고는 수입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청에 등록된 관세사, 통관법인, 관세사법인의 명의로만 가능하다. 신고된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벨기에 당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통관절차 흐름도

출항→입항→하선(보세운송 또는 타소 장치) →물품 보세 구역 반입→장치 확인→ 수입 신고→심사→물품검사→수입 신고 관리→관세 등 제세납부

#### 2) 구비서류

출시 및 소비(통관을 의미) 신고 때 수입상은 벨기에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유일한 신고서(신고서 양식 6,7,8과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B)를 사용해야 한다. 수입신고서에는 반드시 상품의 해당 관세 분류 번호(TARIC CODE: EU 관세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 EU의 관세분류번호는 EU집행위 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음
  - [http://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dds/en/ebticau...htm](http://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dds/en/ebticau...htm)
- 벨기에 관세청 연락처
  - North Galaxy
  - Administration centrale des douanes et accises
  - Service Nomenclature(Tarif), Agriculture et Valeur
  - Cellule RTC
  - Tour A, 8th post box 37
  - Avenue du Roi Albert II, 33
  - 1030 Brussels

수입신고서와 더불어 송장(invoice), 가격신고서(발송 당 물품 가치가 10,000 유로 이상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B/L(선화증권)부분 또는 AWB(항공화물운송장)부분, 수입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 라이선스, 산 동물이나 고기 또는 육류 식품 등의 경우에는 검역증명서, 식물과 과일의 경우에는 식물병리학 증명서, 핵 제품과 폭발물의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또는 운송 허가증, 보호대상의 야생동물이나 식물의 경우에는 수입허가나 CITES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3) 물품검사

세관에서는 화물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물품 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 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하며 세관 이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플랜트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 수요 물자,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검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관세, 특별세(excise), 부가가치세(21%)는 통관 절차 때 지불한다. 대부분의 수입상들은 통관절차를 운송업체 내의 통관담당부서나 전문 통관 업체에게 위임하고 있다.

### 4) 통관 시 적용되는 규정

#### □ 상품분류 번호

- 모든 상품의 수출입 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벨기에에서는 모든 EU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상품분류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한 상품분류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 □ 원산지 규정

-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벨기에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 □ 관세부과가액

- 상품의 실질 거래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송장금액과는 별도로 관세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한 것 들이다.
-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벨기에 경우21%)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 의 경우에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 5) 통관서비스 업체

- Van Aert Douaneagentschap BVBA
  - 주소 : Amsterdamstraat 54 2321 Hoogstraten
  - 전화 : 32-3-317 05 00 / 팩스 : 32-3-317 05 25
  - 이메일 : info@vanaert.be
  - 인터넷 : <http://www.vanaert.be>
- Balie 21 NV
  - 주소 : Noorderlaan 157 2030 Antwerpen
  - 전화 : 32-3-546 40 50 / 팩스 : 32-3-546 40 59
  - 이메일 : [info@balie21.be](mailto:info@balie21.be)
- Belgisch Malische Handelsm n.v.
  - 주소 : Besschavingstraat 13 2020 Antwerpen
  - 전화 : 32-2-520 14 84 / 팩스 : 32-3-237 93 13
  - 이메일 : alain.magiels@bmh.be
- Grimaldi Belgium
  - 주소 : Haifastraat 11 2030 Antwerpen
  - 전화 : 32-3-545 94 30 / 팩스 : 32-3-541 42 75
  - 이메일 : grimaldi@grimaldi.be
  - 인터넷 : <http://www.grimaldi.be>
- Levoco NV
  - 주소 : Sint-Dietersvliet 7 2000 Antwerpen
  - 전화 : 32-3-205 29 40 / 팩스 : 32-3-225 00 06
  - 이메일 : [mail@levaco.be](mailto:mail@levaco.be)
- Patner Logistics
  - 주소 : Gare Autoroutière 7110 La Louvière
  - 전화 : 32-64-23 69 69 / 팩스 : 32-64-22 90 65
  - 이메일 : info@partner-logistic.com
  - 인터넷 : <http://www.partner-logistic.com>

## 나. 운송

벨기에에는 안트워프(Antwerpen)와 제브리즈(Zeebrugge)의 국제항구가 있다. 2006년 안트워프 항구의 화물 적하량은 167.4 백만 톤으로 2005년(160백만 톤)대비 4.6%가 증가한데 이어 2007년에도(1-9월)에도 계속 8.4%(전년동기대비)의 큰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2006 년도 기준 화물 적하량 가운데 입항 물량은 거의 92백만 톤(5.6% 증기), 출항 물량은 75백 만톤(3.3%증가)이었다. 제브리즈 항구는 특히 5,800대의 자동차를 운반할 수 있는 세계적 시설(car carrier)을 갖추고 있어 2006년에 1,933,910대의 자동차가 환적 (transship)되었다. 또한 제브리즈 항구는 천연가스 터미널이 있다.

- 안트워프 항구 규모
  - 컨테이너 물량 : 7백만 TEU
  - Conventional/Breakbulk : 18.3 백만 톤
  - Ro/ro : 3.9백만 톤(자동차 수입 317,261대, 수출 571,747대)
  - Bulk cargo : 64.3 백만 톤
  
- 제브리즈항구 규모 :
  - 컨테이너 물량 : 1.7백만 TEU
  - Conventional/Breakbulk : 2 백만 톤
  - Ro/ro : 1 백만 톤
  - Bulk cargo : 64.3 백만 톤

## 1) 운송비용

40 피트 컨테이너 물량의 door to door 이삿짐 운송의 경우 벨기에에서 한국까지 약 5,000 유로가 든다(총 운송비 중에서 인건비가 크게 드는 포장기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운송비가 비싼 편이다).

상품 운송의 경우 운송 물량과 운송 거리에 따라 운송비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20피트 컨테이너 물량 운송의 경우 벨기에와 한국까지 해운 운송비는 약 1,000 유로 정도 든다.

## 2) 주요 운송회사(해운)

- Hyundai Merchant Marine Belgium
  - 주소 : Keyserlei 5 2018 Antwerpen
  - 전화 : 32-3-206 30 00 / 팩스 : 32-3-227 30 87
  - 이메일 : anpva@hmm21.com
  - 인터넷 : <http://www.hmm21.com>
  
- Grimaldi Belgium
  - 주소 : Haifastraat 11 2030 Antwerpen
  - 전화 : 32-3-545 94 30 / 팩스 : 32-3-541 42 75
  - 이메일 : grimaldi@grimaldi.be
  - 인터넷 : <http://www.grimaldi.be>
  
- Hapag-Lloyd Belgium
  - 주소 : Kattenaijkdok Westkaai 21 2000 Antwerpen
  - 전화 : 32-3-545 06 11 / 팩스 : 32-3-541 28 50
  - 이메일 : mailanr@hlel.com
  - 인터넷 : <http://www.hapag-lloyd.com>
  
- Antwerp Freight Agencies(Broekman Logistics)
  - 주소 : Noorderlaan 133 2030 Antwerpen
  - 전화 : 32-3-201 96 15 / 팩스 : 32-3-227 16 64
  - 이메일 : info@broekman-group.be
  - 인터넷 : <http://www.broekman-group.be>

- Burga port Agencies
  - 주소 : Stijfserlui 44 2000 Antwerpen
  - 전화 : 32-3-202 62 60 / 팩스 : 32-3-202 63 60
  - 이메일 : tramp@burger.be
  
- Barwil Benelux
  - 주소 : Bataviastraat 19 2030 Antwerpen
  - 전화 : 32-3-206 95 80 / 팩스 : 32-3-227 34 44
  - 이메일 : barwil.Antwerp@barwil.com
  - 인터넷 : <http://www.barwil.com>
  
- Coli Shipping & Transport
  - 주소 : Keizerstraat 20-22 2000 Antwerpen
  - 전화 : 32-3-205 60 70 / 팩스 : 32-3-233 43 26
  - 이메일 : [info@coli.be](mailto:info@coli.be)
  
- Fortrans-Division of F.P.-Distribution
  - 주소 : Kruisweg 650 Haven 2040 Antwerpen
  - 전화 : 32-3-560 49 11 / 팩스 : 32-3-560 49 17
  - 이메일 : info@frd.be

## IV. 투자

### 1. 투자환경

#### 가. 투자환경

벨기에 기업 중 매출액 규모 순으로 100위 내에 드는 기업의 거의 70%가 외국자본 기업일 정도로 벨기에에는 일찍이 외국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 벨기에 투자의 장점으로는 첫째, 고 수준의 인력자원이 풍부하고 둘째, 특히 제조분야의 생산력이 높으며 셋째, 빈부차가 적고 생활수준이 높은 중산층이 사회주류를 이루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사회라는 점과 넷째, 운송망, 통신망 등 인프라구조가 발달하고 다섯째 물류산업이 발달한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EU는 환경단체의 압력이 점점 가중됨에 따라 환경보호조치를 강화키 위해 끊임없이 기존 법규를 수정하거나 신규 지침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 등 환경조치에 민감한 분야의 기업들은 EU법규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규의 변동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여 적기에 대응키 위해 EU 집행위가 소재하고 있는 벨기에를 투자지로 선정하고 있다.

벨기에에는 2차 대전 이전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한 문호가 완전히 개방되어 왔으며, 외국인 소유 지분의 한도나 송금규제도 없으며 산업분야의 제한도 없다. 또한 세제에 있어 외국인 기업도 국내기업과 하등의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기업의 매출액 순으로 100위 내 기업 중 70%, 3,500위 내 기업 중 30%이상이 외국인기업이라는 것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 벨기에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과 더불어 외국인투자 개방도가 얼마나 높은 가를 시사해 주고 있다.

## 나. 투자진출 시 유의사항

벨기에 국가체제가 1993년 이후 완전히 연방체제로 변형되면서 연방정부는 통화, 세제, 사회보장 제도, 외교 등 국가 주체성과 직접 연계된 분야의 정책을 주도하고 그 외 분야는 지방정부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투자도 지방정부에서 관할되고 있다. 따라서 투자지역에 따라 해당 지방정부당국과 투자 지원을 협상해야 한다. 지방 정부로는 플라미쉬, 왈로니아, 브뤼셀 지방정부의 3개 지방정부가 있다.

따라서, 투자 시 투자지역 관할 지방정부 당국과 투자에 따른 투자 지원 혜택을 협상할 수 있다. 또한 각 지방 정부마다 투자 지원 조치와 특히 환경허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지방 정부 당국을 접촉, 장단점을 심층 분석한 후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지역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이 조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나 공장 이전 시 그 과정이 복잡하고 법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해고 배상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점도 사전에 알아두어야 한다.

## 다. 투자 제한

벨기에에는 외국 투자자에 의한 벨기에 기업의 인수 또는 설립을 제한하거나 또는 통제하는 특별한 법규는 없으나 투표권이 있는 주식을 5%이상 소유할 경우에 이를 경제부와 금융감독 위원회(Banking and Finance Commission)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당해 기업의 자본 또는 경영에 대한 벨기에인의 참여를 요구하는 법규도 없다. 그리고 투자와 관련 외국인 기업과 내국인 기업간 차별대우제도가 없으며 벨기에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영업활동의 투자를 환영하며 투자한도액, 투자비율, 지분소유, 투자분야 등의 제한이 없다. 단, 예외적으로 항공, 내수로 운송과 벨기에에 등록된 선박 해운은 벨기에나 EU기업의 과반수 지분이 요구되고 적어도 25%의 비용을 벨기에 공공당국이 지불하는 공공 사업은 벨기에와 EU기업에 한한다. 그리고 철도와 대중 교통 등 일부 분야는 아직 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공공분야로 민간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벨기에에는 노동법에 의한 고용 및 해직 조건, 노동시간 등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제외하고는 현지인 고용 의무 규정은 없다. 오히려 현지 고용 창출 시 신규채용에 대해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당국(ONSS)에 등록하지 않고 고용하는 것은 불법고용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주는 그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사회보장당국에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신고하지 않고 불법 고용을 하는 경우가 특히 요식과 건축 분야에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 근래 검사가 강화되었다.

## 라. 투자 금지

벨기에에는 보험이나 은행, 리스, 운송, 여행, 의약품, 식품과 같은 일부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투자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그러한 특정 분야에 대한 개별법도 금지가 목적은 아니고 소비자, 건강, 안전 보호를 위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특정 조건은 외국인의 투자 제한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외국인 자본 기업이던 내국 기업이던 동등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내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 금지 조치는 없고 외국인 투자의 금지 분야를 법으로 제한하지도 않고 있다. 다만 사회공익을 해치는 사업이나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천연 자원을 파괴하고 국민건강이나 사회 풍기를 해치는 사업은 우선 공장건설과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여 투자가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내국기업도 마찬가지다.

## 마. 투자허가 개요

외국인은 정부당국의 사전허가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즉, 투자 희망자가 정부당국으로부터 투자보조금 수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은행, 보험, 식품 제조 또는 판매, 유통업과 같이 일정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분야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벨기에에는 연방국가로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 연방정부의 경제부에 외국인 투자부가 있으나 동 부서는 벨기에 전체의 투자 정보 제공 및 각 지방정부의 외국인 투자부와 연결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친다.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산업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외국인 투자 보조금 및 각종 혜택의 부여 결정권은 지방정부에 있다.

## 바. 투자매력도

벨기에 기업 중 매출액 규모 순으로 100위 내에 드는 기업의 약 70%가 외국기업일 정도로 외국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

벨기에 투자의 장점으로서는 첫째, 고 수준의 인력자원이 풍부하고 둘째, 특히 제조분야의 생산력이 높으며 셋째, 빈부차가 적고 생활수준이 높은 중산층이 사회주류를 이루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사회라는 점과 넷째, 운송망, 통신망 등 인프라 구조가 발달하고 다섯째 물류산업이 발달한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EU는 환경단체의 압력이 점점 가중됨에 따라 환경보호조치를 강화키 위해 끊임없이 기존 법규를 수정하거나 신규 지침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 등 환경조치에 민감한 분야의 기업들은 EU법규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규의 변동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여 적기에 대응키 위해 EU 집행위가 소재하고 있는 벨기에를 투자지로 선정하고 있다.

## 2. 외국기업 투자동향

벨기에에는 전통적인 경제 개방국이며, 수입과 국제 교역의 의존도가 큰 국가이다. 2차 대전 이래 외국인 투자가 자본과 기술을 공급하고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벨기에 경제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벨기에 경제의 주요 특징은 외국기업(외국인 지분율 50% 초과할 경우 외국인으로 간주)이 제조업 고용의 32.8%, 서비스 고용의 15.3%를 차지함으로써 외국인 직접 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역할이 크다는 점이다.

벨기에에 있는 상위 3,000 개 대기업 가운데 외국기업이 1/3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 6월 말에 발표된 Ernest & Young European Investment Monitor(EIM)의 따르면 벨기에는 2004년, 2005년에 유럽 국가 가운데 8,9위의 투자 매력도가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Ernest & Young이 672명의 전 세계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조사(2005년)한 앙케트 결과에 따르면 유럽 본사 설립지로 벨기에를 선택한 CEO는 43%였으며 42%는 물류센터와 행정, 회계의 서비스 지사 설립지로 벨기에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벨기에 10위 투자국

(단위: 백만 유로)

국가명	2006(social capital)	2006(기타 자본)
프랑스	22026	10697
네덜란드	16752	15250
룩셈부르크	10531	12013
핀란드	8185	1263
스웨덴	2413	561
독일	1880	22547
미국	1553	3888
영국	1479	15744
스페인	1103	363
캐만섬	1103	48
10위 총 투자	66696	82374
세계 총 투자	68569	89345

자료원: 벨기에 중앙은행

주: 환율 1유로 = 1.2556 불(2006년도 평균환율)

금년에도 미국과 일본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일고 있다. 지난 4월 말(2007.4) Google이 벨기에에 유럽 유통망 관리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2억 유로를 투자한다고 발표 한데 이어 Johnson & Johnson도 유럽시장 판매를 위한 유통 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발표하고 Toyota와 Bridgestone은 각기 벨기에에 있는 R&D 센터와 유통센터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한 한 바 있다.

## 3. 우리기업 투자 동향

## 가. 개황

한국기업의 벨기에 투자는 뚜렷한 증감추세 없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1980년 이후 2007년 9월까지 대 벨기에 누적 투자 규모는 신고 45건 144 백만 불, 실행 43건 144백만 불에 지나지 않는다. 2007년 3/4분기 중 한국의 대 벨기에 투자는 3건으로 금액으로는 211 천불이다.

대표적 투자기업은 Mons 소재 두산 중공업이며 합병 이전 대우 중공업이 12.2 백만 불 (91년)을 투자하여 굴삭기 등 건설 중장비를 생산, 유럽 전역에 판매 중이다. 한진해운은 싱가포르 항만공사(PSA), 일본 케이라인(K-line), 대만 양밍라인(Yang Ming Line)과 합작법인을 설립했으며 투자규모는 1,784 천불이다. 그 외 현지진출 기업으로는 일진(공업용 다이아몬드), 현대상선(화물운송), 현대 모비스 (자동차부품), 기아(자동차), LG전자(전자), 대경(철강), 농협(유통), 범양상선(해운), 아시 아나(항공), 대한항공(항공), 한진해운(항만터미널) 등 이다.

## 나. 우리나라의 대 벨기에 투자

## 우리나라의 대 벨기에 투자

(단위: 천 불, 건수)

2004		2005		2006		2007.1-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	0	3	3,104	2	1,230	3	1,578

자료원: 수출입은행, 신고기준

현재 벨기에에는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운송 법인이 설립되어 있으며, 유럽 2대 물류항인 안트워프 항을 기반으로 범양상선, 한진해운 등 국적선사들이 진출해 있다. 또한, 서유럽 물류중심지로서의 우수한 입지적 장점을 활용하여 현대 모비스가 유럽부품센터를 벨기에에 투자 설립하였으며, LG 전자는 안트워프에 판매법인을 설립하였다. 건설중장비 부문에서 두산 중공업이 '유로대우'를 인수하여 두산 인프라코어 유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대 중공업도 동 부문 판매법인을 가동 중이다.

#### 벨기에 투자 주요 한국 기업 리스트

연번	회사명	투자연도	투자내역	투자금액(천 불)
1	두산 인프라코어 유럽	1990	제조업 (굴삭기, 지게차)	50,920
2	현대중공업	1992	도소매업 (건설중장비)	27,448
3	현대모비스유럽부품센터	1997	운수창고업 (자동차부품)	20,542
4	LG전자	1997	도소매업 (가전제품)	2,291
5	대경(DKC)	2003	도소매업 (철강)	414
6	일진유럽	1994	도소매업 (공업용 다이아몬드)	250

자료원: KOTRA 2005/2006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 4. 주요 투자법 내용

### 가. 개황

벨기에 정부는 국제 교역을 증진시키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런 정책 기조 하에서 벨기에 정부는 일찍이 외국의 투자진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왔고 대부분의 투자지원조치가 지방정부의 관할분야가 되면서부터 각 지방정부는 서로 경쟁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무역정책에 있어서도 상품이나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촉진하고 내외국인간에 정책의 중립성을 지키고 있으며 농업분야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분야에서 국내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없다. 신규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일정한 조건 하에서 법인세 등의 면제조항
- 투자액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주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 명목 법인세율을 39%에서 33%로 인하
- 가상이자 공제제도(notional interest deduction)
- 손상이연제도(Advanced tax agreement)
- 개별지역의 지속적인 투자유인 조치 제공 등이다.

국내기업에 비해 외국기업에 대한 벨기에 기업의 태도는 중립적이나 국내외기업을 막론하고 고용을 증가하며 환경 친화적 신기술을 보유하고 향후 사업전망이 좋은 투자진출업체를 환영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들도 외국기업이라는 점에 대해서 전혀 차별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 노동조합도 고용유지 내지는 증진에 관심을 집중하고 기업의 국적보다는 노동조건 등 대우개선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외국기업이 벨기에 기업을 인수할 경우 벨기에의 노동관행 등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이를 최대한 존중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 투자유치 전담기관

벨기에에는 연방국가로서 연방정부와 3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 업무 분야도 연방정부의 권한과 지방정부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다.

### 1) 연방정부의 권한 및 외국인 투자유치기관

외국인 투자 유치 조치 중 조세 분야(세제 혜택 등)와 입국(비자, 거주, 노동허가 등 포함) 관련 행정은 연방정부에 귀속된다.

- 경제 협력부(ACCORDS ECONOMIQUES, 경제부소속)내 외국인 투자부(service Investissements Etrangers)
  - 주소: Rue du Progres 50, 1210 BRUXELLES
  - 전화: 32-2-277 78 08
  - 팩스: 32-2-277 53 06
- 경제부 소속 경제 협력부(ACCORDS ECONOMIQUES)의 외국인 투자부는 지방정부 외국인 투자부를 연결하는 일종의 Coordination task로서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정보
  - 회사설립관련정보, 투자지원제도 등 전반적인 투자정보 제공
  - 외국인투자관련 입국수속, 노동허가, 체류 증 관련 행정문제 지원
- 재무부소속 투자 세제지원부(Cellule de fiscalité des investissements)
  - 1997년 벨기에 연방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벨기에 조세제도와 세제혜택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물론 실무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제공키 위해 재무부내에 외국인 투자지원부를 설치했다.
  - Cellule de Fiscalité des Investissements
  - 주소: rue de Louvain 38, 1000 Bruxelles
  - 전화: 32-2-233 82 64
  - 팩스: 32-2-233 82 70

### 2) 지방정부의 권한 및 외국인 투자유치 기관

각 지방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을 계획, 수행하고 투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왈로니아지방 정부(불어계)
  - OFFICE FOR FOREIGN INVESTORS (OFI)
  - 주소: Place de la Wallonie 1, 5100 NAMUR
  - 전화: 32-81-33 37 93 / 팩스: 32-81-30 64 00
  - 인터넷 사이트: [www.awex.be](http://www.awex.be)
- 플란더스지방정부 (화란어계)
  - FLANDERS INVESTMENT and Trade(F.I.T.)
  - 주소: Gaucheretstraat 90, 1030 BRUSSELS
  - 전화: 32-2-504 88 71 / 팩스: 32-2-504 88 70
  - 인터넷사이트; [www.flandersinvestmentandtrade.com](http://www.flandersinvestmentandtrade.com)

- 브뤼셀 지방정부
  - DEPARTMENT OF FOREIGN INVESTMENT
  - 주소: RUE CHAMPS MARS 25, 1050 BRUXELLES
  - 전화: 32-2-513 97 00 / 팩스: 32-2-511 52 55
  - 인터넷사이트 : www.inverstinbrussels.com
  
- 외국인투자유치 홍보사업
  - 홍보물 발행 및 배포
  - 투자유치세미나 개최
  - 외국인 투자사절단, 외국인투자자 개별적 지원
  - 투자관련 정보제공, 공업지대물색, 사업파트너물색
  - 투자관련 행정절차 지원 등

#### 다. 투자유치관련법규

1992.6.25일 신 경제 진흥법에 의거 고용인 250명 이하, 매출액 2천만 유로 이하의 중기업과 소기업에게도 지원대상을 확대, 사실상 모든 기업이 지원대상이 되고 있으며 지원 방법도 투자계획의 재원출처방법에 구별 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한편, 고용창출과 환경 및 재사용 등 에너지분야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1992년 이후 국가체제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로 분권화 되면서부터 재정과 연계되는 투자유치 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은 지방정부의 권한에 속한다.

원칙적으로 투자 허가가 요구되지 않으나 지방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는 투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투자액에 따라 각 지방정부 경제부 처장 또는 지방정부 수상에 의해 결정된다. 약 14만불 미만의 투자는 경제부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125만 불 이상의 투자는 지방정부 수상의 허가를 받는다.

#### 라. 투자우대조치

세제혜택을 비롯하여 다양한 우대제도가 전국적으로 주어지고 있으며 특정 개발 지역이나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우대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벨기에 경제부흥에 기여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에도 전국에 걸쳐서 우대혜택을 주고 있으며 여기에는 도.소매업이나 호텔업도 포함된다. 투자자의 국적이나 사업유형과는 관계없이 일반적인 투자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 투자는 직접적으로 신규설비, 확장, 전환, 현대화 등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국가 이익과 부합해야 한다.

#### 마. 투자 인센티브

##### 1) 보조금

대기업, 중소기업, 투자 지역(낙후지역), 투자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즉, 대기업의 경우 투자 대상은 환경분야이며 보조금의 형태는 현금보조 또는 무이자대출로 구분된다.

현금 보조 때 신규 환경규정의 적응을 위한 기존시설 대체투자의 경우 투자비용의 12% 지원, 환경 규정보다 더 강화된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시 투자액의 15% 지원, 환경규정이 없는 분야 에 있어서의 환경개선 투자 시에는 투자액의 15%까지 지원된다.

한편, 무이자 대출 시에는 직업훈련 프로젝트 비용 및 외부 컨설팅 조사의뢰 비용의 50% 지원되며 적용대상은 오염감축 또는 방지를 위한 설비, 오염지역 정화, 환경문제로 인한 공장 이전,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이며 중소기업(종업원 250명 미만, 대기업지분참여율 25% 이하, 총 매출액 최고 20백만 유로 또는 총 대차대조차액 10백만 유로)의 경우에는 승인 투자액의 최고 75%까지 보조금이 부여된다. 현금지원(보조금 부여 후 6개월 후부터 최대 3회 분할 상환 조건)의 대상은 토지, 건물 또는 신규 시 설비재 (신규사업자의 경우 중고 사무용 가구) 등 유형 고정자산 매입, 특허권, 신규 투자 목적의 시장 조사 등 무형자산 매입 등이다.

무이자 대출 시 지원규모는 매년 최고 625,000 유로에 해당되는 투자 계획 시 승인 투자액의 50% 무이자 용자가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마케팅, 품질검사, 산업구조, 판매화, 환경재선, 기술 및 경영 관리 등의 향상을 위한 외부 컨설팅 조사 의뢰, 신기술 적용, 지적소유권보호, 신규희망 분야 개발 등을 위한 연수이다. 환경투자 시 투자성격에 따라 투자액의 12-15%가 지원된다. 또한 각 지방정부는 관할 지방 내 낙후 개발 지역을 정하고 낙후 지역 별로 투자 보조금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 플란더스 지방의 LIMBURG 주 투자 시 21%까지 누적지원이 가능하고 왈로니아 지방의 Hainaut 주는 EU가 지정한 낙후지역으로 최대 4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각 지방 정부에서는 자기 지방 투자기업에게 Capital Premium, Cash Grant, Interest Rebate 등의 형태로 보조금을 제공된다. 그 외 DISTRIBUTION CENTER, SERVICE CENTERS, 신규 투자 등에 특별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 2) 유통센터에 대한 특혜

유통센터(벨기에 법인이던 외국 법인의 BRANCH던 상관없음)에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혜택기간은 5년이며 연장될 수 있다. DISTRIBUTION CENTER는 최소 고용인 수나 매출액, 최소자본금에 대한 규제조건이 없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세무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세무 당국은 세제 혜택 대상 유통 활동 리스트를 발표한다. 리스트에 없는 활동을 하는 업체가 혜택을 받고자 할 때는 세무 당국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이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허가함).

단, 재판매(resale)용으로 구입한 완제품의 제품 성격을 향상하거나 변경하는 활동과 순수한 포장 활동(완제품 포장이나 벌크로 들여 온 상품을 재 판매하기 위해 재포장)은 유통센터의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 자기자본 투자에 대한 특혜(Notional interests)

벨기에 정부는 투자 유치의 주요 무기로서 2007년부터 자기자본을 자사에 투자할 때 Notional interests라 일컫는 세계에서 유일한 혜택을 도입했다. Notional Interests란 자사에 투자한 자기자본을 은행에서 대출 받았더라면 은행에 지급해야 할 대출 이자(가상적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면제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동 제도는 기업의 자기자본 투자를 장려기 위한 제도다.

### 바. 투자타당성 조사

벨기에에 투자하고 있는 대부분의 외국인 기업들은 유럽시장 진출 거점으로 벨기에를 선택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지리적으로 유럽시장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로, 항구, 항공 통신 등의 인프라가 발달되었다.
  - 고속도로: 1,802 km / 국도(아스팔트): 14,252 km
  - 고속철도가 브뤼셀-런던, 암스텔담, 파리, 쾰른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 브뤼셀 자브템(Zaventem) 국제공항의 화물 취급 능력은 연간 50만톤에 달하고 자브템 공항 이외에도 Bierset, Charleroi, Antwerp, Oostende 공항이 있고 브뤼셀에서 프랑스 북부 Lille, 파리(Charle De Gaule), 암스텔담(Schipol) 공항까지 3시간 내 달을 수 있다.
  - 주요 항구로는 유럽 2위 항구인 Antwerp(연간 210 백만 톤의 화물과 15,000 대의 선박을 취급)항구를 비롯하여 Zeebrugge, Gent, Oostende, Brussels, Liège 등 해운 화물 항구가 있다. 또한 내수로(1,532km)를 통해 유럽 주요 항구와 연결된다.
- 다국 언어를 구상사는 고급 인력이 풍부, 전통적인 공업국으로 다분야에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EU 본부가 위치하여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EU 정책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으며, 공해가 비교적 적고 레저 인프라 구조가 발달하여 생활의 질이 높다.

이 같은 장점을 감안할 때 유통, 서비스 센터, R & D 센터 등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이 같은 전반적인 투자 환경 이외에도 투자 전에 투자의 타당성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타당성 사전 조사는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수한 정보를 이중 체크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국가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전통적 경영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현지 기존 투자 기업으로부터 현지 영업 경험담 및 조언을 청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사. 투자제한 및 금지분야

### 1) 투자 제한

벨기에에는 외국 투자자에 의한 벨기에 기업의 인수 또는 설립을 제한하거나 또는 통제하는 특별한 법규는 없으며 또한 당해 기업의 자본 또는 경영에 대한 벨기에인의 참여를 요구하는 법규도 없다. 그리고 투자와 관련 외국인 기업과 내국인 기업간 차별대우제도가 없으며 벨기에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영업 활동의 투자를 환영하며 투자한도액, 투자비율, 지분소유, 투자분야 등의 제한이 없다.

또한, 벨기에에는 노동법에 의한 고용 및 해직 조건, 노동시간 등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제외하고는 현지인 고용 의무 규정은 없다. 오히려 현지 고용 창출 시 신규채용에 대해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당국(ONSS)에 등록하지 않고 고용하는 것은 불법고용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주는 그에 대한 사회 보장세를 사회보장당국에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신고하지 않고 불법 고용을 하는 경우가 특히 요식과 건축분야에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 근래 검사가 강화되었다.

### 2) 투자 금지

벨기에에는 보험이나 은행, 리스, 운송, 의약품, 식품과 같은 일부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투자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특정 분야에 대한 개별법도 투자 금지가 목적이 아니고 소비자보호,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정 조건이 충족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 조건은 외국인의 투자 제한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던 내국인이던 상관없이 동등하게 적용된다.

즉, 내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 금지 조치는 없고 외국인 투자의 금지 분야를 법으로 제한하지도 않고 있다. 다만 사회공익을 해치는 사업이나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천연자원을 파괴하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사업은 우선 공장건설 허가를 받지 못하므로 투자가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내국기업도 마찬가지다.

## 5. 진출형태별 절차

은행, 운송, 보험, 식품 제조 및 판매, 유통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사전허가가 필요 없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또한 특별히 정해진 회사설립 신청서와 정관서는 없다. 외국 법인은 현지 진출 목적에 따라 현지에 연락 사무소나 지점 또는 현지 법인 등 회사 형태를 선정할 수 있다. 현지에서 직접 제조나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인 투자 업체 들은 대부분 2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 형태를 택하고 있다.

### 가.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non-commercial branch를 의미하며 특별한 설치 신청서는 없고 하기 구비서류를 벨기에 경제부내 공증담당부서에 제출, 공증을 받으면 된다. 연락 사무소 형태로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 구비서류
  - 본사정관(주한 벨기에 영사의 공증을 받아야 함)
  - 현지사무소 결정 이사회 회의기록 발체서와 현지 법정 대리 책임자 임명서
  - 본사 최근 연차회계보고서 사본
  - 참고) 한국어 서류는 벨기에 법정 번역사에 의해 붙어 또는 네덜란드어로 번역되어야 함.
- 비용: 10 유로(1건 당)
- 소요 기간: 1-2일
- 신청 및 발급처
  - SERVICE DE LEGALISATION
  - 전화 : 32-(0)2 501 89 00
  - 팩스 : 32-(0)2 501 37 90
  - 이메일 : [legalisation.ae@diplobel.fed.be](mailto:legalisation.ae@diplobel.fed.be)

### 나. 법인 설립

벨기에 법이 인정하고 있는 법인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인 형태는 Company Limited by share(S.A/N.V), Private Limited Liability Company (S.P.R.L./B.V.B.A.). Co-operative company, European Economic Interest Grouping 등 이다.

벨기에에서 영업활동을 목적하는 외국인 기업은 벨기에 법의 적용을 받는 현지 법인 자회사(a subsidiary incorporated under Belgian law)나 또는 외국법의 적용을 받는 현지지점(a branch incorporated under the law of a foreign country)을 택할 수 있다.

## 1) 현지법인 자회사(subsidiary) 설립

벨기에 법 하에 설립된 자회사는 벨기에 법인으로 모회사와 법적으로 다른 조직이다. 이 같은 자회사는 모회사와 분리된 법인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책임한계는 자회사 고유자산 범위 내이며 따라서 주주의 개인적 책임도 자회사 자본에 불입된 금액한도에 그친다.

유한주식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형태의 현지 자회사는 적어도 2인의 이사 (director)로 구성된 이사회(a board of directors)에 의해 경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벨기에 자회사 이사의 국적과 거주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건도 요구되지 않는다. 즉, 한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한국국적의 이사일 수도 있다. 자회사는 회사의 일상적 운영을 책임지는 1명 또는 그 이상의 경영자를 임명할 수 있다. 벨기에 법인 자회사는 벨기에 법에 의거한 회계방식을 택해 야 하고 연차 회계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

### □ 설립절차

- 은행구좌 개설
- 구좌에 자금 적립
- 은행 또는 회계사 발급 증명서
- 설립 공증
- 상법 등록
- 관보 공표
- 사업자등록 번호 획득/부가가치세 등록번호획득
  - 사업자등록은 경제부 소속 Cellule Banque-Carrefour des Entreprises에서 하며 동 기관에서 일단 사업자 등록 번호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등록을 따로 가서 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부가가치세 세무국에 등록 된다.
- 유한주식회사(현지에서는 S.A 또는 N.V라고 함)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공증인의 공증서에 의해 설립되어야 하며 더불어 설립 2 년간 동안의 사전 재정계획 (preliminary financial plan for 2-year periode)이 첨부되어야 한다. 회사 정관과 이사(director) 및 회계감사(auditor)지명에 관한 모든 서류는 상업 재판소에 기재되어야 하고 15일 내로 벨기에 관보에 공표되어야 한다. 자회사가 거주할 지역의 언어에 따라 불어 또는 네덜란 드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 □ 설립비용

- 공증 비용: 설립 자본금에 반비례하며 금액이 클수록 비율은 낮아짐
- 등록세(registration tax): 불입자본의 0.5%
- 관보(Official Gazette)공표 비용: 페이지당 약 202 유로)
- 사업자 등록비(registration fee at the Registry of Commerce): 70유로
- 번역비: 줄당 약 1.5 유로

### □ 설립자본(Share capital)

- 최소 주식 자본금인 62,000 유로이며 주식 자본금은 완전 불입되고 완전 지급되어야 한다. 주식 자본은 물품으로 불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공인 회계사의 가치 평가 보고서가 동반 되어야 한다.
- 최소 주주 수: 2인(주주는 개인일 수도 있으며 법인일 수도 있음. 또한 주주의 국적은 벨기에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음) 주식회사 설립에는 약 3주 소요

## □ 회사 설립 신청 및 서류 제출 장소

벨기에 정부는 최근 회사설립 및 사후 행정을 간료화 하기 위해 일명 기업창구(Business one stop shops)를 신설했다. 동 창구에서는 법인 창설 관련 모든 행정 업무를 관리한다. 기업창구 관련 정보와 기업창구 리스트는 벨기에 경제부 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다.

- 관련 부서(경제부 중소기업 일반 정책부)
  - SPF ECONOMIE, P.M.E, CLASSES MOYENNES ET ENERGIE
    - Cellule Banque-Carrefour des Entreprises
    - 44, rue de Louvain , 1000 Bruxelles
  - 전화: 32-(0)2 548 6400
  - 이메일: info.bce@mineco.fgov.be
  - 웹사이트: www.mineco.fgov.be

## 다. 투자 방식

투자 방식에는 단독 투자와 합작 투자, 합자, 인수 및 합병 등이 있다. 우리 기업의 대다수는 단독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벨기에 파트너 선정이 필요하지 않으나 현재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 독자 투자보다는 현지 파트너와 합작 투자 하는 것이 적당하다. 생산 과정이 복잡하고 긴 제조업 투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합작 투자를 선택하고 있다.

특히 합작 투자의 경우에는 적절한 파트너 선정이 중요하다. 파트너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어떤 기업을 투자 파트너로 선택하는가 문제다.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현지 시장을 잘 알고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알려져 있다.

## □ 합작 투자 계약 양식

-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서는 없으나 대부분 다음같은 항목이 기재된다.
  - 정의
  - 목적
  - 합작 투자 회사 설립
  - 자본금 출자
  - 발기인
  - 주식의 양도
  - 신주 인수권
  - 주주총회
  - 이사회
  - 회사의 기본적인 경영 전략
  - 회계 및 회계감사
  - 기술 라이선스 및 상표 사용 승인
  - 계약 기간
  - 계약의 종료
  - 계약 종료의 효과
  - 권리의 불 포기
  - 독립성
  - 불가항력

- 상호 대리의 배제
- 중재
- 계약 양도
- 비용 부담
- 합작 투자회사의 계약
- 계약의 이행
- 이행 강제 비용 감독
- 준거 언어
- 계약 발효 일자
- 완전 계약 조항 등이다.

#### 다. 구비 서류

- 기업 정보 (업체 명, 설립 년도, 업종, 종업원수, 매출액 등)
- 기업 현황 및 기술 보유 상황
- 투자 성격 및 목적
- 투자 규모 (예상 투자액, 고용 인원 수 등)
- 현지 투자 기업 형태 (현지법인, 또는 외국인 법인 등)
- 자원 조달 계획서(FINANCIAL PLAN)등

#### 라. 기타 참고사항

##### 1) 지사개설 가이드

벨기에에 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무소나 지점의 책임자가 될 사람을 파견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서류들이다. 그러나 벨기에 국적의 현지 거주인을 채용할 경우에는 일단 VISA, 체류허가, 근로허가를 발급을 필요가 없다.

한국 국적 소유자를 벨기에 파견, 지점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 그 사람은 벨기에에 입국하기 전에 비자, 체류허가, 노동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임시 체류허가와 외국인 카드(노동허가)는 주한 벨기에 대사관에서 신청하여 획득해야 한다.

##### 2) 사전준비단계

주한 벨기에 대사관에 임시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건강진단서(주한 벨기에 대사관이 지명한 의사에 의해 신청자의 건강진단이 이루어져야 함)와 신원증명서(최근 5년간 위법사실이 없음이 증명되어야 함)가 곁들여 제출되어야 하고 동시에 외국인 직업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 직업 신청서는 주한 벨기에 대사관에서 교부 받을 수 있다.

직업카드 신청서에는 한국본사의 회사명, 법인형태, 주종 활동분야 등 법인에 관한 정보와 신청자의 직위, 지사의 법인형태, 활동분야, 생산 또는 판매 제품 등 설치할 지사의 성격에 대한 정보 기재난이 있는데 동 기재 난을 명료하게 기재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본사의 법인 정관, 사업자등록번호, 회계(대차대조표), 부가가치세 번호, 회사와 생산제품에 대한 홍보물, 운영현황 등 견실한 회사임을 증빙하는 서류들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벨기에 지사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수요건으로 요구 될 수도 있다.

### 3) 사전 조사해 두면 좋은 것

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접수한 외국인 직업카드 신청서와 함께 임시체류허가와 건강진단서를 동봉하여 벨기에 외무부에 발송한다. 외무부는 서류 검토 후 외국인 근로카드 발부부서 (중소기업 및 농산부 소속부서)와 외국인 사무국(Office des Etrangers, 내무부 소속의 부서로서 외국인 신원조사 부서임)에 발송한다. 외국인 근로카드 담당부서는 외국인 사무국의 승인을 받으면 신청자와의 면담 절차를 거친 후 최종 결정을 내린다.

신청자는 면담에 변호사를 대신 보낼 수도 있으나 직접 참석하는 것이 유리하다. 동 부서는 신청자에게 면담 일, 시간, 장소를 등기우편으로 통보한다. 외국인 직업카드 발급 소요 기간은 3-5개월 정도 인데 시간이 급한 경우에는 주한 벨기에 대사관을 통해 신속처리를 부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고: 임시허가체류는 벨기에 내무부의 외국인 사무국 소관으로 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동 부서의 승인이 있어야 임시 체류 허가증을 발급한다.

### 4) 체류증 취득

벨기에에 입국 후 일주일 내에 임시체류허가증과 직업카드를 가지고 거주지 구청에 가서 거주등록을 하고 거주등록이 되면 체류증이 발급된다.

체류증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빨리 거주할 주택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사무실 확보

지점설립 작업 중에서 우선적으로 착수해야 하는 것이 사무실 확보 작업이다, 직업 카드 신청서에 벨기에 사무실 주소 기재란(사무실 주소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사업 계획서에 기재된 예정지로 대체할 수 있음)이 있고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임시 체류 허가신청 시 정해진 주소가 있으면 절차가 빠를 뿐 아니라 사무실 설립등기나 공적인 신고, 은행구좌 개설, 직원 채용을 비롯하여 지점개설행정에 사무실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6) 거주지 확보

현지 사무실 설치에 서두려야 할 작업 중 하나가 생활거주지 확보이다. 현지 지점의 대표로 취임하여 거주 증을 교부 받으려면 현지에 거주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그래야 이삿짐도 빨리 인수 받을 수 있고, 전화, 은행구좌개설, 자녀의 학교등록 등 정착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벨기에에서는 사무실 임대 여건과 주택 임대 여건이 여타 유럽 국가에 비해 수월한 편이다. 임대주택을 찾는 방법은 주거를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주위를 직접 다니면서 찾거나 (아파트나 주택건물 앞에 임대광고를 붙임) 또는 신문광고 또는 복덕방을 통해 구할 수 있는데, 복덕방을 통해 구하는 것이 편하다.

벨기에에서는 프랑스와는 달리 복덕방을 통해 구할 경우에 임차인이 복덕방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임대인이 부담한다.

## 6. 투자입지여건

### 가. 공장 설립 가이드

벨기에에는 지역 산업과 경제 발전을 육성키 위한 산업공단이 전국에 걸쳐 250이다. 이중 산학공단은 15개이며 나머지는 일반 산업 공단이다. 지방별로는 왈로니아(Wallonia) 지방에 122개, 플란더스(Flanders) 지방에 111개, 브뤼셀(Brussels) 수도권에 17개가 분포되어 있다.

벨기에 산업 및 산학공단은 지방정부 및 지방 자치당국에 의해 개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국적에 차별 없이 모든 산업분야의 기업 입주를 환영하고 외국기업에 한해 입주를 받는 외국인 기업 전용 공단은 없다. 투자와 관련,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은 조세분야에 국한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지방 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신규 고정 자산(연구개발, 에너지 절약투자 및 중소기업에 의한 투자만 대상)에 투자된 금액의 일정 비율이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벨기에 외국인 투자 유치 당국(각 지방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 당국)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산업활동에 따라 적절한 산업단지를 권유하고 있다.

외국인 기업이 벨기에에 생산 공장이나 영업소를 설립하는 방법은 대개 신규 건축이나 기존 건물 개축인데 설립장소를 선택하기 전에 각 지방 정부나 구청 당국에서 해당 구역의 도시계획, 산업활동허가 지역도 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심층 검토하여 설립 후에 건축허가나 영업허가 등의 문제로 인한 사업계획의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브뤼셀수도의 경우 각 구청에서 해당 구역의 도시계획 및 산업 활동 허가 지역의 사본을 입수할 수 있다).

그리고 설립 전에 산업활동이 환경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해당 지방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 □ 관 련 행 정 부

- 플란더스지방
  - Bestuur Ruimtelijk Ordening
  - Kruidtunin, 20 1000 Brussel
  - Tel : 02/204 21 11
- 왈로니아지방
  - Administration de l'Amenagement du Territoire
  - Rue des Brigades d'Irlande 1
  - 5100 Namur/Jambes
  - Tel : 081/33 21 11
- 브뤼셀
  - Ministere de la Region de Bruxelles-Capitale
  - Administration de l'Amenagement du Territoire et du Logement
  - Centre des Communications du Nord
  - 80 Rue du Progres, 1030 Bruxelles
  - Tel : 02/204 21 11

## 나. 공장부지 확보

공장부지 구입 전 설립할 지역의 토지관리 행정부서를 접촉하여 공장부지가 남아있는지의 여부와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구청 구역 내에서도 공업 또는 상업활동이 허용된 지역과 완전 금지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벨기에에는 공업용수, 배수시설, 전력공급과 통신시설 등 제반 시설을 갖춘 산업공단이 약 230 개나 있는데 대부분 당국에 의해 개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국적에 차별 없이 모든 산업분야의 기업입주를 환영하며 공단부지의 구매와 임대가 모두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 시 특별한 규제는 없고 다만 공증인(Notary)의 공증을 받아 등기를 해야 한다. 공증 비용은 2.5%, 부동산 세율은 12.5%이나 신규투자자에 대해서는 최소 5년간 부동산세가 면제된다. 그런데 부동산 취득 때에 시 또는 도, 지방정부 소유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상으로 불하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이처럼 공공 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불하 받을 때 공증 비용도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 다. 건축허가

건축허가 신청은 건축지 관할구청(Commune)에 등기 우편으로 제출, 주민의 의견 조사나 환경영향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통상 신청 후 1개월 내에 허가서가 발급 된다.

## 라. 영업허가

관할 구청당국에 건축허가와 더불어 영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영업활동의 성격에 따라 (위험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경우와 그 외의 경우 2가지로 대분)주민의 의견조사와 환경영향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가 거부되거나 또는 임시허가(최고 2년) 또는 장기허가(최고 30년)가 발급된다. 영업허가를 발급 받지 못한 업체는 1차 구청 내 College d'urbanisme에 2차(최종) 지방정부당국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환경허가가 발급되기 전에는 건축허가나 영업허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한 지방 정부마다 각기 상이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한 지방정부에서 환경허가가 거부되었다고 해서 다른 지방정부당국에서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 지방에서 거부된 경우 물론 영업 소재지를 바꾸어 다른 지방정부당국에 신청할 수 있다.

## 마. 벨기에의 과학연구단지

### 1) 특징

- 세 지방 정부 별로 구분되어 조직 및 운영
  - 왈로니아 지방(불어권), 플란더스 지방(네덜란드어권), 브뤼셀 지방으로 분리 형성, 운영 되고 있음.
  - 플란더스 지방: 역사가 깊고 또 개별 단지별로도 활발하게 운영
  - 왈로니아 지방: 상대적으로 낙후. 최근 과학연구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연구단지 협회를 구성, 활성화를 도모 중임
- 대학 주도의 연구단지
  - 각 연구단지가 특정 대학을 끼고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대학 근처에 입지하는 등, 대학의 영향력이 매우 큼.

## 2) 플란더스 지방

- 핀란드, 아일랜드와 함께 유럽에서 R&D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음
- 주요 과학 단지
  - Haasrode Research Park (일명 Science Park of Leuven)
    - 루뱅 카톨릭대학과 IMEC (세계유수 R&D 연구소)을 중심으로 발달
    - 루뱅 지역에 소재한, 규모 16 Ha의 연구단지
    - 주요 연구 분야 : ICT, 생명공학, 신소재
- Waterfront Research Park
  - Niel (안트워프와 브뤼셀 사이에 위치) 소재 40 Ha 규모
  - 사실상 안트워프 대학을 통해 탄생된 기업들을 위한 단지로 운영되고 있음
    - 1단계: 안트워프 대학의 Antwerp Innovation Center (AIC: 일종의 기술지원센터) 을 통해 창업 기반이 되는 기술개발
    - 2단계: 안트워프 대학의 The University Business Center Antwerp (UBCA: 일종의 창업 지원센터)을 통해 창업 및 비즈니스를 지원 받음
    - 3단계: 동 연구단지에 소재지를 설치, 영업
  - 주요 연구 분야 : 하이텍 산업
- Science Park of Ghent University
  - 겐트대학, 플란더스 생명공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운영 (겐트소재)
  - 주요 연구 분야 : 생명공학, ICT
- The Limburg Science Park
  - 림부르크 대학을 중심으로 1989년 설립
  - 주요 연구 분야 :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신소재 연구
- The Kortrijk Research Park
  - 루뱅카톨릭 대학의 코르트레이크 캠퍼스와 Kortrijk Incubation and Innovation (IICK)를 중심으로 형성
  - 주요 연구 분야 : 혁신 기술
- The Brussels Research Park
  - 브뤼셀 자유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연구단지로 20 Ha 규모

## 3) 왈로니아 지방

- 2001년 설립된 '왈로니아 과학연구단지 협회'를 통해 활성화 추진 중
- 왈로니아 과학연구단지협회 (SpoW: Science Parks of Wallonia)
  - 설립경위: Louvain-la Neuve 연구단지 주도로 2001년 결성
  - 설립목적
    - 과학연구단지 개념 정립 및 활동 촉진
    - 이해관계자 (산, 학, 연)간 네트워킹 강화
    - 왈로니아 지방 R&D 활동 촉진

#### □ 주요 과학연구단지

- Aeropole Charleroi
  - 설립일 : 1991
  - 면적 : 126 Ha
  - 입주현황 : 97개사, 3 R&D센터, 1 대학센터, 3 BIC
  - 주요 부문 : 항공, 그래픽, IT, 바이오텍
- Crelys Gembloux
  - 설립일 : 1996
  - 면적 : 25 Ha
  - 입주현황 : 38개사, 2 R&D센터, 1 BIC, 1 인큐베이터
  - 주요 부문 : IT, 생명공학
- Louvain-la-Neuve Science Park
  - 설립일 : 1971
  - 면적 : 231 Ha
  - 입주현황 : 116개사, 1 대학
  - 주요 부문 : 생명공학, 화학, IT
- Liege Science Park
  - 설립일 : 1981
  - 면적 : 50 Ha
  - 입주현황 : 62개사, 1 BIC, 1 대학, 2 전문인큐베이터(우주 및 바이오텍)
  - 주요 부문 : 바이오 산업, 우주, 컴퓨터공학, 전자, 엔지니어링
- Qualitis Enghien
  - 설립일 : 2002
  - 면적 : 25 Ha
  - 주요 부문 : ICT, 첨단기술

#### 4) 브뤼셀 지방

브뤼셀 지방 개발청 (Brussels Regional Development Agency) 에서 다음과 같은 4개의 과학연구단지를 관할하고 있음(규모: 150 Ha)

- De vinci Park
  - 1974년 설립된 최초의 브뤼셀 과학연구단지
  - 순수한 산학 과학연구단지보다는 첨단기술 기업들을 집중 유치함으로써 기술적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분야 : 소프트웨어, 컴퓨터, 전자, 마이크로 전자 등 IT 산업
- Erasmus Science Park
  - 브뤼셀자유대학 및 부설 Hopital Erasme 병원에 의해 운영되는 부지 16 Ha의 과학 연구단지
  - 주요 연구 분야 : 의학, 제약, 생명 공학

- Erasmus Technology Center
  - 일종의 인큐베이터 빌딩으로, 순수한 기술개발보다는 기업 경영과 기술적 조언이 주업무임
  - 주요 연구 분야 : 의학, 생명공학
- Vesalius Science Park
  - UCL 대학을 중심으로 운영
  - 주요 연구분야 : 생명공학, 제약

## 바. 주요 산업단지 리스트

### □ AEROPOLE (ZONING INDUSTRIEL) 6000 CHARLEROI

- 공단연락처 : IGRETEC
- 주 소 : 1, BOULEVARD MAYENCE, 6000 CHARLEROI, Belgium
- 전 화 : 32)71-20 28 11
- 팩 스 : 32)71-33 42 36
- 인터넷 사이트: <http://www.igretec.com>
- 이메일 : [info@igretec.com](mailto:info@igretec.com)

### □ HAUTS-SAERTS SPI BUSINESS PARK

- 공단연락처: SPI+(LIEGE도 경제개발공사)
- 주 소 : 11 Rue du Vertbois, 4000 LIEGE, Belgium
- 전화 : 32-4-230 11 11
- 팩스 : 32-4-230 11 20
- 인터넷사이트 : <http://www.spi.be>
- 이메일 : [info@spi.be](mailto:info@spi.be)

### □ SENEFFE-MANAGE INDUSTRIAL PARK

- 공단연락처 : IDEA
- 주 소 : RUE DE NIMY 53, 7000 MONS (BELGIQUE)
- 전 화 : 32-65-37 57 11
- 팩 스 : 32-65-37 69 54
- 인터넷사이트 : <http://www.idea.be>
- 이메일 : [direction@idea.be](mailto:direction@idea.be)

### □ GEEL-PUNT INDUSTRIAL PARK GEEL-PUNT

- 공단연락처 : GOM ANTWERPEN
- 주 소 : LANGE LOZANASTRAAT 223, BUS 4 53 2018 ANTWERPEN (BELGIUM)
- 전 화 : 32-3-240 68 00
- 팩 스 : 32-3-240 68 68
- 인터넷사이트 : <http://www.gomantwerpen.be>
- 이메일 : [gom@gomantwerpen.be](mailto:gom@gomantwerpen.be)

## 7. 노무관리

### 가. 고용

벨기에에서는 특별한 법적 고용 절차는 없고 광고, 정부구직기관, 민간구직업체, 또는 전문 인력 양성기관, 학교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계약을 하면 된다. 단, 근로자는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반드시 고용계약서를 문서화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문서화할 경우 계약서 언어는 고용지역의 공식언어에 따라 불어 또는 화란어로 되어야 한다 (단, 브뤼셀은 불어와 화란어가 공용되는 지역이므로 이 경우 피고용인의 언어, 즉, 불어 또는 화란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기한 고용이나 파트타임 고용의 경우에는 고용기간과 업무성격이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벨기에에서는 무기한 고용 계약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특정 업무일 경우 한정된 고용 기간의 계약을 맺을 수 있으나 기한이 한정된 고용 계약을 2년간 4회 이상 연장할 수 없다. 따라서 2년이 지나면 무기한 고용 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고용계약에는 'trial period'를 명시할 수 있고 동 기간은 노동직의 경우 최소 7일 최대 14일이며 사무직의 경우에는 최소 1달 최대 6 또는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인력

벨기에 총 인구는 약 천만 명인데 활동인구(16-65세)는 6.8백만 명으로 총인구의 67%이나 실질 고용인구는 4.7백만 명이다. 고용인구 중 약 17.2%는 상업(소. 도매) 및 통신, 13.6%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금융, 부동산, 기업서비스는 10.6%, 공무원과 국방, 병원 등 비 상품 서비스는 28.1%, 실업률은 8.2% 상위를 맴돌고 있다.

실업자의 대부분은 학력이 낮고 전문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젊은 층과 나이가 50세 이상의 노년 인구 층이므로 실제로 고학력 소유자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숙련 노동력은 풍부하지 못하다. 특히 공업이 발달한 플란더스 지방 당국은 노동력 부족으로 최근 외국(기존 이민자)근로자 유치를 위해 이들에 대한 대우 개선을 권유하고 있다. 벨기에에는 임금 수준이 높고 실업수당도 높아 실업수당보다 약간 높은 봉급을 제안할 경우 일자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노동 집약적인 산업 분야의 현지 투자는 적당치 않다.

벨기에에는 공식 언어인 불어와 네덜란드어는 물론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등 보통 3-4개국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외국인 기업이나 기관들은 브뤼셀에 거점을 두고 있는 주요 이유로 이점을 꼽고 있다.

### 다. 임금

벨기에의 임금 수준은 EU회원국 중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에 이어 4위로 높은 수준이다. 벨기에의 임금은 물가 상승률과 연계되어 있다. 고용주는 종업원 봉급(gross) 이외에 종업원 봉급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추가 지불해야 하므로 고용 비는 훨씬 높아진다. 고용주의 종업원에 대한 사회보장 부담률은 해마다 다소 변화되며 현재 사무직에 대한 고용주의 사회보장세율은 사무직 봉급(gross)의 32.34%다.

일반적으로 평일의 초과 근무 수당은 임금의 50%이며,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 수당은 100% 이나 이 경우에도 협약에 의거 조정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고용주는 6개월 이상 근무한 피고용자에 대해 월 급여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연말에 (13개월 분 월 급여) 지급한다.

최대 법정 근무 시간은 주당 5일, 37.5시간이다. 초과 근무는 법규로 엄격히 규정되고 있으며 일정한 상황에서만 특별히 허용된다. 근무 시간은 노동력의 재분배와 작업장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융통적인 근로 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하루에 최대 7시간 36분 또는 주간 37.5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예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하루에 최대 11시간 1주에 50시간 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근무 시간을 중단할 수 없는 경우, 하루 최대 근무 시간은 12시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단, 그에 대한 보상 휴가가 있다. 야간 근무 시간은 오후 2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호텔, 이벤트 관리 기업, 병원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어 있다. 또한 예외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일요일과 공휴일의 근무는 금지되어 있다. 추가 근무 시 법정 수당이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

## 라. 외국인의 고용

외국인의 고용은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자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일자리 공급이 최대의 현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국내 취업 허용을 뜻하는 이민 문제에 매우 제한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기술자나 집행 간부급 인력이 회사 운영상 필요하다 는 정상적 사유가 입증될 경우 에는 당국의 이민 허가를 비교적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다.

## 마. 근로자 사회보장제도

### 1) 현지인 사회보장

벨기에에 거주하는 모든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회보장제도에 등록되어야 한다. 보장의 범위는 직업인에 대한 의료, 실업, 노후(연금), 산재 및 직업병이며 가족수당과 의료 보험 등으로 직업인의 가족까지 확대된다. 실업 및 의료 보장기금은 고용인과 고용주가 각기 할당된 몫을 지불한다.

사회보장 기금 지불은 의무화되어 있다. 근로자의 사회보장 기금의 분담액은 총 급여(gross salary) 의 13.07%이며 고용주의 분담액은 노동직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의 38.44%,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의 32.34%이다. 고용주는 고용인 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및 고용주 분담 총액을 사회보장국(Government Social Security Agency)에 분기마다 지불해야 한다. 고용주가 고용인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지불하지 않고 고용하는 것은 불법 고용으로 엄중한 법적 구속을 받는다.

### 2)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EU역외 국적의 비 거주인(non-EU-residents)이 벨기에에서 근무할 경우 동인 국가와 벨기에와의 협정 여부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해당인 국가의 사회보장 시스템이 적용되어 벨기에 사회 보장세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예를 들어 외국인 법인의 현지 지사 책임자로 파견 근무할 경우)

한국 국적인의 경우에는 양국간 사회보장협정 미 체결로(현재 협상 중) 한국에서 파견된 주재상사의 임시 파견직원은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 벨기에 사회 보장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도 없다. 단, 주재 상사가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현지 거주 교민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2005년 벨기에와 한국은 사회보장협정을 서명한 바 현재 벨기에 국회비준 동의 절차 중임)

## 8. 조세제도

### 가. 개요

벨기에 조세는 연방정부의 권한에 속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법에 의해 결정된다. 재무부와 세무당국은 조세법을 수정할 수 있는 재량권은 없으나 실제로 재무부의 조세법에 대한 해석이 조세 수행에 중요하다. 한편,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 최고법원의 판례도 중요하다. 한편, 벨기에의 조세 행정은 재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조세구조는 연방세, 주세, 지방세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연방세가 총 조세의 거의 90%를 점하고 있고 주요 세금은 주로 부동산세이며 부동산 과세기준은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 지방세는 오세물 등 환경세가 주류를 이룬다.

소득세는 'Code des impots sur les Revenus/Wetboek der conkomsten-belastingen'에 조정되어 있으며 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소득세를 관장하는 기관은 재무부 산하 'Administration des Directes/Administratie des Directe Belastingen'와 여러 개의 지방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 나. 연방세

비중이 가장 큰 세는 연방세(또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이며 그 외 재산, 상품 및 서비스의 이전에 대한 조세로서 부가가치세(VAT), 관세 및 입시세, 등록세 및 인지세, 상속 및 증여세 등이 있고 또한 재산세로서는 부동산세와 동산세(배당, 이자 및 로열티 등)가 있다.

한편, 조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고 직접세의 대표적인 것은 법인소득세와 개인 소득세이고 간접세의 대표적인 것은 부가가치세와 물품세(accise) 및 상속세인데 직. 간접세의 세입비중은 직접세가 55%, 간접세가 43% 그 외 기타 2%의 비율로 구성된다. 법인 소득세는 내국 법인에 대해서 벨기에 내외의 전체소득을, 그리고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벨기에 내의 소득 및 국외의 특정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며 세율은 33%이다. (지난 97년 경제부흥세 3%를 추가, 실제적으로는 33.99%) 개인 소득은 근로 소득, 부동산 소득, 동산 소득, 기타 상속 등이 있으며 세율은 소득에 따라 25-5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벨기에 조세 원칙은 모든 종류의 소득을 종합하여 단일 세율의 적용을 받으며 원천 징수의 방식으로 사전 납부의 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벨기에에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에게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부과하는데, 외국인과 외국인 기업에게도 부과하는 세금으로 고용주가 반드시 원천 징수하여 정기적으로 사회보장 기관인 ONSS(Office Nationale de Sécurité Sociale)에 납부함과 동시에 고용주는 종업원의 봉급(gross salary)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연방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간접세 중 가장 중요한 세는 부가가치세로서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과세된다. 벨기에의 일반 부가가치세율은 21%인데, 예외적으로 수돗물, 약, 꽃(꽃집에서 파는 꽃), 불구자 용품, 병원치료, 장례 서비스, 호텔 투숙, 오물 제거, 문화, 교통 서비스에는 6%가 트랙터 용 타이어, 사회복지, 서민주택건설과 주택실내장식, 자전거, 구두, 옷 수선 등에는 12%가 신문, 잡지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물품세(accise)는 담배, 주류, 휘발유, 석유, 등유, 미네랄워터, 맥주 등에 부과된다.

## 다. 법인세

### 1) 법인세

벨기에의 법인 소득세는 벨기에에서 발생한 소득뿐 아니라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벨기에 지점을 포함하여 벨기에 거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벨기에 거주기업의 활동과 연계된 범위 내에서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도 부과된다.

#### □ 법인세율

- 벨기에 명목 법인세율(nominal ordinary tax rate)은 외국인 기업과 내국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33%인데 현재 경제부흥세(97년 경제 불황 때 모든 세의 세율에 3% 추가)가 추가되어 33.99%다.
- 단, 과세 대상 수익이(taxable profit) 332,500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한 명목 법인세율은 24.25%이나 현재 경제부흥세 3%가 추가되어 24.98%다.

### 2) 자산의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경제적 예상 수명기간 동안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첫 구매가격을 기준한다. 일반적으로 정액법(straight-line method)이나 declining depreciation method가 통용된다.

Declining depreciation 방법은 연간 감가상각액이 정액법으로 산정된 감가상각액과 동일하거나 낮을 때까지 사용되고 그 후부터는 정액법으로 바꿀 수 있다. 부수비용(ancillary costs)은 납세자가 구입 년도 동안에 지출로서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일정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로 공제할 수 있다(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 3) 기업간 배당금(Intercorporated dividends)

벨기에에 설립된 업체에 돌아가는 주식 배당금에 대한 면제 (participation exemption)는 벨기에에 거주 회사와 비 거주 회사에 모두 적용된다. 이 경우 주식 배당액의 95%가 수익 소득(수익 소득이 있을 경우)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로 과세대상액이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음. 따라서, 벨기에에 설립된 기업이 손해를 보고 있을 경우(loss position)에도 배당금은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1993년부터는 최소한의 주식 보유와 납세 시험(minimum participation test and taxation test)을 만족할 때에만 배당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면제 자격을 갖추기 위한 보유 기간(holding period condition) 조건은 요구되지 않는다. 배당금 면제 자격을 갖추려면 최소한 5% 또는 1.25백만 유로의 주식 참가가 요구되는 한편, 면제 자격의 배당금은 벨기에 법인세 납세회사로부터 또는 그와 유사한 외국 법인세 납세 대상의 비 거주 회사로부터 오는 배당금이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배당금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세제가 전반적으로 벨기에 세제보다 유리한 국가에 소재한 회사로부터 오는 배당금
- 소재 국가에서 예외적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지주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오는 배당금
- 투자업체로부터 오는 배당금
- 외국 소재 회사로부터 오는 배당금으로서 그 회사가 분배하는 소득 자체가 면제대상이 아닌 배당금

#### 4) 원천과세(Withholding taxes)

##### □ 주식배당금에 대한 세율

벨기에 주식회사는 벨기에 거주 주주와 비 거주 주주에게 배당금을 분배할 때 배당금의 25.75%를 원천과세로 보류한다. 대부분의 세제 협정에 따라 배당금에 대한 원천과세율은 15%까지 또는 자회사와 모회사간(주식 보유율이 적어도 25%) 경우에는 5%까지 감축될 수 있다. 1991년 10월 14일 법령에 의거 벨기에를 포함한 EU 회원국 에 소재 한 모회사에 분배 하는 배당금에도 원천과세제도가 적용된다. 그러나 일정 조건 하에 원천과세는 전면 면세될 수 있는데 이러한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 모회사는 동 법령에서 명시하는 면세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다는 선언서를 벨기에 자회사에 발급해야 한다.

##### □ 자본 소득 및 손해(Capital gains and losses)

벨기에 거주회사가 벨기에나 외국회사의 보유주식에서 얻은 자본 소득은 법인 소득세에서 완전히 면제된다 (단, 해당 주식배당금이 배당금 면세 자격을 갖출 때의 경우에 한함). 자본 소득을 얻기 위한 주식 참여의 경우 배당금 면세 자격에 최소 참여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회계에 기재된 주식으로부터 자본소득이 실현되지 않을 때에도 실현 되지 않은 자본 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그 자본 소득이 회계장부에서 (RESERVE ACCOUNT) 분리되고 배당금 분배나 또는 어떤 형태로든지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해당 주식으로부터 자본 소득이 있을 때까지 실현 되지 않은 자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면제 받을 수 있다.

그 외 여타 자본소득은 일반 세율의 과세 대상이다. 주식매각 총액이 3년 내에 감가상각 이 되는 고정자산 구매에 사용될 경우 주식매각으로 얻은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은 구매한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에 걸쳐 나눌 수 있다.

##### □ 그 외 세제 혜택

소득을 발생키 위해 또는 소득을 고수키 위해 일어난 모든 지출은 특별 사항이 없는 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외 R & D 요원 증원, 투자 등 여러 종류의 세제 혜택이 있다. 벨기에 실질 세율(Effective Tax Rate)은 여타 OECD회원국의 평균 ETR 수준이다.

###### ○ 가상이자 공제제도(Notional interest deduction)

- 기업의 차입 자금에 대한 이자는 세제상 비용 처리가 되지만, 이자 지불이 없는 자기자본은 비용 처리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자기자본을 투자할 경우 가상 이자를 비용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 하고 있다. 현재 가상이자 공제율은 3.781%가 적용되어 자기자본 투자 시 실 질 법인세율은 26%선으로 낮아지게 된다(명목 법인세율 33.99%). 동 제도는 자본집약적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다국적 기업의 본사 또는 재무본부를 유치하는데 효과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 ○ 투자 등록세 폐지

- 2006년 1월 1일부터 현금이나 현물로 투자할 때 투자액의 0.5%를 지불하던 투자 등록세를 폐지했는데 이러한 조치도 현지 투자를 증진키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 R&D 장려를 위한 세제 혜택
  - R&D 장려를 위한 세제 혜택으로 과학자나 연구자를 고용할 때 해당 고용인에 대한 원천 징수 소득세 혜택은 물론 신규 특허에서 오는 법인 소득에 대해 6.8%의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다(명목법인세율은 33.99%).

## 라. 개인세

벨기에 거주자의 소득(국내, 국외 포함)은 모두 과세 대상이다. 과세 대상의 소득에는 부동산 소득, 근로자의 경우 봉급 및 수당,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 소득을 비롯한 여타 모든 종류의 소득이 포함된다.

이 중 다양한 소득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정상적 직업활동 지출비용을 포함하여 특별 지출, 개인 지출 및 보수(allowances) 등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개인의 순 과세소득(net taxable income) 세율은 소득에 따라 0-50% 사이이다.

비거주자나 일정 파견 근무 외국인도 벨기에에서 수행한 직업활동에서 기인하는 소득만이 과세 대상이다. 벨기에 회사를 돕기 위해 일시적으로 파견된 외국 경영자(Executives)와 벨기에에 납세자로서의 거주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경영자 또는 벨기에가 그들의 경제적 거점이 아닌 경우에는 벨기에 근무 초기에 벨기에 재무부에 특별 세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벨기에 재무부가 파견 근무자에게 부여하는 세제혜택은 주택 임대 초과 분, 이사비용과 정착 비용, 자녀 학비 등 일정한 지출과 해외 출장 비용 등 해외에서 일어난 직업활동에 대한 모든 수당은 과세소득에서 공제된다.

## 마. 부가가치세

벨기에 정상 부가가치세율은 21%이다. 그러나 고용을 증진키위해 일부 노동 집약적 분야(예: 자전거 수선, 헤어 살롱, 주택 개축 등)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정상 세율보다 낮은 12%가 적용된다.

##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가. 외환관리

벨기에에서는 외환관리정책의 하나로 특별히 외환의 송·이전을 규제하는 제도는 없다. 또한 외환 소유에 대한 규제 및 외환 자본, 대부, 기술협정 및 이와 유사한 자본에 대한 등록 요건도 없다. 그리고 해외 소득을 포함한 모든 해외 투자는 자유롭게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

과거 공식 외환 시장(THE OFFICIAL MARKET)과 자유 외환 시장(THE FREE MARKET)의 2중 구조는 '90.3월을 기해 폐지되고 하나로 통일되었다. 1961년2월15일에 IMF 제8조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국제수지상의 이유로 외환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외환사무국 (L'INSTITUT BELGO-LUXEMBOURGEOIS DU CHANGE: MBLC)이 최고 외환관리 기관으로서 외환 지급 및 이전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있으나 외환지급 및 이전 업무 기능은 일반 은행에 위임되고 있다.

## 나. 자금조달

개인뿐 아니라 기업이 자금 조달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은행 융자다. 기업은 벨기에 은행 이외에도 증권시장(EURONEXT BRUSSELS)에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다.

- 은행: 벨기에는 현재 총 104개의 은행이 있으며 이중 벨기에 법인 은행이 54개, 외국 인법인 은행이 50개 있다. 한편 EU 서비스 활동 자유 규정 하에 통보된 은행으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 수는 495개 된다. 벨기에는 국토 크기에 비해 (우리나라 경상 남북도 합한 크기) 은행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라 은행 간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융자를 쉽게 받을 수 있다.

2005년 벨기에 은행이 민간 고객(공공당국에 직대출 포함)에 대출한 총 대출액은 4112억 유로로 2004년 대비 19.9% 증가했으며 이중 59.7%에 해당하는 2453억이 벨기에에서 대출되고 나머지 1659억이 외국에 대출되었다.

한편 브뤼셀 EURONEXT(암스텔담, 파리, 브뤼셀 증권시장 통합)에 상장된 업체 수는 1250개(2006년 현재)로 총 축적 자본금은 2조 9950억 유로에 달한다.

## V. 기타 유용한 정보

### 1. 시장 특성

#### 가. 시장 규모

벨기에는 인구 1천만 명이 조금 넘는데, 1인당 국민소득은 28,584 유로로 EU 회원국 중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스웨덴 등과 함께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영토 면적은 EU 총 면적의 1.4%에 불과하나 인구 면에서 3.1%로 인구밀도(333명/km<sup>2</sup>)가 높고 소득이 높은(EU 총GDP의 약 3.2%) 국가다.

벨기에는 전통적으로 중계무역과 가공산업이 발달한 국가로 무역 의존도가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6년 총 무역고는 5,757억 유로(수출 2,940억 유로, 수입 2,817억 유로), 1인당 무역고는 55,355 유로로 역시 세계 상위 수준(세계 10,11위를 맴돌고 있음)이다. 벨기에는 수출도 많이 하지만 수입도 많이 하는 나라로 EU 총수입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이 벨기에 교역 규모는 영토 면적과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만 수출의 76.8%, 수입의 72.0%(2006년 기준)가 EU회원국간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상 EU역외국과의 교역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다.

2006년 기준 벨기에 역외 수입시장규모는 789억 유로인데, 이 중 한국은 16.1억 유로(벨기에 통계 기준)를 수출하여 벨기에 총수입의 0.6%, 역외 수입의 2.0%를 차지했다.

벨기에의 연간 1인당 소비 지출액은 약 15,000유로로 EU회원국 중 룩셈부르크, 덴마크, 독일,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와 같이 상위 그룹에 속한다. 벨기에는 세율이 세계에서 3, 4위를 다룰 정도로 세율이 높은 국가인 대신 그만큼 사회보장도 잘된 국가다. 사회보장 세율은 봉급(gross)의 총 45.41%로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나누어 부담하며 부담 비율은 각각 32.34%,

13.07% 이다. 사회보장에는 의료보험, 실업수당, 연금, 직업병, 장애인 수당, 장기 병환으로 인한 근무 불가능시 수당 등이 포함된다. 또 한편으로는 무소득자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빈부차가 가장 낮고 빈민자수가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도로, 철도, 해운 등 교통망과 통신망이 발달하고 인터넷, 전화, 이동 전화 등 인프라 구조 보급율이 높기 때문에 노동조건이 까다롭고 임금과 세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GDP대비)가 세계 상위권에 속한다(우리 수출업체는 벨기에 수입업체에게 수출 가격을 제시할 때 벨기에 부가가치 세율이 21%로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 나. 시장 특성

벨기에 시장은 전세계 수입 상품이 모여드는 곳으로 테스트 마켓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제품의 품질, 가격 및 A/S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수준이 매우 높고 엄격하다. 특히 내구 소비재(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 구매 시 상품의 품질과 기능이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아직도 강하므로 한국상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벨기에 사회는 빈부의 차이가 작고 중산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안정된 사회이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높지만 조세율이 높고(조세 부담율 약 GDP의 44.2%, 2006년) 물가 수준 또한 높은 관계로 일반적으로 충동적 구매를 피하고 제품 하나를 살 때도 여러 상품을 비교, 심사 숙고 후 구매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벨기에는 전통적인 카톨릭 국가로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모든 학교가 2주간 방학) 장난감이나 오락기기 책, 비디오, CD 등 어린이와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들이 많이 판매되며 소형 가전제품이나 화장품, 장식품 등 성인용 선물용품의 70%는 새해, 크리스마스, 어버이날, 성발렌타인데이를 전후하여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한편, 입학 시즌인 9월을 전후로 학생용 문방구, 책가방, 의류 등의 판매가 호황을 이루고 있다. 또한 1월에는 동계 바겐세일, 7월에는 하계 바겐세일로 재고품이 판매된다.

벨기에는 소비자 단체의 활동이 활발하며 동 연맹은 상품의 품질/가격을 비교할 뿐 아니라 제품의 안전도와 위생 면을 심층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월 발간하는 월간지를 통해 발표한다. 동 월간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와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제조업체들도 동 소비자 단체의 평가에 아주 민감하다.

유통 업체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고수키 위해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언론을 통해 위험성이 있다고 보도된 상품은 정부기관이나 소비자 단체의 반응이 있기 전에 자율적으로 미리 철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유통 업체들은 환경 면과 소비자 안전 및 건강 면에서 세심히 검토한 후 상품을 선정한다.

## 다. 우리 수출업체의 유의사항

### 1) 라벨링

벨기에는 화란어, 불어가 공식언어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상품 라벨링은 반드시 화란어와 프랑스어로 이중 표시되어야 한다.

## 2) 독점권

벨기에 시장은 인구 1천만 명이 조금 넘는 협소한 시장이므로 수입업체의 시장 관할 범위는 최소한 화란,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합친 베네룩스 3국이다. 따라서, 한국상품 수입 시 베네룩스 시장 독점권을 요구하고 있다.

## 3) 소량발주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세계에서 많은 상품들이 집합 되는 곳이므로 소비자들의 요구가 까다로운 한편, 시장은 작기 때문에 현지 수입상 들은 소비자 들의 기호를 충족시키려고 여러 모델을 주문하다 보니 각 모델마다 소량이 되어 다중소량의 주문이 되기 때문에 한국 수출업체로서는 발주가 어려운 점도 있다.

## 4) L/C 결제 등 국제무역에 익숙하지 않음

대 동남아 수입경험이 많은 대규모 수입상들은 L/C무역결제에 익숙해져 있으나 인근 유럽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거나 역외무역을 처음 시도하는 수입상들은 L/C, 통관절차 등 국제 무역거래 방식에 어둡고 유럽의 전통적인 대금지불방식(물품인수 3개월 후 지불)을 선호 하고 있다. 또한 수출가를 제시할 때 FOB보다는 CIF로 제시하고 FOB으로 제시할 때는 반드시 운송료와 보험료가 추가되어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유로 도입 이후 현지 수입업체들은 가격 제시 때 달러보다는 유로화를 선호하므로 우리업체는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 라. 유통구조

원자재, 반제품, 소비자 제품을 총망라한 벨기에 도매업의 연 매출액은 약 1,363억 유로에 달하며 소매업의 매출액은 약 719억 유로로 민간소비의 약 50%를 차지한다. 소매 매출 중 식품이 244억 유로로 1/3이상을 차지하고 의류 및 가정용 섬유제품은 113억 유로, 가구와 기타 가정용품은 약 119억 유로, 나머지 240억 유로는 기타 소비제품이다. 도매업체 수는 약 5만5천, 소매업체는 약 1만 5천 개에 달하고 이들의 부가가치 창출 비중 은 GDP의 10%를 초과한다.

소매업은 자영 독립 상점과 슈퍼마켓 및 프렌차이징 형태의 대형 유통업체에 속하는 체인 상점으로 구분되는데 매출비중은 전자가 약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30%는 유통 체인이 차지한다. 그러나 특히 식품의 경우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 점유(38%)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비식품 분야는 아직도 독립 상점(84%)이 주도하고 있다. 특히 가정용 섬유와 일반 가정용품의 판매는 자영 소매업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88%).

전통적 유통구조는 제조업체 (수입상)→도매상→소매상→최종 소비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발달됨에 따라 중간업체를 거치지 않고 생산자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에서 흔히 있는 오퍼상과 같이 수출입 대행만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는 극히 드물고 수출입업체가 취급상품에 대한 전문지식과 고유의 유통망을 확보하고 수출입, 판매, 서비스 조직을 갖추고 있다.

한편, 유통마진은 제품에 특수성에 따라 다르나 완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입상이 100으로 수입한 제품을 대형 슈퍼마켓에 대량 공급할 경우, 수입상이 슈퍼마켓에 제공하는 도매가격 180-200 정도이고 슈퍼마켓은 소비자에게 380-400에 판매한다.

수출입상이 도매상을 거칠 경우 수출입상은 도매상에게 140-150에 넘기고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넘기는 가격은 200-210정도 소매상은 소비자에게 420 정도에 판매한다.

## 마. 유명 유통업체

슈퍼마켓, 편의점, 전문점, 창고 식 매장, 대형종합슈퍼마켓, 백화점이 전국 곳곳에 산재함에 따라 동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상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유통업체로는 식품만 파는 슈퍼마켓과 식품, 의류, 신발, 가전제품, 학용품, 레저용품, 가구 등 소비제품 전반을 판매하는 대형종합슈퍼마켓 백화점, 식품을 제외한 소비 제품을 파는 백화점, DO IT YOUR SELF 전문점, 가전제품 전문점, 정원용품 전문점 등이 있다.

벨기에는 슈퍼마켓의 확장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슈퍼마켓 그룹들은 상점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전문제품 판매위주의 전문점으로 분리해 다양화하고 있다. 벨기에는 주요 일반 유통업체로는 DELHAIZE LE LION, Carrefour, COLRUYT, ALDI, MAKRO, CORA, MESTDAG, lidle 등이 있다. 유명 의류 체인으로는 ZARA, H&M, BENETTON, C & A, Mango, Alain Manoukian, Mer du Nord, Chine Collection, SuperConfex등이 있고 신발 전문점으로는 March, BRANTANO, Shoe Post, Shoe Discount, ERAM, Shoes in the Box, Shoe Looker등이 있다.

## 바. 유망상품

### 1) 네비게이션시스템

판매가가 워낙 비싸 극히 일부 층에서만 수요되었던 네비게이션 시스템이 이제는 일반 슈퍼마켓에서도 찾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일반 대중화되고 있고 또한 과거에 비해 소비자들의 전자제품에 대한 지식도 깊어지고 있는 경향으로 2006년 유럽 시장의 휴대용 카 GPS 판매는 12백만 피스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벨기에에서도 2006년 portable car navigation 판매는 약 23만 피스로 작년에 비해 거의 100% 가까이 증가했다. 전문업계의 따르면 앞으로도 휴대용 카 GPS 수요는 금년에도 작년과 유사한 비율로 계속 증가할 것이나 동시에 브랜드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어 판매 마진은 줄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종전에는 거의 전적으로 카 오디오 전문점(Car Audio Specialist)에서 취급되던 것이 근래 일반 가전 전문점에서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가전 유통점간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벨기에의 금년 1분기 중 유통채널별 매출 비중을 보면 오디오 전문점이 총 매출액의 35%를 차지하는 한편 일반 가전 전문점은 총 매출 물량의 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용 카 GPS가 처음으로 벨기에 시장에 선을 보였을 2004년 5월 초 당시에는 시판 브랜드 종류가 소수에 지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수 많은 브랜드가 시장을 다투고 있다. 동 제품 분야에서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특히 제품의 기능이 판매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기초 기능을 제공하는 표준 제품간에도 기능의 종류와 커버하는 지역 범위가 다르며 메모리를 업그레이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 POI(Points Of Interest)의 구조 등에도 차이가 있다. 그 외 Handsfree calling, MP3, 리모트 컨트롤등 추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들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휴대용 카 GPS 시스템은 단순히 길 안내 역할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 기능의 다목적 기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휴대용 자동차용 네비게이션의 수요가 증가되는 경향에 발 맞추어 자동차 판매를 촉진하려면 자동차 업체들도 자동차 조립 단계에서 이러한 네비게이션 장치를 장착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업계는 자동차 제조업체를 향해 조언하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 판매되는 신형 자동차 가운데 위성 네비게이션이 장착된 자동차의 비율은 약 10%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같이 위성 네비게이션이 장착된 자동차의 판매 비율이 낮은 것은 위성 네비게이션을 고가의 옵션으로만 제공하거나 가격이 비싼 고급 차 모델에만 기본 장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향이 계속된다면 위성 네비게이션이 장착된 자동차 판매 비율은 2007년에도 15%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2004-2005년간 수요가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휴대형 GPS시장과 대조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지금까지 GPS에 대한 미온적인 전략을 바꾼다면 2008-2009년 경 GPS 장착 자동차 판매 비중이 30%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원: [www.gfkenelux](http://www.gfkenelux), [www.carpages.co.uk](http://www.carpages.co.uk))

## 2. 물가정보

□ 도시 : 브뤼셀(벨기에)			- 환율 : 1 불 = € 0.85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b>1. 의복</b>			<b>7. 잡화</b>		
1.1	남성양복(1벌, 순모100%)	650	7.1	구두(1켤레, 소가족)	300
1.2	넥타이(1개, 실크100%)	130	7.2	치약(150g, 1개)	2.1
1.3	와이셔츠 (1벌,면100%,긴팔,흰색,현지브랜드)	130	7.3	칫솔(1개)	3.78
1.4	양말(1켤레, 면100%, 현지산)	15	7.4	면도기(1세트)	6.08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700	7.5	건전지(1세트, 1.5V AA)	9.19
1.6	스타킹(1켤레, 밴드타입, 현지브랜드)	23	7.6	화장지(1통, 300매)	2.7
1.7	청바지(Levi's)	142	7.7	비누(1개)	1.83
<b>2. 식료품</b>			<b>8. 사무용품</b>		
2.1	쇠고기(1KG, 안심)	18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10.8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5.9	8.2	볼펜(12개)	5.5
2.3	닭고기(1KG, 생닭)	5.6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3.5
2.4	쌀(1KG, Short Grain)	1.68	8.4	공CD(1통, 12개입, 700MB)	11.8
2.5	밀가루(1KG)	0.69	8.5	휴대폰(범용형)	187.62
2.6	설탕(1KG, 백설탕)	1.4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14.63
2.7	계란(10개)	1.83	8.7	인터넷가설비(1회최초, 1회설치)	141.6
2.8	감자(1KG, 현지산)	1.32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44.25
2.9	미네랄워터(1.5ℓ, Evian 1Pet)	0.85	<b>9. 자동차</b>		
<b>3. 한국식품</b>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23,600
3.1	고추장(1Kg)	8	9.2	엔진오일(1L)	24.84
3.2	된장(1Kg)	3.25	9.3	휘발유(1L)	1.48
3.3	라면(1개)	0.92	9.4	자동차등록비(2,000cc)	600
3.4	설렁탕류 (1인분, 설렁탕, 곰탕 등)	14.2	9.5	자동차보험료 (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1,180
3.5	불고기(1인분, 200g)	18.9	<b>10. 대중교통</b>		
3.6	삼겹살(1인분, 200g)	16.5	10.1	지하철(1구간)	1.77
3.7	김치찌개(1인분)	16.5	10.2	시내버스(1구간)	1.77
<b>4. 기호식품</b>			10.3	택시(기본요금)	2.77
4.1	햄버거(1개)	3.9	10.4	택시(추가요금/Km)	1.17
4.2	피자(1판)	25.4	<b>11. 공공서비스</b>		
4.3	코카콜라(1캔, 250ml)	0.7	11.1	전화개통비 (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159.3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1.17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20.24
4.5	담배(수입산, 1갑)	4.72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평상)	0.24
4.6	위스키(1병, 750ml)	41.02	11.4	공중전화(3분, 시내평상)	1.06

4.7	커피(1병, 175g)	5.5	11.5	국제전화(현지-서울, 3분, 평상)	2.6
	<b>5. 주택(150㎡)</b>		11.6	국내우편(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0.6
5.1	[임차] 중급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inished)	1,900	11.7	국제우편 (일반편지, 1통, 10g 이하, 현지-서울)	0.77
5.2	[임차] 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2,500	11.8	특급우편 (DHL, 1개, 1Kg 이하, 현지-서울)	112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없음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18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300%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2.53
	<b>6. 가전제품</b>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6
6.1	TV(Samsung CW29M 64N)	352.82			
6.2	VTR(6헤드, 범용)	112.1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콤보)	291.45			
6.4	전자레인지	141.6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1,414.82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1,820.45			

□ 도시 : 브뤼셀(벨기에)			- 환율 : 1 불 = ₩ 0.85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b>12. 교육</b>			<b>18. 노동여건</b>	
12.1	외국인학교(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35개교	18.1	법정최저임금(월 급여)	1,345.2
12.2	외국인학교(등록금, American School)	1,180	18.2	상여금(월 급여 대비%, 연간)	100%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없음	18.3	사회보장부담금 (월 급여 대비%, 연간)	13.07%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25,901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20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28,792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105일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30,529	18.6	연간국경일	10일
	<b>13. 레저·오락</b>		18.7	토요 휴무(실시여부)	실시
13.1	골프장 그린피(비회원, 18홀, 1라운드)	76.5	18.8	노동 쟁의 시 냉각기간일수	규정없음
13.2	골프장회원권 (18홀, 매매가능, 중신 양도가능)	2,118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38시간
13.3	골프공(1타)	59		<b>19. 사업여건</b>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352.82	19.1	법정최저자금	72,570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22.42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1,770
13.6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최신)	10.03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없음
	<b>14. 의료·약품</b>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개인소득세)	없음
14.1	의료보험료(4인가족, Full Cover, 초과제외)	3,000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5.35%
14.2	병원진료비(의료보험x, 몸살감기, 내과초진)	29.5			
14.3	병원진료비(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			
14.4	치과(스켈링, 1회)	59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3.54			
	<b>15. 신문·방송·잡지</b>				
15.1	현지신문(1개월, 현지유력지)	23.6			
15.2	한국신문(1개월)	없음			
15.3	케이블TV(1개월, 기본시청료)	14.51			
15.4	잡지(1부, Time 혹은 Newsweek)	4.72			
	<b>16. 호텔</b>				
16.1	특급호텔(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348.1			
16.2	특급호텔(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53.4			
16.3	중급호텔(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77			
16.4	중급호텔(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18			
16.5	조식(특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29.5			
16.6	조식(중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23.6			
	<b>17. 임금</b>				
17.1	사무실직원(월 급여, 대졸초임)	2,950			
17.2	사무실비서(월 급여, 학력불문)	2,478			

### 3. 바이어 발굴

#### 가.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1) 산업협회

- 식품 : <http://www.fevia.be>
- 보험 : <http://www.upea.be>
- 은행 : <http://abb-bvb.be>
- 시멘트 : <http://www.febelcem.be>
- 벽돌 : <http://www.brique.be>
- 화학 : <http://www.fedichem.be>
- 제약 : <http://www.pharma.be>
- 유통 : <http://www.fedis.be>
- 기계, 전기, 전자, 환경 : <http://www.agoria.be>
- 의류, 봉제 : <http://www.belgianfashion.be>
- 제지 : <http://www.cobelpa.be>
- 철강 : <http://www.steel.be>
- 섬유 : <http://www.febeltex.be>
- 유리 : <http://www.vgi-fiv.be>
- 주소, 전화번호, 팩스, 조직 등 정보는 홈페이지 참조

##### 2) 매체(전문잡지)

- 홈페이지: <http://indumedia.be>
- 금속공업, 산업 자동화, 자동차 수리 및 보수, 건설, 비 식품 소매업, 식품 소매업, 이벤트 마케팅 분야의 전문 잡지 발간. 인터넷 구독 가능

##### 3) 전시회

- 정원용품 및 주택 장식용품(Gardening and decoration fair)
  - 주최 업체명 : Rham Organisations(<http://rham.be>)
- 자동차 전시회
  - 주최 업체명 : 자동차 협회(<http://febiac.be>)
- 농업, 원예, 사육 전시회(AGRIBEX)
  - 주최 업체명 : fedagrim(<http://www.agribex.be>)
- 건축전시회(BATIBOUW)
  - 주최 업체명 : FISA(<http://batibouw.com>)
- 건강보조용품 전시회 : LIFE 2
  - 주최 업체명 : ARTEXIS (<http://www.artexis.com>)
- 자동차 부품 전시회(AUTOTECHNICA)
  - 주최 업체명 : AUTOTECHNICA(<http://www.autotechnica.be>)

- 치과용 장비 전시회(DENTEX)
  - 주최 업체명 : Dentex International(<http://www.dentex.be>)
- 수산물전시회(SEAFOOD PROCESSING EUROPE)
  - 주최 업체명 : Diversified Business Communications(<http://www.euroseafood.com>)
- IT & TELECOM 전시회(TELECOM CITY)
  - 주최 업체명 : TMBA Business Events(<http://tmba.be>)
- 선물용품 전시회(EUROPACADO)
  - 주최 업체명 : DECOFLEUR(<http://www.europacado.be>)
- 섬유전시회 (DECOSIT)
  - 주최 업체명 : Textirama(<http://www.decosit.com>)
- 가구 및 실내장식 장비 전시회(COCOON)
  - 주최 업체명 : ARTEXIS(<HTTP://www.artexis.com>)

##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1) 바이어 디렉토리

- <http://www.abc-d.be>
- <http://www.pagesdor.be>
- <http://www.trendstop.be>
- <http://www.europages.com>
- <http://www.trademart.be>
- <http://www.topbouw.be>
- <http://www.compass.com>
- <http://www.retail-argus.be>

### 2) 산업별 디렉토리

- 식품 : <http://www.fevia.be>
- 보험 : <http://www.upea.be>
- 은행 : <http://abb-bvb.be>
- 시멘트 : <http://www.febelcem.be>
- 벽돌 : <http://www.brique.be>
- 화학 : <http://www.fedichem.be>
- 제약 : <http://www.pharma.be>
- 유통 : <http://www.fedis.be>
- 기계, 전기, 전자, 환경 : <http://www.agoria.be>
- 의류, 봉재 : <http://www.belgianfashion.be>
- 제지 : <http://www.cobelpa.be>
- 철강 : <http://www.steel.be>
- 섬유 : <http://www.febeltex.be>
- 유리 : <http://www.vgi-fiv.be>

##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 가.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 1) 상담 요령

벨기에 비즈니스맨은 해당제품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와의 거래를 원한다. 즉, 상담 시 제품의 원자재, 생산기술, 특성, 성능, 경쟁제품과의 기술적인 면에서의 차이점 등 상품에 대한 기술적인 면과 거래 조건, 마케팅 전략 등에 관련된 질문을 할 때 명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대답을 망설이거나 현실에 걸맞지 않는 가상적인 대답을 하면 거래 파트너로서의 신빙성을 상실하여 향후 비즈니스 거래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상담 전 제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잠재적 시장 변동에 따른 시장 진출 전략 등에 대해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수출 가격을 제시할 때 환율변동, 생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원자재 가격변동, 운송비 변동 등 수출가 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 가까운 미래의 변동을 예상하여 이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오름세의 경우에는 더욱 더 조심해야 한다. 이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일단 현지 수입업자에게 제시한 가격을 기초로 L/C를 열은 상태에서 환율변동 또는 운송비 상승 등의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 한국 수출업자의 신용은 물론 현지 수입업자도 그의 고객에 대한 신용 상실로 판매망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2) 비즈니스 에티켓

식탁에서 소리를 내어 트림을 하거나 음식 먹는 소리를 지나치게 내고 언성을 높여 말하면 교양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기 쉽다. 술을 강요하거나 특히 상대방 비즈니스인이 모슬림인이거나 유대인인 경우에는 돼지고기 음식을 주문하는 것은 금물이다. 현지인들은 개인생활과 사생활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공휴일, 주말(토, 일), 휴가 중 접촉은 피해야 하고 호의를 베풀 때도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묻고 독단적인 태도는 피하며 사생활이나 종교에 대한 질문은 가급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 초대를 받거나 식사를 함께 나눌 때도 상대방이 다 먹지 않았는데 일어날 차비를 하거나 일어나는 것은 기본 에티켓에 벗어나는 행동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당에서 종업원을 큰 소리로 부르며 빨리 음식을 달라고 재촉하는 등 분위기를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시간이 없더라도 성급함이나 조급한 모습으로 적당히 대답하고 나중에 보자는 태도, 또는 상담 중 화를 내거나 돈을 꺼내고 다리를 꼬는 행위는 삼가해야 한다.

### 나. 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벨기에 기업인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일단 제시한 조건을 변경하면 아주 싫어할 뿐 더러 그러한 경우가 자주 있을 경우 신용 거래가 어렵게 되고 차후 신용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특히 첫 거래 시 수출가격이나 발주기간, A/S부품 공급 등 거래 조건을 제안할 때 후에 변경이 없도록 엄중히 검토하고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예상되면 이를 사전에 주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예기치 못한 일로 현지 수입상이 손해가 생겼을 경우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 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며 이러한 책임 있는 태도는 향후 거래관계 발전을 좌우한다. 또한, 현지업체가 특정 사양을 요구할 경우, 기술상 생산 가능성 여부를 분명히 밝히고 생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상황 설명과 함께 서슴지 말고 거절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희망을 주는 것보다는 거래 신용상 훨씬 바람직하다

결제 방식과 관련, 동남아 수입 경험이 많은 대규모 수입상들은 L/C무역결제에 익숙하여 L/C 대금 지불을 요구할 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주로 인근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거나 장거리 해외 무역을 처음 시도하는 수입상 가운데에는 L/C나 통관 절차 등 국제 무역 거래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상품 인도에 앞서 상품 대금을 먼저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꺼려하는 수입상들이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물품 인수 후 3개월 지불이 통용되므로 동일한 대금지불방법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T/T 대금지불방법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첫 주문 시 또는 상호 간 신용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T/T 대금 지불 방법을 꺼려하고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불 방법을 제시할 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물품인도를 보장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신용면에서 중요하다.

#### 다. 역사적 / 문화적 금기사항

벨기에는 언어를 기준으로 남부 불어권과 북부 화란어 권으로 크게 나뉘며 인종도 언어에 따라 라틴 계열과 게르만 계열로 구분된다. 이처럼 언어와 인종이 전혀 다른 민족으로 구성된 연방국가임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불어권 바이어에게 화란어로 인사를 건네거나 반대로 불어로 화란어권 사람과 대화를 시도할 경우 이들이 당황스러워하거나 불쾌해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초면의 경우 영어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무난하다.

벨기에는 카톨릭을 국교로 하고 있으나 신교 및 이슬람교 등 자유로운 종교 활동이 보장되어 있어 특별한 금기사항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찍부터 남녀평등 개념이 보편화되어 있어 많은 여성들이 직종을 불문하고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여성과의 사업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도 보편적이다.

##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 가. 투자 시 애로 사항

벨기에 국가체제가 1993년 이후 완전히 연방체제로 변형되면서 연방정부는 통화, 세제, 사회보장 제도, 외교 등 국가 주체성과 직접 연계된 분야의 정책을 주도하고 그 외 분야는 지방정부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투자도 지방정부에서 관할되고 있다(지방 정부로는 플라미쉬, 왈로니아, 브뤼셀 지방정부의 3개 지방정부가 있음).

따라서, 투자 시 투자지역 관할 지방정부 당국과 투자에 따른 투자 지원 혜택을 협상할 수 있다. 또한 각 지방 정부마다 투자 지원 조치와 특히 환경허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지방 정부 당국을 접촉, 장단점을 심층 분석한 후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지역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이 조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나 공장 이전 시 그 과정이 복잡하고 법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해고 배상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점도 사전에 알아두어야 한다.

### 나. 우리 기업이 느끼는 애로 사항(비관세 장벽)

굴삭기, 휠로더, 스키드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 경우: CE 인증 외에도 EU 각 회원국들이 각기 다른 내국 도로 인증(Road Homologation)을 요구하고 있어 국가별 수출 장비의 부품 사양이 달라지고 부품 공용화에도 저해가 되어 생산성 저하 및 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아울러 인증 기관에 인증 비용도 지불하므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다(국가별로 기준 당 약 10,000 유로 소요). 또한 중고 장비 수입 제한 목적으로 CE 마크와 적합성 인증서 외 별도 Newness Certificate 요구하여 이중으로 시간과 비용이 든다. 특히 기계의 경우 유럽의 주요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CE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으며 현지 A/S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 가. 투자진출 성공사례

#### 1) 현대 유럽부품센터(HMEP: Hyundai Mobis Europe Parts)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동북방으로 약 65km 떨어진, 두 개의 주요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루멘시(Lumen)에 위치하여 그리스, 구 소련권을 제외한 전 유럽 시장의 총 64개 대리점에 현대 순정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HMEP가 위치하고 있는 벨기에는 다국적 기업의 구주본사가 위치해 있고 안트워프 항구, 브뤼셀 공항 및 완벽한 고속도로망 등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유럽시장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물류지역이다.

HMEP는 최근 들어 각광 받고 있지만 HMEP 설립 당시만해도 생소한 개념인 아웃소싱을 선도적으로 도입, 운영한 대표적 성공 사례이다. HMEP는 세계 최대 부품 물류 전문회사인 캐터필러 로지스틱스(Caterpillar Logistics)와 물류 위탁계약을 체결, 물류 및 재고관리를 아웃소싱하는 한편 HMEP는 핵심업무 즉, 판매 및 마케팅, 기술사양 관리, 제품 개발 및 구매 관리, 대리점 관리 및 지원, 재무관리 및 회계 등의 업무만을 수행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자사 역량을 비즈니스에만 집중해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에 힘입어 1998년 연 매출액 4100만 유로로 시작한 HMEP는 2006년 1억 7000만 유로를 넘어서고 있으며 종업원 수도 현재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했다. 이에 따라 HMEP는 현재 1만평 규모인 부품센터 창고를 2004년 초에 5천 평을 추가 증축하여 미래의 성장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유럽의 각 권역별 소규모 위성창고를 건립하여 유럽 전역의 배송시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내에서도 HMEP는 최초의 현지 직접경영 사례이자, 최초의 성공 사례이다. 당초 경험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출범해 성공을 거둔 HMEP의 사례에 기초하여 현대모비스는 두바이와 상해에도 독립 법인 형태의 부품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한편 HMEP의 이러한 성공은 단순히 현대 자동차 부품의 판매 확대에만 그치지 않고 부품 A/S에 대한 딜러와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면서 완성차 판매를 향상시키는 효과까지 간접적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한국 자동차의 부품은 물론이고 완성차의 대유럽 시장 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2) 두산 인프라코어(Infracore) 유럽

브뤼셀에서 승용차로 45분 거리인 플라메리(Flameries)에 위치하고 있으며 프랑스 샤를르드골(CDG) 공항까지도 2시간 남짓 소요되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두산 인프라코어 유럽은 당초 대우중공업이 1990년 설립한 유로대우(Euro Daewoo)를 인수한 것으로 지게차(Forklift) 등 건설용 중장비의 제조 및 유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 투자법인은 벨기에를 포함한 프랑스, 이태리, 독일 등 유럽 주요지역의 현지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지역본부의 기능도 수행하게 있으며, 상근 고용인원만 300 여명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유럽 시장의 까다로운 규격요건 등을 충족시키며 매년 매출 규모가 증가하여 현재는 연간 2,000 대의 중장비를 생산하여 현지에 공급하고 있다.

## 7. 이주정착 가이드

### 가. 집 구하기

벨기에에서는 주소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외국인거주 등록, 의료보험, 은행구좌 개설, 은행 대출, 전화 신청, 자동차 등록, 자녀 학교 등록, 이삿짐 인수 등이 어려우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집을 구해야 한다.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거희망지역을 다니면서 'A LOUER' 또는 'TE HUUR'라는 주황색 광고가 붙어있는 곳에 가서 광고판에 서술된 집의 구조 및 접촉자명과 전화번호나 신문을 보고 구할 수 있으나 시간이 걸리고 언어가 잘 안 통하는 등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으므로 부동산업자 (복덕방)를 통해 구하는 것이 좋다. 벨기에에서는 집주인이 임대 수익세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나 벨기에 법을 잘 모르는 외국인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아파트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동산 업자에게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하며 주차장 임대료를 별도로 지불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국인이나 어린아이가 있는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주인이 종종 있으므로 미리 부동산업자에게 그런 집은 보여주지 않도록 지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집계약시에 집주인과 임차인은 집의 상태를 기재한 'L'Etat de lieu'를 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L'Etat de lieu'는 집주인이 임차인의 입회 하에 작성될 수도 있고 또는 부동산 전문가에 의해 작성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비용은 집주인과 임차인이 각각 50%씩 부담 한다. L'Etat des lieux 리포트 가격은 페이지 수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400-500유로 정도다. 임대계약 만기에 입주 당시 아파트 상태와 퇴거 때 상태를 비교하여 상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수나 수선비용은 임차인이 지불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3개월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지불해야 하는데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현금 또는 집주인 구좌로 이전하지 말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입금할 특별구좌를 개설, 보관해야 퇴거 때 환불 받기가 쉽다. 동 보증금은 퇴거 때 그 동안 살다가 손상된 부문에 대한 보수, 수선비용으로 할당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비로 사용할 수 없다.

### 나. 행정절차

집을 구하고 나면 주소지의 구청에 가서 외국인 거주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인 거주등록은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의무화되어 있으며, 등록을 위해서는 여권과 사진(2매)이 필요하다. 외국인 거주등록 신청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까지는 1-2주 정도가 소요된다.

### 다. 전화신청

주거지 관할 전화국에서 신청하면 되나 인계절차가 다소 복잡하므로 현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유선전화 신청 시 개설 비용은 약 16.25유로가, 인터넷 설치 시 30.37유로 든다. 전화기는 전화국에서 빌릴 수도 있고 살수도 있는데,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는 것이 유리하다.

## 라. 비품구입

벨기에의 경우 집을 구할 때 가스레인지, 식기세척기, 냉장고, 찬장 등 주방 시설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집기나 비품이 없이 비어있는 상태이므로 구입해야 할 물건이 많다. 한편, 물가가 비싼 편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이삿짐으로 부칠 물건과 현지에서 구입할 물건을 사전에 면밀히 체크해 두는 것이 좋다.

가전제품은 가전제품 전문판매점이나 디스카운트 스토어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동일한 상품의 경우에도 상점마다 가격차이가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V나 VTR을 구입할 경우 한국에 돌아가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멀티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타 집기는 집 근처 대형 슈퍼마켓이나 하이퍼 마켓에서 구입하고 가구의 경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조립식 가구를 구입할 경우 IKEA에서 구입하면 된다.

## 8. 출장가이드

### 1. 기후

#### 가. 기후 특성

벨기에는 유럽 대륙에 위치하지만 북해와 접하여 겨울 평균 섭씨 0-10도 여름 평균 12-25도의 온화한 해양성 기후이다. 1년 중 6,7월에 가장 많은 비가 오며 3월이 가장 가물다.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도 대 홍수를 겪는 사례는 드물고 가뭄으로 고통을 겪는 일도 드물다. 그러나 가을과 겨울에 바람이 세고 비와 안개가 잦아 습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 □ 기후

- 하루 평균 온도: 10.6 도(섭씨)
  - 최고 평균 온도: 14.3 도
  - 최저 평균 온도: 7.1 도
- 총 강수량: 915 mm
  - 비온 날 수(0.1 mm 이상): 198일
- 동결일수(영하 0도 이하): 48일

#### 나. 주요 도시의 기후

수도인 브뤼셀의 경우 7월 평균 기온은 섭씨 18도, 1월 평균기온 1.5도이며 겨울에 눈이 오는 경우가 드물다. 여름철에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4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 다. 출장 시 추천복장

겨울에는 추. 동복과 오버 코트를, 여름에는 하복을 준비할 것이나 여름이라도 아침, 저녁 기온이 10도, 낮 기온이 20도 정도로 하강할 것을 대비하여 가벼운 긴 팔 윗도리를 준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봄, 가을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이 많아 온도와는 달리 춥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한국의 봄, 가을보다는 따뜻하게 옷을 입고 방수 옷과 우산은 항상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시차/근무시간

### 가. 시차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8시간으로 한국이 밤 12시일 때 벨기에는 오후 4시이다. 썸머 타임제를 실시하여 한국과의 시차가 하계 동안에는 7시간으로 1시간 짧아진다. 즉, 한국이 밤 12시일 때 벨기에는 오후 5시이다. 썸머 타임이 해체되면(썸머 타임 해체 일은 해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0월 말) 다시 8시간으로 정상화된다.

### 나. 근무시간

벨기에는 주 5일 근무제이며 일반 직장의 근무 시간은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 7:30-17:00가 일반적이다. 토, 일요일은 휴무이다. 구청과 같은 지역 행정기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반적으로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 30분(점심 시간 12시부터 1시)까지며 목요일은 6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청도 있다. 우체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중앙 우체국만 토요일 오전 12시까지 연다.

근무시간은 산업분야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 5일 37시간 30분이며 아침 근무시간은 직장에 따라 7시부터 8시 30분까지, 행정기관은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폭을 두고 일찍 근무 시작하면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상점들의 영업 시간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반 상점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9:00-18:00, 슈퍼마켓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9:00-20:30이며 대부분의 슈퍼마켓은 금요일에 저녁 9시까지 영업한다. 국경일(휴일)에는 거의 모든 상점이 영업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국경일이 낀 연휴 때에는 사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

일요일에는 빵집, 꽃가게와 'night shop'과 같은 일부 상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상점 이 문을 닫는다.

은행의 업무 시간은 각 지점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00-16:00이다. 점심 시간(12:00-13:30)에 문을 닫는 지점들도 상당 수 된다.

### 다. 회계년도

법정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3. 주요 단위

벨기에는 미터법이 공식적으로 통용된다. 모든 도량 기기는 벨기에 경제부 소속 도량부의 인증을 받아야 벨기에 시장에 판매될 수 있다. 이와 병행하여 EU시장 판매를 위해서는 EU 인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미터법 단위

길이	mm	cm	m	km
부피	-	cm <sup>3</sup>	m <sup>3</sup>	-
넓이	mm <sup>2</sup>	cm <sup>2</sup>	m <sup>2</sup>	km <sup>2</sup>
무게	mg	g	kg	ton

- 벨기에 경제부 내 도량담당부서(Métrologie)
  - Add : North Gates III, Boulevard du Roi Albert II, 16, 1000 Brussels
  - Tel : 32-2-277 80 10
  - Fax : 32-2-277 54 03
  - 이메일: [metrology@mineco.fgov.be](mailto:metrology@mineco.fgov.be)

## 4. 출입국/비자

## 가. 비자

## 1) 단기체류 비자

단기체류비자는 최고 90일 동안 베네룩스와 Schengen 협정에 따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태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에 90일 동안 계속 머물거나 또는 3개월의 기간 동안 이들 다수 국가에 체류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체류 기간은 여러 국가의 체류 기간을 모두 합쳐 총 90일을 넘을 수 없다.

벨기에와 한국 간 비자 면제 협정에 의하여 관광객(90일 이내 체류 조건)에게는 비자가 면제된다.

## □ 입국 때 필요한 서류

- Passport(최소한 6개월 동안 유효해야 함)
- 필요 시 체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체류 목적으로는 가족, 친구 방문, 치료, 여행, 문화, 스포츠, 직업적 목적이 있을 수 있음.
- 체류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그러한 증빙 서류는 예를 들어 호텔 예약서류, 왕복 비행기표, 현지 통화 화폐 또는 현지 화폐로 환전할 수 있는 외화, 수표, 신용카드, 고용 계약서, 은행 구좌 시트, 사업 등록자 번호, 그 외 직업 활동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며 현지 거주자가 체류 비용을 부담 할 경우 현지 거주자의 보증 서류 등이 될 수 있음.

## 2) 장기체류 비자 (체류 기간 최소 3개월 이상)

대상자: 취업 목적의 입국자, 영리 활동을 하지 않고 현지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자, 현지에 가족이 살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거주하려는 자, 학생, 현지인과 결혼 하거나 동거하기 위한 입국자, 입양아 등임.

장기 체류(취업 및 유학)의 경우에는 출국 전 반드시 주한 벨기에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학생 비자를 받으려면 현지 학교 입학 신청서와 입학 허가서가 동반 되어야 한다. 벨기에는 학기가 9월에 시작되므로 하기 방학 동안의 휴무를 감안하여 늦어도 6월말 전에 희망하는 학교에 입학 신청을 하고 학교 당국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아야 한다.

### 3) 비자 발급처

#### □ 주한 벨기에 대사관

- 주소 : 서울 용산구 한남 2동 737-10
- 전화 : 749-0381/4
- 팩스 : 797-1688
- 휴일 : 토,일요일 및 한국과 벨기에 공휴일
- 영사과 업무시간 : 09-12 시
- 사이트 : <http://www.belgium.or.kr>

#### 나. 출입국 절차

출입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편이며 여행자의 여권과 손가방을 검사하는데 그치는 것이 통례이다. 입국 시 일시적 여행 때 필요한 물량의 짐을 가지고 들어오면 가방 마다 세밀한 검사 없이 통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짐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든가 또는 세관원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상세한 검사를 하므로 특히 비즈니스 맨의 경우 샘플을 가지고 들어 올 때에는 샘플에 대한 서류(송장, 또는 상업적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판매가 0의 송장 등)를 제시해야 하므로 서류 준비를 해야 한다.

#### 다. 출입국 유의 사항

취업 또는 파견 근무의 경우에는 비자와 노동 허가를 주한 벨기에 대사관에서 사전 발급 받아야 한다. 전염병에 대한 방역은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 마. 공항과 시내 교통편

브뤼셀 국제공항(Zaventem)과 브뤼셀 시내 사이의 거리는 약 15km며 교통편으로는 택시와 기차가 있는데 공항 내에 기차역이 있어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 기차는 브뤼셀 북역(Gard du Nord, Nordstation)과 중앙역(Gare centrale, Central station), 남역(Gare du Midi, Zuidstation)에 정차한다.

#### □ 시간표

- 공항에서 브뤼셀 시내로 들어오는 기차는 매시 00분과 37분에 있다. 공항에서 시내에 들어오는 시간은 역에 따라 22-25분이 걸린다.

#### □ 기차표 가격

- 편도: 2.20 유로(2등차) 3.40 유로(1등차), 왕복은 편도 가격의 2배
- 택시는 시내 목적지 거리에 따라 다르나 브뤼셀 국제공항에서 브뤼셀 시내에 들어 오는데 드는 비용은 25-35 유로 정도를 예상하면 된다.

## 5. 환전

벨기에에서는 2002년 1월 1일부로 EU 단일 통화인 유로(EURO)를 사용하고 있다. 유로 화폐는 8종의 동전과 7종의 지폐로 구성된다. 동전 단위로는 1,2,5,10,20,50 cents와 1,2 euro가 있으며 지폐 단위로는 5,10, 20, 50,100,200,500 EURO가 있다.

환전은 공항, 호텔 또는 관광지 환전소에서 할 수 있으나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환율상 유리하다. 일반 상점에서는 100 유로, 200유로 500 유로 등 단위가 큰 지폐를 받기를 꺼려하고 아예 거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행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액 단위의 지폐를 준비하는 것이 편리하다.

환전 시에는 여권을 제시해야 하며 쓰고 남은 지폐는 공항 이나 일반 은행에서 재 환전할 수 있다. 유로 통화를 사용하는 유로 회원국은 벨기에를 비롯하여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화란,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그리스, 슬로베니아이며 이들 국가에서는 유로 통화가 동시에 통용된다.

곳곳에 있는 현금 출납기에서 한국 비자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와 수수료를 감안할 때 특히 소액 인출은 비 경제적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현금 출납기를 사용할 때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위를 살펴보고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매월, 매주, 매일 평균 환율은 벨기에 중앙 은행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 벨기에 중앙은행 사이트: <http://www.nbb.be>

### 유로대비 달러 환율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8956	0.9456	1.1312	1,239	1,2441	1.2556

자료원: 벨기에 중앙은행

주: 2001-2006년: 연 평균 환율

## 6. 교통/통신

### 가. 우리나라와의 교통

#### 1) 항공편

서울-브뤼셀 직항 운행 항공은 없고 서울-프랑크푸르트-브뤼셀 또는 서울-암스테르담-브뤼셀 서울-런던-브뤼셀, 서울-파리-브뤼셀 노선을 운행하는 KAL, KLM, AIR FRANCE, LUFT HANSA 항공이 있다.

#### □ 취항 항공사 연락처

- KAL 브뤼셀 TOLL FREE - 전화: 0800 11662
- AIR FRANCE - 예약: 070 22 24 66 (Zaventem 브뤼셀 국제항공 전화번호: 02-735 6432), 인터넷 사이트: [www.airfrance.be](http://www.airfrance.be)
- LUFTHANSA: 전화: 02-745 44 55, 02-720 22 26, 인터넷 사이트: [www.lufthansa.be](http://www.lufthansa.be)

- KLM: 전화: 070 22 27 47 인터넷 사이트: [www.klm.com](http://www.klm.com)
- British Airways: 전화: 02-717 32 17, 인터넷사이트: [www.britishairways.com](http://www.britishairways.com)

#### □ 저렴한 항공 예약 방법

- 서울행 비행기 가격은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다르며 항공마다 항공료의 차이가 있으므로 현지 신용 여행사를 통해 출국기간에 어떤 항공사의 항공표가 가장 저렴한지 알아본 후 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행사

- ICTAM(전화번호: 02-548 99 00, 팩스: 02-511 12 98, 주소: 52, RUE DE LA MONTAGNE, 인터넷 사이트: [www.ictam.com](http://www.ictam.com))
- 브뤼셀 국제공항 당국 인터넷 주소: [www.biac.be](http://www.biac.be)
- 공항에서 물건을 분실했을 때 연락처 전화 번호: +32-(0)2-753 68 20

## 2) 운송

한국과 벨기에간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업체가 다수 있으나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인 기업 A.T.I.해운을 이용하면 행정처리가 편할 수 있다.

- A.T.I. Europe
- KTDC Bldg.IF
- Vareseweg 1
- 3047 AT Rotterdam, The Netherlands
- e-mail: [Adotraco@EuroNet.nl](mailto:Adotraco@EuroNet.nl)
- Tel: 31-62-0623356

### 나. 국내교통

택시는 길거리 아무데서나 잡을 수 없고 시내 중심지에 택시 승차장에서 타야 하며, 공항에는 공항 전문 운행 택시가 있다. 그 외 모든 택시는 콜 택시로 부르면 5-10분 내에 오는데 요금은 지정된 택시 승차장에서 타는 것과 동일하다. 요금 기준은 주간과 야간이 구분되며 야간(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에는 1.86유로가 추가되고 시내와 시외가 다르다.

즉, 기본요금은 2.35 유로이고 브뤼셀 시내에서는 Km 당 99 센트, 교외에서는 1.98 유로가 추가된다. 대기 요금은(교통 체증으로 기다리는 것도 포함) 시간당 19.83유로가 추가되므로 시내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택시 요금이 비싼 편이므로 대중 교통을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 택시호출번호: Taxi vert: 02/ 349 46 46

### 다. 시내 대중교통

브뤼셀 시내에서는 버스를 타든 전차나 지하철을 이용하든 요금은 동일하며, 1시간 내에 어떤 교통 수단을 갈아 타든 요금을 다시 지불하지 않는다. 이러한 버스/지하철/전차 공용 티켓 요금은 1회용이 1.50 EUR(매표소에서 구입할 때) 또는 2.00 EUR(차내에서 운전수한테서 구입할 때)이며 5회용 카드는 6.50EUR, 10회용은 11 EUR이다.

## 1) 표 사는 방법

버스나 전차에서는 1회용 티켓만 운전수로부터 살 수 있다. 그러나 대중 교통 수단을 여러 번에 걸쳐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1회용 티켓은 5회용이나 10회용 티켓보다 훨씬 비싸므로 지하철 매표소(일반적으로 판매원이 있음)나 지하철 역에 있는 자동 판매기에서 5회용, 10회용 티켓을 사는 것이 경제적이다.

## 2) 주의 사항

벨기에에서는 대중 교통을 탈 때 운전수가 표를 검사하지 않기 때문에 표 없이 승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종종 검사원이 버스나 전차, 전철에 올라 타 표를 검사하고 표가 없을 때에는 엄청 난 벌과금(150 유로)을 지불하게 되므로 반드시 승차권을 가지고 타도록 해야 한다.

## 라. 기차

벨기에에는 철도망이 발달하여 웬만한 곳이면 기차를 사용하는 것이 편하다.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느 역에서나 기차 시간에 구매 없이 어느 기차나 탈 수 있는 국내 여행용 GoPass 또는 RailPass를 구입할 수 있다.

GoPass는 26세 미만용으로 10회 편도 티켓이며 가격은 45 유로(1회 편도 여행 가격이 4.5 유로인 셈), 유효기간은 1년이다. RailPass은 26세 이상 성인용 기차 티켓이며 10회 편도 여행용 티켓이다. 가격은 68 유로. 유효기간은 1년.

### ○ 구입 방법

- GoPass나 railPass는 벨기에 철도청 사이트 <http://www.b-rail.be>에 들어가서 예약한 다음 모든 기차역에서 예약 번호와 지불에 사용한 신용카드를 보이고 구입할 수 있다. 벨기에에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크기의 작은 영토이므로 국내 비행기 편은 없다.

## 마. 국제통신

공중전화나 일반전화기로 국내와 국외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전화카드를 기차역, 공항, 길거리의 신문, 잡지, 담배를 파는 가게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근래 휴대폰 소유자 수가 급증하면서 공중전화 사용도가 낮아 공중전화기를 줄이고 있으며 동전을 사용하는 공중전화는 더욱 드물다.

## 바. 우편

### 벨기에에서 한국으로 발송되는 편지 및 소포 요금

무게	일반 요금 (유로)	속달 요금( 유로)
50g까지	2.25	2.70
50-100g 까지	2.25	2.70
100-350g 까지	4.50	5.40
350g-1 kg 까지	9.75	14.40
1-2 kg 까지	19.50	28.80
2-5 kg 까지	52	

자료원: 벨기에 우체국

## 7. 호텔/식당

### 가. 호텔

브뤼셀에 소재한 Booking Service International 을 통해 카테고리 별, 소재지 별로 전국에 걸쳐 원하는 호텔을 예약할 수 있다. 단, 별 3개 이상의 호텔, 즉 요금수준이 싱글 룸 100 유로, 더블 룸 125 유로 이상 수준의 호텔이다.

- Booking Service International
  - 전화 : 32-(0)2 646 82 00
  - 팩스 : 32-(0)2 646 88 08

한편, 인터넷 사이트 <http://www.brussels-hotels.com>을 통해서 브뤼셀에 위치한 호텔을 예약할 수 있다.

### □ 주요 호텔

- W.T.C. President Hotel
  - 전화 : 32-(0)2 203 20 20
  - 팩스 : 32-(02) 201 52 66
  - 웹사이트 : [www.presidenthotels.be/wtc](http://www.presidenthotels.be/wtc)
  - 요금 (가격은 비수기일 때 인하될 수 있음.)
    - 싱글 : 250 유로
    - 더블 : 280 유로
    - 아침식사 : 19 유로
  - 위치 : 브뤼셀 북역(Gare du Nord, Nordstation)
- ARGUS Hotel
  - 전화 : 32-(0)2 514 07 70
  - 팩스 : 32-(02) 514 12 22
  - 웹사이트 : [www.hotel-argus.be](http://www.hotel-argus.be)
  - 요금
    - 싱글 : 100 유로 (조식포함)
    - 더블 : 120 유로 (조식포함)
  - 위치 : 브뤼셀 시내 Porte de Namur(Naamsporte, 네덜란드어) 전철역
- HILTON Hotel
  - 전화 : 32-(0)2 504 11 11
  - 팩스 : 32-(02) 504 21 11
  - 웹사이트 : [www.hilton.com](http://www.hilton.com)
  - 요금
    - 싱글 : 145-450 유로
    - 더블 : 175-480 유로
  - 가격은 투숙고객 수에 따라 바뀔 수 있음.
  - 아침식사 포함되지 않은 가격임. 아침식사 40 유로
  - 위치 : 브뤼셀 시내 Louse(Louisa) 전철역

- NOVOTEL Hotel
  - 전화: 32-(0)2 514 33 33 / 팩스: 32-(02) 511 77 23
  - 웹사이트: [www.novotel.be](http://www.novotel.be)
  - 요금
    - 싱글: 175 유로
    - 더블: 184 유로
    - 아침식사 15 유로 추가
  - 위치: 브뤼셀 시내 De brouckere 전철역

여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Youth Hotel을 이용할 수 있으나 숙박에 그치고 일반적으로 식당 시설이 없으며 화장실과 샤워도 공동으로 쓴다. 세계 60여 개국에 걸쳐 6000여 개의 Youth Hotel망을 가지고 있는 AUBERGE DE JEUNESSE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벨기에 전역에 걸쳐 원하는 지역에 위치한 숙소를 예약할 수 있다.

- AUBERGE DE JEUNESSE
  - 인터넷사이트: <http://www.laj.be>
  - 전화: 32-(0)2 219 56 76 / 팩스: 32-(0)2 219 14 51

## 나. 식당

### □ 한식

- 아리랑(korean Barbecue): 브뤼셀
  - 주소: Avenue Louise 337, 1050 Bruxelles
  - 전화: 02-649 22 43
  - 가격대
    - 김치찌개: 15 유로
    - 불고기 백반: 17 유로
- 서울 식당(Restaurent Seoul): 브뤼셀
  - 주소: Rue Capitaine Crespel 14, 1050 Bruxelles
  - 전화: 02-513 17 25
  - 가격대
    - 두부찌개: 13 유로
    - 불고기 백반: 17 유로
- 한국관: 브뤼셀외각
  - 주소: Leuvensesteenweg 147 A, 3080 Tervuren
  - 전화: 02-767 82 25
  - 가격대
    - 김치찌개: 15유로
    - 불고기백반: 17유로
- 하나: 브뤼셀
  - 주소: Rue Saint-Boniface 21, 1050 Bruxelles
  - 전화: 02-502 52 41
  - 가격대
    - 불고기백반: 17유로

브뤼셀에 4개의 한국식당이 있고 이들 한식식당의 가격은 벨기에 중. 상급 레스토랑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다.

#### □ 중식

- AU THE DE PEKENG: 브뤼셀 시내
  - 주소: 16-24 rue de la Vierge Noire, 1000 Bruxelles
  - 전화: 02-512 38 88
  - 가격대: 수프 8 유로, 일반 요리: 13-15 유로
  - 브뤼셀 거주 한국인들이 즐겨 가는 중국 식당

#### □ 일식

- TAGAWA: 브뤼셀
  - 주소: 279 Avenue Louise, 1050 Bruxelles
  - 전화: 02-640 50 95
  - 가격대: 우동 17 유로
  - 가격이 비싼 편임.
  -
- Yamayu Santatsu : 브뤼셀
  - 주소: Chee d'Ixelles 141, 1050 Bruxelles
  - 전화: 02-513 53 12
  - 가격대: 우동 15 유로
- SAMURAI: 브뤼셀
  - 주소: Rue Fossé aux Loups 28, 1000 Bruxelles
  - 전화: 02-217 56 39
  - 가격대: 우동 17 유로(가격이 비싼 편임)

#### □ 양식

- Chez LEON : 브뤼셀 먹자 골목
  - 주소 : 18 Rue des Boucher, 1000 Bruxelles
  - 전화 : 02-513 04 26
  - 가격대: 홍합 18-25 유로(홍합 전문 집으로 유명하며 도교, 파리에 분점이 있음)

### 8. 관공서 관행

#### 가. 민원처리기간

브뤼셀에 있는 국제기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구청의 민원처리가 지적되고 있다. 이는 관공서가 행정 처리 절차의 규정과 원칙을 고집하고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을 엄수하기 때문에 행정 처리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국민들도 자국 관공서의 행정 처리 속도가 늦다는 불평을 하기도 한다.

관공서를 방문해야 할 때에는 방문 전에 근무시간, 준비해야 할 서류, 수수료 등 정보를 알고 가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순조롭게 행정 처리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

벨기에 정부의 정책 중 하나가 공무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 채용제도를 시정하고 객관적 평가제도를 도입하며 민간기업과 같이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주민을 고객으로 간주하는 업무 태도로 전환시키는 공무제도의 개혁으로 고객만족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행정 편의와 처리속도 개선을 위해 인터넷 행정(e-administration)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행정 간소화를 위한 개혁에 나서고 있다.

#### 나. 관공서 방문 시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관공서 직원들은 영어를 잘 못하므로 언어권 지역에 따라 불어나 네덜란드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동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국인에 대해서 다소 고자세를 보일 수 있으므로 방문 시 외모를 말끔히 가꾸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관공서에는 번호표 시스템이 되어 있어 오는 사람대로 번호표를 이용하여 차례를 기다리며 간단한 문의라고 판단하여 자기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남을 앞 치고 가는 결례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일단 자기 차례가 끝나면 또 줄을 서서 자기차례를 기다려야 하므로 문의할 사항이 많으면 잊지 않고 한꺼번에 묻도록 문의 사항을 미리 종이에 적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관공서 직원들은 근무 시간을 엄중히 지키고 행정 업무 종류마다 근무 시간이 다소 다를 수도 있으므로 관공서에 가기 전에 근무시간을 확인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감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근무시간 내에 가도록 해야 한다. 근무시간이 1-2분 지났다고 일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일을 잘 처리해 달라고 선물을 주는 것은 삼가 해야 한다.

#### 9. 공휴일

##### 2008년 벨기에 공휴일

01/01(화요일)	신정 (JOUR DE L'AN/NIEUWJAAR)
03/24(월요일)	부활절 (PAQUES/PASEN)
05/01(목요일)	노동절 (FETE DU TRAVAIL/FEEST VAN DE ARBEID)
05/01(목요일)	예수승천일(ASCENSION/O.H.HEMELVAART)
05/12(월요일)	오순절 (PENTECOTE/PINKSTEREN)
07/21(월요일)	독립기념일 (FETE NATIONALE/NATIONALE FEESTDAG)
08/15(금요일)	성모승천일 (ASSOMPTION/O.L.V TENHEMELOPNEMING)
11/01(토요일)	만성절 (TOUSSAINT/ALLERHEILIGEN)
11/11(화요일)	휴전기념일 (ARMISTICE/WAPENSTILSTAND 1918)
12/25(목요일)	크리스마스(NOEL/KERSTMIS)

주: ( )는 벨기에 공용어인 불어/네덜란드어 표기임. / 상기 공휴일 이외에도 2월 4일(월요일)부터 8일(금요일)까지 카르나발 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는 1주일간 방학 이라 자녀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갖기 때문에 비즈니스맨 접촉이 어려운 기간임. 또한 전통적으로 부활절 방학(3월 24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금요일)에도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동 기간 중에도 비즈니스맨 접촉이 어려우므로 동기간 중 출장을 피하는 것이 좋음. 금년에는 노동절과 예수 승천일이 중복되어 목-금 양일을 휴무하는 업체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함.

#### □ 출장지양 기간

전국 초, 중고등학교는 부활절 2주전에 2주일간 방학(방학 일자는 매년 각 언어권 소속 문교부에서 결정)에 들어가며 학생들 방학 중에는 자녀들과 휴가를 즐기는 직장인들이 많다. 따라서 이 기간을 피하거나 상대방의 휴가 일정을 미리 알아본 후 이에 맞추어 출장 일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목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금요일까지 또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칠 경우 월요일까지 휴일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장 시 주의해야 한다. 또한, 7-8월에는 학교 방학은 물론 직장인의 대부분이 휴가 시즌이므로 이때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한 경우 상대방의 휴가일정을 사전에 알고 대처해야 한다. 12월 중순부터 1월 초까지는 성탄절을 포함한 연말연시로 특히 관공서의 '연휴'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 시기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0. 여행시 유의사항

### 가. 여행준비

#### 1) 의복준비

북반구에 위치하여 한국과 계절 변화가 같으며 4 계절이 비교적 뚜렷한 편이다. 그러나 해양성 기후라 숲 지대인 독일과 룩셈부르크와 접하고 있는 국경 지방을 제외하고는 겨울에 영하 섭씨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영상 기온을 유지한다.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이 많으므로 두꺼운 모직 코트보다는 비 막이 천으로 된 파카 같은 상의가 더 유용하다. 또한 여름에는 기온이 25-30도 올라가기는 하지만 30도 이상의 날씨는 드물고 한국처럼 무덥지 않아 여름을 지내기가 비교적 수월하고 여름옷은 한국과 비슷하게 준비하면 무난하다.

#### 2) 전기규격

50HZ, 220V이고 전기 플러그모양도 다르므로 한국에서 사용하던 전자제품을 쓸 때는 겸용 전자제품을 준비하는 것이 편하다.

### 나. 여행여건

#### 1) 치안 및 위험지역

범죄가 특별히 심한 국가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대도시 일부 지역은 소매치기 등의 경미한 범죄가 빈발하다. 특히 야간 외출 시 현금을 너무 많이 지니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며, 혼자 다니기보다 가급적 그룹으로 행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여권, 신분증, 신용카드 등은 돈지갑과 다른 주머니에 휴대하며 쓸 돈만 따로 준비하여, 사람이 많은 곳에서 돈이 많이 든 지갑을 노출하지 않도록 한다. 공항, 버스, 전차, 전철, 길에서도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도록 항상 가방 등 소지품에 조심해야 한다. 누가 길을 물어 보아도 모른다고 얼른 끊어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길을 묻는 척하면서 상대의 정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 다음 공범이 소매치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 정복 차림의 사기꾼 일당이 2-3명씩 그룹으로 다니면서 여행객을 상대로 위조 경찰 신분증을 보이며 마약 소유 여부를 검사한다며 몸과 가방을 뒤지고 지갑의 돈을 감쪽같이 빼간다고 하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만일 이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당황하여 가방을 맡기지 말고 같이 경찰서로 직접 가서 해결하자고 제안하고 지갑, 가방 등 소지품을 일체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험지역: 일반적으로 브뤼셀 시내 역(북역, 중앙역, 남역) 근처와 그랑플라스와 뤼네브(Rue Neuve)의 쇼핑 지역에는 소매치기가 많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 2) 택시

역전이나 공항에는 택시가 있지만 시내에는 지정된 몇 곳에만 택시 정류장이 있으므로 시내에서 택시타기는 비교적 어렵다. 또한 지나가는 빈 택시를 불러도 서지 않는다. 지나가는 빈 택시는 사실상 빈 택시가 아니라 손님을 태우러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벨기에에서는 택시 정류장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택시 외에는 불러야 오는 콜택시이므로 (요금차이 없음) 택시를 타려면 가급적 호텔이나 레스토랑, 사무실, 집 등에서 부르는 것이 편하다.

택시요금은 미터기로 기록되므로 속임수를 쓰는 경우는 드물다. 단 시외로 나갈 때는 미터기 기준이 달라지므로 이점에 유의하고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영수증을 요구하여 이를 근거로 택시 회사를 접촉,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3) 응급

대부분의 병원에는 응급실이 있으며 응급실로 직접 갈 수 없을 때 100번을 누르면 구급차가 와서 응급실로 이동할 수 있다.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치료비가 비교적 비싸므로 유의해야 한다. 화재신고도 100번으로 할 수 있고 경찰서 긴급번호는 110번이다.

## 4) 팁 관행

모든 서비스에는 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요금이외에 별도로 팁을 줄 의무는 없으나 택시를 탈 때 짐이 많아 운전수가 도와주거나 호텔 등에서 포터가 짐을 옮겨줄 경우 흔히 소정의 팁을 주는 것이 관례다.

음식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서비스료는 없으며 서비스에 만족한 경우 소정의 팁을 주기도 한다.

## 5) 식수

수돗물은 어디서나 식수로 이용할 수 있으나 지형적 성격상 석회가 비교적 많아 미네랄 워터를 보통 음료수로 마신다. 현지 식당에서는 물을 무료로 제공하지 않으며 물을 마시고 싶을 때는 별도로 미네랄워터를 주문해야 한다.

## 6) 이발소, 미장원

이발이나 미용비가 아주 비싸고 깎는 방식도 우리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행 출발 전 한국에서 이발, 미용하고 나오는 것이 좋다.

## 다. 쇼핑

### □ 물가

벨기에 물가는 매우 높은 편이다. 서울의 물가와 비교해 보면 거의 모든 것이 1.5-2배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11. 유용한 연락처

### □ 비상 연락처

- 응급의료 서비스 : 전화번호 100
- 화재 : 전화번호 100
- 경찰 : 101
- 긴급구조대 : 102
- 약물,식품 중독 : 전화번호 070 245 245
- 중화상 : 02-268 62 00
- 교통사고 : 112(EU내에서는 어디서나 동일한 번호임)

### □ 한국기관

- 대사관겸 EU 대표부
  - 주소 : Ch. de la Hulpe 173-175, 1170 Brussels
  - 전화 : 02-675 57 77
- 무역관
  - 주소 : Boulevard du Roi ALBERT II, No.30, 1000 Brussels
  - 전화 : 02-203 21 42
  - 이메일주소 : [ktcbrus@skynet.be](mailto:ktcbrus@skynet.be)
- 무역협회
  - 주소 : Av. Louise 165, 1050 Brussels
  - 전화 : 02-646 21 80
  - 인터넷주소 : <http://www.kotis.net>
- 재벨한인회
  - 주소 : Rue des Cerisiers 21, 7090 Braine-le Comte, Belgium
  - 전화 : 067-56 15 96 / 팩스 : 02-251 82 52
  - 인터넷주소 : <http://www.belgiumkorean.yahoo.com>
- 대한항공 브뤼셀 지점
  - 전화 : 02-751 80 85 / 팩스 : 02-751 79 60
  - 24시간 예약서비스 무료 전화번호 : 0800-0656-2001
- 브뤼셀 한인교회
  - 전화 : 02-768 14 45
  - 팩스 : 02-768 28 16
  - 주소 : Museumlaan 2, 1970 Wezembeek-Oppem
- 벨지움 선교교회
  - 전화 : 02-306 60 26
  - 팩스 : 02-332 30 50
  - 주소 : Alsebergsesteenweg 1131, 1650 Beersel

## □ 관공서

- 경제성
  - 주소 : North Gate III, Bld.du roi Abert II, 12, 1000 Brussels
  - 전화 : 02-206 41 11
  - 인터넷주소: <http://www.mineco.fgov.be>
- 외무성
  - 주소 : rue Petit Carme 15, 1050 Brussels
  - 전화 : 02-501 81 11
  - 인터넷주소 : <http://www.diplobel.org>
- ACE(Agence pour le Commerce Exterieur벨기에 연방정부 무역진흥청)
  - 주소 : rue Montoyer 3, 1000 Brussels
  - 전화 : 02-206 35 11
  - 인터넷주소 : <http://www.obcebdbh.be>
- 법무성
  - 주소 : Bld.Waterloo 115, 1000 Brussels
  - 전화 : 02-542 65 11
  - 인터넷주소 : <http://www.just.fgov.be>

## □ 은행

- Fortis Bank
  - 주소 : Bld. E. Jacquain 53, 1000 Brussels
  - 전화 : 02-220 81 11
  - 인터넷주소 : <http://www.fortis.com>
  - 이메일주소 : [info@fortis.com](mailto:info@fortis.com)
- ING Bank
  - 주소 : Av. Marnix 24, 1000 Brussels
  - 전화 : 02-547 21 11
  - 인터넷주소 : <http://www.bbl.com>
- KBC Bank
  - 주소 : 1 Havenlaan, 1000 Brussels
  - 전화 : 02-422 71 11
  - 인터넷주소 : <http://www.kbc.com>

## □ 경제단체

- FEB(Federation des Entreprises Belges, 벨기에경제단체연합회)
  - 주소 : Rue Ravenstein 4, 1000 Brussels
  - 전화 : 02-515 08 11
  - 인터넷주소 : <http://www.vbo-feb.be>
  - 이메일주소 : [red@vbo-feb.be](mailto:red@vbo-feb.be)

- AGORIA(벨기에 금속, 전기, 전자, 기계제조협회)
  - 주소 : Bld. A. Reyers 80, 1030 Brussels
  - 전화 : 02-706 78 00
  - 인터넷주소 : <http://www.agoria.be>
  - 이메일주소 : [howard.wei@agoria.be](mailto:howard.wei@agoria.be) (아시아담당 Mr. HOWARD WEI)
  
- Brussels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주소 : Av. Louise 500, 1050 Brussels
  - 전화 : 02-648 50 02
  - 인터넷주소 : <http://www.cci.be>
  
- Fedichem(벨기에화학협회)
  - 주소 : Square Marie-Louise 49, 1000 Brussels
  - 전화 : 02-238 97 11
  - 인터넷주소 : <http://www.fedichem.be>

## 12. 관광명소

### 1) 그랑플라스(Grand'Place, 혹은 Grot-Mart)

프랑스 작가 Victor Hugo 가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라고 극찬했던 브뤼셀의 중심을 이루는 대 광장으로 중세기 이래 벨기에 번영의 자취를 볼 수 있다.

그랑플라스는 시청을 둘러싸고 박물관, 카페, 레스토랑, 특산물 상점들이 옛날 바로크양식의 길드하우스에 들어 서 있고 카페나 맥주를 마시면서 그랑플라스의 정경을 즐길 수 있다.

브뤼셀 광장을 둘러 싸고 있는 건물 중에는 Victor Hugo 가 망명 당시에 머물렀던 집도 남아있다.

### 2) 오줌싸개 소년상 Manneken Pis

그랑플라스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있는 오줌싸개 소년상은 17세기 초 제롬 뒤께누와 (Jerome Duquesnoy)가 만든 동상으로서 브뤼셀의 역사적 변천을 지켜 본 브뤼셀 부르조아의 선조이자 증인이다. 오줌싸개 소년상은 개구쟁이와 같은 장난기와 조롱기의 유머가 가득 찬 브뤼셀 주민의 정신을 상징하며 동상의 크기는 60cm밖에 되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상이다.

오줌싸개 동상의 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1142년 Ransbeke 전쟁에서 고드후르아(Godefroid) 2세의 군대가 태어난 지 3개월 된 공작 아들을 불모로 잡아 요람에 매달아 놓자 오줌 싸는 흉내를 보였다는 설이 있다.

### 3) Saint Gudule 성당

그랑플라스에서 약 500미터 북쪽에 위치한 성당으로 15세기 초의 아름다운 고딕식 성당 (만화박물관), 틴틴(Tin Tin)작가를 비롯하여 벨기에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만화 작가 들이 다수 있다. 이들 작가들의 그림과 작품들을 진열하고 있다.

#### 4) 악기 박물관

유럽 전통의 고전 악기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사용되는 각 민족 악기를 한 눈에 보고 들을 수 있는 악기 박물관이 있다. 박물관 건물의 건축 양식은 Art Nouveau(아르누보) 양식으로 아르누보의 상징적 인물인 벨기에 Victor Horta가 설계한 건물이며 건축 자재로 철과 유리를 사용했으며 부드러운 곡선과 색유리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 5) 워털루, Waterloo

브뤼셀에서 약 20 km 남쪽. 나폴레옹과 웰링톤 장군이 대격전을 벌이던 전쟁터로 나폴레옹의 패배로 끝나 결국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당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 6) 브뤼즈, Brugge

북쪽의 베니스라고 일컫는 곳으로 중세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도시. 브뤼셀에서 북서쪽(북해)으로 약 130km. 전철이용 가능

#### 7) 안트워프, Antwerpen

안트워프에는 뤼벤스 하우스(Rubens)가 있고 안트워프 시내 성당을 둘러싸고 마치 브뤼셀 그랑플라스와 같이 카페, 식당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 항구도 구경 해 볼 만 하다.

#### 8) 아르덴, Ardennes

아르덴지방은 벨기에의 유일한 숲과 계곡이 있는 곳으로 사슴, 멧돼지들이 자유롭게 자라고 가을 사냥 철에는 이들 야생고기를 맛볼 수 있다.

#### 9) 쇼핑장소

브뤼셀시내 쇼핑장소는 rue Neuve를 중심으로 그랑플라스 주변 쇼핑센터와 avenue Louise, Woluwe 쇼핑센터가 있는데 고가상품을 비롯하여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으므로 쇼핑하기에 좋은 장소이다. 유명 브랜드 판매 상점이 모여 있는 곳은 루이즈가(Avenue Louise)이다.

#### 10) 특산물

벨기에 특산물은 초콜릿, 맥주, 벽걸이 카펫, 자수제품들이라 할 수 있다. 관광 명소인 그랑플라스에 초콜릿과 벽걸이 카펫, 자수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점들이 많이 있으며 브뤼셀 국제공항 내 상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